



7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7 호

(루계 513)

◇◇◇◇◇◇◇◇◇◇

차 례

◇◇◇◇◇◇◇◇◇◇

한그루 버드나무	4
주체의 태양	7
바다	8
잊을수 없는 영광의 그날	20
운명의 품	21
기존벽화리론의 종말	22
생의 궤도	23
아리랑	30
찢광이	31
1211 교지 나무의 말	32
이나라 녀인들	33
우화	44
병사시절 언제나 평양과 함께	45
하늘가에 뿌려진 글밭	47

90 년대 인간의 성격	48
생활의 원근법	54
썩어가는 아메리카 《에이즈》의 왕국	56
아, 나의 어머니	57
조국과의 상봉	58
탐구와 변론	65
기억하라	69
통일의 날 평양의 거리에서	70
작가의 사색문제	72

한그루 버드나무

김석주

1

푸른 물 유유히 흘러가는
풍만한 강물우에 떠있는
버들섬
섬기슭에 감도는 물안개
마을을 유혹하는 푸른 숲

거기엔 무엇이 있을까
거기엔 누구들이 살까
그리고 어떤 꽃들이
피어있을까
저도 몰래 마음 끌려가거니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그 섬에 한번 가보시라
버드나무 줄지어 서있는
섬 서쪽끝에 가면
류달리 눈에 띄는 버드나무
있어
그앞에서 좋은 이야기도
들을수
있다네

건강한 젊은이들속에 끼워선
수염허연 로인과도 같이
류달리 아지많은
버드나무한그루
오늘은 그앞에 서있어라
애젊은 청년과 로인 한분

오늘은 로인의 막내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날
고향집에서 하루밤을 자고
래일새벽엔 초소로 떠나가리
그러면 오랜 세월 섬을
떠나있으리

하기에 막내를 앞세우고
로인은 이 버드나무앞에
왔거니
그 어떤 못잇을 사연이라도
있는것인가
그 한그루 나무에

버드나무에 깃든
전설아닌 이야기

하지만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
그것은 아직
그 어떤 책에도 써여있지 않은
섬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

그러나 돌에 새긴 글처럼
영원히 지울수 없이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있는
향토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이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새들마냥
섬을 오래동안 떠나게 될 때
너나없이 잘 알고있는
이야기지만
섬사람들은 가풍처럼
들려주더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말처럼 생긴 이 버드나무
옛날부터 이자리에 뿌리깊이
내리고 자라
어렸을 때엔 나도
자주 이 나무에 올라 놀기도
했다...》

이 땅의 한끝
강하구에 떠있는 작은 섬
버들이 많다 해서
이름도 버들섬

지도에는 하나의 점으로 찍혀
널리 소문도 나지 않았어라
세상에 그런 섬이 있다는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도
우리 수령님께서 잘
알고계신다는
그 생각으로 섬사람들은
외롭지 않거니

그 어느해인가 한번은
큰 경사가 있었다네
발동선을 타시고

강아래 큰 섬으로 가시던
수령님
곳은 비를 맞으시며
흔들리는 배전에 서시어
망원경을 드시고 오래도록
섬을 살펴보셨다네

그날 그이께서는
배를 천천히 물라고 하시며
버들섬이 저 멀리 가물거릴
때까지
어쩐지 생각깊으신 눈길을
기슭에서 떼지 못하셨다네

뒤늦게야 그 소식을 안
섬사람들은
행여나 오시는 길에 들리지나
않으실가
남모르는 기다림속에
머칠밤을 기쁨속에 보낸 일
있었다네

그 행복속에
그 기쁨속에
비옥한 땅을 가꾸며
소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너 사랑의 향토여

섬에서 나서자란 사람들치고
걸음발을 옮기던 그 시절부터
밭에서 감탕이 마를새
없었거니
갈계를 주으며 점심을 잊었고
가을이면 갈밭에 내리는
기러기떼를 쫓으며 해저무는줄
몰랐더라

섬사람들은
누구나 섬을 잘 안다네
어느 철엔 어느 기슭에 가면
붕어가 잘 물리고
어디엔 갈계구멍이 몇개나
되는 지도

섬 서쪽기슭에는

늙은 버드나무 한그루가
있다네
물위에 비스듬히 누워
말처럼 타고 놀기 좋은
버드나무
밥숟갈을 놓기 바쁘게 달려온
섬마을 아이들은
그 나무에 올라 낚시줄을
드리우기도 했고
물위에 실려가는 흰구름을
쫓으며
어린 꿈을 키우기도 했다네

그 늙은 버드나무와
인연없는 사람이 없거니
이 섬에서 머리카락도
살아오는
그 로인도 그렇게 자랐더라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고향섬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버드나무앞에서
흘러간 유년시절을 되찾기도
했고
동요시절의 동무들도
그려보기도 했으니

한그루 버드나무
그것은 섬사람들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된
못잊을 추억
즐거운 유년시절
고향에 대한 사랑의
표상이기도 했더라

3

버드나무에 손을 얹은채
그 무슨 사연을 더듬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로인은 조용히 이야기한다

《스무해전 그해 여름에
큰 장마가 젖단다
그때는 아직 네가 태어나기 몇
해전 일
섬에 오래 산 로인들도
그런 큰 물은 처음 본다고
했고
백년내에 없던 홍수라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 섬은
아무런 피해없이 홍수를

넘겼다
구름도 걷히고
탕수도 머리숙이고
물으로 가는 손님들을 하얗게
실고
첫 나루배도 떠나갔다

그날 아침에도 섬을 다
돌아보고
나무 한그루 상한것 없다고
관리위원장은 만족하여
사무실에 들어섰고
우리도 기쁜 마음에 웃고
떠들었으며
여니 날처럼 가을남새
씨불입을 두고
작업반장 협의회를 시작하였다

그때 도의 한 일군이
우리 섬에 전화를 걸어왔다
조용히 전화를 받던
관리위원장이
자리에서 정중히
일어서는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섬에 대해서 알아보셨단
말입니까!
...예...예 ...
이제 곧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 무슨 전화일가
이름할수 없는 흥분을 안고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이 꼭 메여서인지 이윽도록
말이 없더니
그는 갈린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오늘 새벽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섬에 대해서
물어보셨답니다
이른새벽부터 수령님께서
도내에 홍수 피해는 없는가
전화로 일일이 알아보시다가
버들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몇해전에 배를 타고
버들섬을 지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섬 서쪽 한끝에

물위에 누운 늙은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자라온 나무
같은데
물에 씻겨 뿌리가 좀
드러났기에
그것이 늘 내 마음에 걸려있었
습니다
아마 이번 큰물에 그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았는지 모르겠
습니다
동무들이 꼭 알아보시오
하시며
못내 걱정하셨답니다...》

사랑의 그 말씀을 전해들으며
우리모두의 가슴에는
아버이수령님의 걱정어리신 말
씀이
수천리 공간을 꼭 채우며
상기도 뜨겁게 울리는듯했다

그 순간에야 그런 나무가
이 섬에 있다는것을 알거나 한
뜨거움에 젖은 우리의
눈앞에는
그 버드나무가 뚜렷이 일어서
는것이였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들은듯했
다
폭우와 홍수에 시달리던
늙은 버드나무의 그신음소리를

4

그날 온 마을 어른아이 할것
없이
섬끝에 달려갔더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빌었더라
그 나무가 무사했으면
제발 무사했으면!

천만다행한 일도 있어라
아, 반나마 드러난 뿌리
물결에 하소하는듯
아, 못떨어질 품처럼
간신히 섬을 붙잡고 선
버드나무

크나큰 자책속에 달려가
그러안은 마음
저기 망망한 바다
그 누구의것도 아닌 물속

어디엔가
그것이 떠내려갔더라면
여기에 오랜 세월 생을 두었던
섬의 작은 부분이 영영 흘러가
버렸더라면

마치 그 나무와 함께
가슴속 한귀퉁이가
떨어져나갈듯이
너무도 아프고 쓰린 마음
머리를 숙이고 드러난 뿌리를
더듬는
모두의 생각은 죄책감으로
깊었더라

수백그루나
수천그루나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이름도
버들섬
하기에 무심히 볼수 있고
무심히 지나칠수 있는
그 한그루!

(어떻게 수령님께서 아셨을가
조국땅 머나먼 한끝
작은 섬에 있는 한그루
버드나무를
그처럼 잘 아시고
걱정하셨을가)

로인의 생각도 깊었더라
(섬에서 멀고먼
평양에 계시는 수령님께서
이 섬의 한그루 나무까지
그처럼 잘 아시는데
여기서 태어난 몇십년을
살아오는
나는 왜 모르고있었던 말인가)

누구나 흔히 말하더라
나서자란 고향땅을 자기가 잘
안다고
나도 늘 그렇게 말해왔더라
고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어느 골짜기 어느 구새먹은
나무속엔
어떤 멧새가 살고있는지
그리고 뒤동산 어느 돌밑엔
다람쥐 몇마리가 있다는것까지
다 안다고...

정들고 사랑스러운 그 모든것
산기슭 한그루 허리 굽은
나무를 두고도
많은 사연을 이야기할수 있고
뒤동산의 한줄기 오솔길
마을앞 내물가에 선
너럭바위를 두고도
머칠을 이야기할수 있어라

하거니 고향에서 나선
고향땅에서 머리회여진 그런
사람들이야
한생의 력사가 거기에
어려있거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날 섬사람들은 잘 알았더라
몇해전 배를 타시고
이 섬을 지나가신 수령님께서
걱정어린 안색으로
오래도록 섬기슭을 바라보신
그 사연을
그때 새겨두신 한그루 나무를
해가 몇번 바뀌도록 늘 잊지
않고 계시었음을

그리하여 모두의 마음은
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어쩐지 전설같은 생각이
들었더라
그렇더라 그것은
섬사람들의 가슴에서 태어나기
시작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전설이었더라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으나
아들에게 들려주는 로인의
이야기는
사랑의 전설을 노래하는듯
마디마디 뜨겁게 울리더라

《아버이수령님 가슴에는
그것이
누구보다 귀중하게 안겨있고
피와 땀으로 통해있기에
조국땅 어느 한 구석에서
나무 한그루 없어지고 흙 한줌
흘러가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실수
있었던단다

모두 고향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설사 제 고향을 잘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아직 사랑은
아니란다》

지금도 누구나 그곳에 가면
소박한 진정에 어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섬사람들의 전설을 들을수
있으리

우리 수령님 가슴에는
이 섬도 다 안겨있고
이 섬을 다 잘 아신다고!
우리 수령님 가슴에는
넓으나넓은 조국땅이 다
안겨있고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 흙 한줌
제고장 사람들보다 더 잘
아시고
제고장 사람들보다 더
아끼신다고!

내 조국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보기도 듣기도 많이 했더라
어느 산기슭에 가면
버림받던 사과나무 고목이
수령님 사랑속에 청춘을
되찾고
해마다 향기로운 열매
주렁지우는것을

어느 벌 끝에 가면
시들어가던 몇백년을 산
산뽕나무
그렇게 다시 살아나
젊음을 자랑하는것을...

내 오래동안
그런 나무들앞에 걸음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더라
향토란 무엇인가
조국이란 또 무엇인가고

우리 수령님 한평생을
바치시며
찾아주시고 가꿔주시고
꽃피워주시거니
아버이수령님 가슴속에
귀중히 안겨있고 새겨져있는

그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
그 한줌 한줌의 흙이 모이고
합쳐진것
그것이 다름아닌 내 고향이고
내조국이라고

하기에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 나무 그 흙에
너의 땀, 너의 피가 통하게
사랑하라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사랑하라고

5

한그루 버드나무앞에
로인과 그 아들이 서있다
스무해전 그날 온 마을이
떨쳐나
성토를 하고 바로세운
버드나무아래

푸른 잎, 스적이는 가지,
싱싱한 줄기
해마다 사랑의 년륜을 감으며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듯이
지금은 더 살기 좋은고장으로
변모되었거니

섬을 잘 꾸려줄데 대한
아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
을 받들고
온 도가 달라붙어
섬 둘레에 석축공사도 하고
나무도 더 많이 심고
나루터도 잘 꾸려 섬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

《너 어디에 가든
고향땅에 깃들어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잊지 말거라

초소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흙 한줌
다 우리 수령님께서 잘 아신다
고 생각하고
너 목숨으로 지켜가거라》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하여 이제 래일 새벽이면
그 향토를 안고
향토에 깃든 이야기를 안고
아들은 떠나면 초소로
떠나가리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
이 땅에 저 섬이 있고

그 섬에 대를 이어 후대들이
태어나는 한
이야기는 세월의 길이처럼
계속 되려니

하지만 나에게 묻지 말라
언제 어디서 있는 이야긴가고
달리는 렬차안에서
하루 이를 묵어가는
려관방에서
자주 들을수 있는 제고장
이야기
나도 우연한 기회에
그고장 태생에게서 들었거니

우리 수령님 다녀가신 마을
걸으신 길
돌아보신 산
조국땅우에 헤아릴수 없거니
그 많은 고장들에
이런 이야긴들 얼마나 많으랴

얼마나 많고많은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넓고넓은 이 땅우에
헤일수 없는 그 나무처럼
한줌한줌의 그 흙처럼
천만줄기의 그 시내물처럼
크고작은 그 마을들처럼...

주체의 태양

누구나 할수 없는 법칙의
천만줄기를
손금인양 한손에 모아쥐시고
력사의 수레를 주체의 한길로
이끄시는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한없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시고
그 언제나 지구촌의 운명을
걱정하시며

인류의 먼 미래까지 사랑을
보내시는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생각 하나를 하시여도
인민이 나아갈 진리의 빛을
담으시고
말씀 한마디 하시여도
인류의 리상과 의지의 숨결을
대표합니다

원석파

그렇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대륙과 대양 온 누리를
인류해방의 광명으로 싸안은
주체의 광원입니다 주체의
태양입니다

그 존함은 만민의 마음속에서
빛납니다
그 존함은 영원히 이어져
빛납니다

바다

리명균

1

부관 정기석은 무거운 걸음으로 장군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2층, 청사앞 넓은 광장과 그 저쪽 멀리로 전차길이 바라보이는 방이었다.

장군님께서 무슨 문건을 보고계시는데 정기석이 들어서자 시선을 드시었다.

정기석은 나직이 말씀올리었다.

《혁명자유가죽학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북에 갔던 동무들이 돌아왔는데 최월녀녀성과 진주남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주님이모자를 찾아냈단말이요?》

장군님께서 무슨 무척 반가와하시었다.

《로모저하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로모저하? 그것보오. 심중팔구 로모저하에 있을거라고 했지. 랑일령지구에는 그래도 로모저하에 인가가 있었으니까.》

장군님께서 기쁨을 누르지 못하시며 거듭 되뇌이시었다.

《주님이모자가 왔단말이지요. 용케 살아있었구만. 주님이 이제 열두살 됐겠습니다.》

《12 살이랍니다. 도착한 즉시로 학원에 입학시키고 주님이 어머니도 희망에 따라 후방부직원으로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학원 식당에서...》

《잘했습니다. 일간 학원에 나가보라고 하는데 그때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어데 아십니까?》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주의깊은 시선으로 정기석의 안색을 살피시더니 물으시었다.

《동무가 혹시 그때의 일을 생각하는건 아닙니까?》

《...》

사실 정기석은 주님이모자가 왔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그때의 일, 주님의 아버지 진국송이 두령으로 있던 독립군부대를 찾아갔던 때 일이 생각나 얼굴이 찌뿌려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공동전선을 위해 사업하던 리광동지가 반일부대에게 살해당하던무렵 정기석은 진국송독립군부대에 파견되었었다.

진국송은 구레나룻이 수복한 그때 이미 중년에 이른 메마르고 피박한 사람이었는데 삶과 같이 사나운 눈에 랑소를 띄고 이렇게 뇌였었다.

《내가 이역산야에서 풍찬로숙하는 뜻은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왜귀들과 사생결단하자는것이요 다른 하나는 공산당을 없애자는것이다.》

정기석은 구금되었다. ...

《동무가 그때 벽을 뚫고 탈출했다고 했지?》

장군님께서 정기석의 듩직한 체구와 침울한 빛을 띄고있는 길쭉한 얼굴을 바라보시며 옛일이 회상되시는듯 말씀하시었다.

정기석은 고개를 숙이었다.

...구류장에 앉아서 하루나절을 보낸 정기석은 독립군들이 그를 살려서 돌려보낼 잡도리가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저녁이 되자 수군거리는 이런 말소리기 들려왔기때문이였다.

《저 사람에게도 무얼 좀 먹여야지유?》

《공연한 선심이다.》

《굶긴단말이유?》

《뒤끼 굶으면 될거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음을, 헛된 죽음을 면하자면 탈출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보니 구류장이라는것이 골방인데 흙벽이였다. 주먹으로 치면 구멍이 뚫릴것 같았다. 그렇지만 벽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나면 가까이에 파수가 있으니 안되겠고 해서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파수병에게 마실 물을달라고 청하였다. 물을 한바가지 떠다 주었다. 정기석은 그것을 벽에 쏟아부었다. 뒤시간 지나서 또 물을 청하였다. 파수병은 투덜거렸다.

《유격대는 소금을 닦아먹는가?》

정기석은 대답했다.

《너희들을 찾아오느라고 200리를 걸었다. 땀 흘린 사람이 물을 청하는데 독립군에선 물도 모자라는가?》

경우에 몰린 파수병은 다시 물을 한바가지 떠다 주었다.

《죽기전에 소원대로 마시라.》

《내가 왜 죽는가?》

《우리 비밀군영을 알았으니 살아서는 못나가.》

《그건 두고봐야 알지.》

정기석은 물을 또 벽에 쏟아부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물에 젖은 벽을 가만가만 손으로 후벼냈다. 물먹은 흙벽은 소리없이 구멍이 뚫리었다. ...

장군님께서 간고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시는듯 생각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우리 혁명이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완만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만한 사람들을 대항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고 편협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진국송부대는 그래도 반일전선에 서있었고 끝

까지 반일을 하다가 피멸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합시다. 동무도 그 부대의 최후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기석이기도 목격한바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우후림지구에 갔다올 때였다.

부대를 이끌고 오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랑일령 밑에 이르자 휴식을 명령하시였다. 행군대오는 수림속에 들어가 잠시 휴식하였다.

랑일령산줄기는 골짜기가 아흔아홉이나 된다는 곳으로 험준하기도 하지만 산세가 어긋비슷하여 한번 향방을 잃으면 미궁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려웠다.

장군님께서서는 경위중대장이던 정기석에게 지형을 확인해보라고 이르시였다. .

그런데 이때였다. 그리 멀지 않은곳에서 돌연 기관총소리가 울부짖었다. 보총소리도 콩튀듯하였다. 아츠러운 총소리가 귀가 먹먹해지도록 골안에 메아리쳤다. 대원들은 놀란 시선을 일제히 장군님께로 집중하였다.

《저건 38 식기관총소리요. 왜놈토벌대요!》

장군님께서서는 급히 싸창을 뽑아드셨는데 이때 무기를 가진 10 여명의 사람들이 옆골짜기에서 달려나와 혼비백산 골바닥으로 도주하는것이 보였다. 람투한 군복, 멧산자보파리... 독립군이였다.

《저 사람들을 여기로 부르십니까?》

정기석이 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류하시였다.

《그러지 마오. 뒤에 왜놈들이 달렸을거요. 그놈들을 쳐야 하오. 놈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것을 모르니 우리는 매복사격을 할수 있소.》

1~2 분 후에 말을 탄 왜놈토벌대들이 누렇게 뒤쫓아왔다. 군마를 타고 빨건 데 돌린 둥글모자를 쓴 왜놈기병들은 도주하는 독립군들을 추격하여 맹렬한 기세로 질주해왔는데 말우에 앉은채 기병총을 쏘는놈도 있었다.

장군님께서 사격신호를 울리시였다.

질풍사격... 전투는 10 분도 걸리지 않았고 한 개중대의 왜놈기마대가 시체로 변하였다.

전투를 끝내고 보니 독립군들이 뛰쳐나오던 옆골짜기에서 불길이 치솟고 몽게몽게 연기가 솟아오르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체없이 부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시였다.

반토굴로 된 독립군부대 비밀군영이 불에 타고있었다. 여기저기에 시체가 널리고 누런 탄각지가 수북이 흩어져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대원들에게 명령하시였다.

《수색해보시오.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오.》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47 구의 시체가 있을뿐이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거듭 명

령하시였다.

《더 찾아보시오. 혹시 부상을 당하고 풀숲속에 쓰러져있는 사람이 있을수 있소. 그리고 골바닥으로 도망쳐간 사람들도 찾아보시오.》

유격대원들은 다시 흩어져 주변숲속을 더 넓게 찾아보았다. 하지만 독립군대원들은 없었다. 왜놈기마대의 추격을 받으며 도주하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낮이 빠져 아예 줄행랑을 친듯싶었다. 그러나 병영에서 이윽히 떨어진곳에서 잘 은폐되어있는 조그마한 토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뜻밖에도 그 안에는 웬 녀인이 애기를 안고 쓰러져있었다. 25~26 살 가량 되어보이는 애젊은 녀인인데 총에 맞았거나 칼에 찌힌 흔적은 없었지만 의식을 잃고있었다. 품에 안긴 애기는 돌이 지났을가 한 젖살이 오동보동한 귀여운 사내아이였는데 놀랍게도 그 소동속에서도 쉼쉼근 잠자고있었다. 짐작컨대 녀인은 독립군부대 두령의 부인이고 의식을 잃은것은 아마도 왜놈토벌대의 기습과 칼부림에 너무 놀라 기절한듯싶었다.

유격대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하자 녀인은 소생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항일유격대입니다.》

장군님께서서 녀인을 안심시키시였다.

그러나 녀인은 자꾸만 흠칠흠칠 놀랐고 흐느껴울뿐 말도 제대로 못하였다.

《어느 부대입니까? 대장은 누구입니까?》

장군님께서서 물으시였다.

녀인은 애기를 꼭 그러안은채 흐느껴 울며 외마디로 대답했다.

《진국송...》

《아, 진국송부대?》

장군님께서서는 《아주머니는 진국송대장의 부인입니까?》 하고 물으시려다가 표현을 바꾸시였다.

《이 애는 진국송대장의 아들입니까?》

녀인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잠시후 유격대는 다시 행군하게 되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심산오지에 저 녀인을 혼자 남겨둘수는 없습니다. 동무들이 좀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명의 대원에게 녀인과 애기를 인가가 나질 때까지 데려다주고 오라는 과업을 주시고 부대의 비상미도 떨어져가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식량도 얼마간 꾸려주도록 하시였다. 그 녀인이 바로 최월녀, 애기가 진주남이였다.

이것은 물론 항일무장투쟁의 긴 나날에 수없이 많았던 일화들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이 일을 잊지 않으시고 혁명자유가족학원을 내오시려고 희생된 동지들의 자녀들을 찾아오도록 일군들을 파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랑일령지구의 어느 인가촌에 진주남이라는 아이와 최월녀라는 녀성이 있을수 있으니 찾아서

데려오시오.》

그때 동북에가는 일군들속에는 정기석도 들어 있었는데 그는 장군님의 말씀에 놀라움과 의혹을 금하지 못했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물음이 나오려고 했다. 《진주남이와 최월녀녀성은 진국송의 유가족이 아닙니까? 완고하기로 이름났던 독립군대장의 유가족을 데려와서는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정기석일행은 혁명동지들의 유자녀들을 120 여명 찾아서 데리고 왔지만 주남이모자는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랑일령주변을 여러 날 애써편답했으나 끝내 종적을 찾지 못하였었다.

정기석은 장군님께 보고올리었다.

《랑일령주변에 주남이모자는 없었습니다. 살아 있다면... 혹시 어데 다른곳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두번째로 일군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로모저하에 가보시오. 랑일령 산줄기속에 조선 사람들이 숨어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숨어사는 사람들의 마을이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진주남이와 최월녀를 찾아낸것이였다.

주남이모자가 왔다는 소식을 받고 그리도 반가와하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정기석은 가슴속깊이에 아픈 자책감을, 동북에 갔을때 자기가 주남이모자를 찾기 위해 응분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누를수 없었으나 한편 그이께서 진국송의 유가족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해 저으기 의아함과 그 어떤 섭섭함을 의식하였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한 눈매로 정기석을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그의 내심의 의혹을 짐작하신듯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량세봉가족도 찾아오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량세봉도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리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의 제한성입니다. 그러나 제한성만 생각하고 공적을 보지 않는다면 편협한 립장에 떨어질것입니다. 량세봉이 반일전선에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량세봉과 진국송을 반공인사 량세봉, 반공인사 진국송으로가 아니라 애국가 량세봉, 애국가 진국송으로 기억합시다.》

장군님의 말씀에 정기석은 가슴이 후터워졌으나 독립군비밀군영에서의 밤, 구류장에 갇히워 바가지물로 벽을 적시던 밤에 대한 기억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며 강마른, 그러나 풍채 좋게 구레나룻을 자래운 진국송의 용수없이 굳어져있던 조그마한 삶과 같이 사납게 빛나던 눈길이 잊혀지지 않았다.

일년후 어느날 아침 정기석은 장군님께 통신과 정세자료들을 가져다드리려고 일어서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음과 같은 남조선관계자료가 눈에 띄였기때문이었다.

《진국송선생 담, 자신의 정치적소신은 변함없이 독립, 반공에 있다고... 한국독립운동의 원로이며 반공전선의 맹장으로서 일찌기 백야 김좌진과 쌍벽을 이루었던 선생은 내외기자들에게 연명...》

진국송?! 정기석은 자기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이가 살아있었는가?

혹시 다른 진국송이가 있는가?

몇순간후 진국송이 바로 그 독립군부대 두령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남조선의 한 신문기자가 그를 만난 회견기사도 있었고 사진도 첨부되어있기때문이었다.

사진은 크지 않았지만 변함없이 강마른 얼굴과 위풍을 돋우는 구레나룻, 도고한 시신에는 왕년의 그 피팍한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기사에는 부대를 잃은 진국송이 왜정말년을 태백산 깊은 수림속에 은거해있었다는것과 해방이 된것을 반년이지나서야 알고 산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정기석은 장군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정기석은 서탁우에 정세자료들을 놓으면서 말 씀올리었다.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진국송이 남조선정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의혹어린 시선으로 정기석을 바라보며 반문하시였다.

《진국송?》

장군님께서서는 정세자료를 당기시여 훑어보시더니 활자들을 확인하시듯 같은 대목을 거듭 되읽으시였다.

《이 진국송이라는 사람이 그 독립군부대 두령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여기에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남이의 아버지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진에 잠시 눈길을 주시고나서 생각을 고루시듯 손끝으로 탁상을 다독이시였다. 정기석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 씀올리었다.

《그 늙은이가... 개표리 황모 못된다는 속담을 상기시켜주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말 씀이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생각에 잠겨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정기석은 송구스러운 심정을 다잡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랴.

애국자 진국송으로 기억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그 진국송이 오만하게도 반공을 선언하며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진주남, 최월녀에게 베푸신 장군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처럼, 악의에 넘친 도전처럼 생각되었다.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리고 그것은 북남관계의 불길한 상징과도 같이 정기석에게는 생각되었다. 순란치 않은 북남관계... 남조선문제... 해방과 함께 제기된 이 난문제, 민족영구분렬의 위험을 내포한 이 난문제로하여 장군님께서 얼마나 심려하고계시는지를 그이를 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정기석은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실로 조국땅 남쪽에서는 해방된 이튿날부터 형형색색의 정상배들이 혼잡을 이루고 겨레의 화합이 아니라 반목을, 단결이 아니라 대결을 공공연히 부르짖는자들이 활개를 치고있으며 얼마전부터는 《단독정부》음모까지 꾸미고있다. 갈수록 악화일로를 치닫고있는 남조선정세... 그런데 그 분렬주의자들,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동강내려는자들이 추켜든 기발은 하나같이 반공이었다. 진국송도 나타나자 첫마디가 반공이 아닌가...

정기석은 문득 진주남이와 최월녀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된 혁명선열들의 귀중한 유자녀들을 공부시키는 혁명자유가족학원에 그들을 그대로 둘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애당초 유가족학원에 두지 말았어야 하는것을...

정기석은 탁상우에 놓여있는 사진, 이미 로년기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사나운 기상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진국송의 강마른 얼굴을 적의를 가지고 쏘아보았다. 그것은 랑일령비밀군영에서 정기석을 체포하라고 소리치던 때의 그 삶과 같은 인상 그대로였다. 도저히 《애국자 진국송》으로는 볼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정기석을 돌아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동무가 이제 학원에 나가서 최월녀아주머니에게 남편이 살아있다는것을 알려줘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꼭 꿈같은것입니다.

이 기사와 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이시오. 남편을 찾아갈 때 편의를 보아주겠다고 말하십시오.》

(?!)

정기석이 어리둥절해하는것을 보신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왜 그러니까? 안해와 아들을 보내줘야 하지않겠습니까? 흩어져있던 가족들이 모여살게 해야지요.》

《패썸해서... 진국송이 패썸해서 그러니까.》

정기석은 자기도 모르게 울기가 치밀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허허허... 진국송이 패썸하단말이지요? <황모>가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단말이지요? 그리 쉽게 <황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무가 인왕산 그런 속담도 생겨난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담을 놓고 말한다면 그건 일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개꼬리가 황모로 되는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도 세상엔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런변혁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한시간후 정기석은 차를 타고 혁명자유가족학원에 도착하였다.

맑게 개인 가을날이였다.

키높은 미루나무들이 둘레에 줄지어 선 넓은 운동장에는 마치 장령복처럼 어마어마하게 붉은색 수장을 두르고 건장이 달린 학원복을 입은 원아들이 활기있게 오가고있었다. 어느 학습실에서는 즐거운 노래소리도 들려왔다. 멀지 않은곳에 대동강의 푸른 불빛이 보였다.

그러나 정기석은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수행해야 할 임무가 유쾌하지 않은것이기때문이었다.

차에서 내려 취사원 휴게실앞에 이른 정기석은 문득 열려진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소리를 들었다.

《목달개가 어지러웠구나. 갈아달자. 저고리를 벗어라.》

부드러운 녀인의 목소리.

《내가 달아요.》

애된 소년의 목소리.

《내가 달아주마.》

《목달개는 자기가 달게 되어있는데요 뭐. 침실에 가서 내가 달겠어요.》

《내가 좀 달아보고싶어 그런다.》

《참 어머니두...》

《주남아, 네가 엄마에게 저라. 엄마 마음을 알아줘야지.》

누군가 다른 녀인의 목소리가 끼운다.

주남이가 저고리를 벗는 모양 또 다른 녀인의 목소리가 뒤따른다.

《에그, 실하기도 해라. 저애 옷몸을 좀 보우.

어린게 가슴팍과 팔뚝에 힘살이 막 울근불근하우.》

《기계체조를 해서 그래요. 기계체조를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소년의 목소리.

《기계체조라는게 뭐냐?》

《철봉, 평행봉, 조마...》

《네가 그런걸 다 하니?》

《원아들은 누구나 다 해요.》

정기석은 마당에 서서 담배를 한대 태우기로 하였다. 이제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는 저명량한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무심중 최월녀와 주남이 손을 잡고 38 선을 넘어서 남으로 나가는 광경을 현실인듯 눈앞에 그려보았다.

《아주머니, 저애의 옷을 갈아입혀야겠습니다.

학원복을 입고 남으로 나갈수야 없지요.》

《참 그렇군요. 주남아, 옷을 벗어라.》

주남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벗어라. 할수 없다. 아버지는 그 옷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이겠니. 아버지지.》

《난 이 옷이 좋아요.》

《넌 좀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벗어야 한다.》

주남은 망설인다.

《어서 벗어라! 아버지한테로 가야지!》

주남은 서운한듯 그러나 마침내 어쩔수 없다는 듯 벗는다...

반시간후 정기석은 최월녀와 단 둘이 마주앉았다.

이제는 40 이 가까운 그러나 아직 젊음이 가세지지 않은, 앞치마를 벗어쥐고 단정히 앉아있는 최월녀의 상냥한 얼굴을 마주 바라보기가 피로와 정기석은 시선을 피하면서 찾아온 사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정기석은 너인의 밝은 눈에 의혹이 어리는것과 무엇인가 외마디소리를 지르려는것 같은 기색을 감촉하였으나 말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 하였다.

《...주남이 아버지에게로 갈 때 편의를 보아드리겠습니까.》

정기석은 말을 마쳤다. 그리고 그 순간 짹짹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인의 얼굴이 하얗게 피기를 잃는것을 보았기때문이었다. 다음 순간 너인은 실신한듯 고개를 푹 떨어뜨리더니 꼼짝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

너인은 대답이 없었다. 불현듯 온몸에 강직이 온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어데 편치 않습니까?》

《...》

정기석은 벌떡 일어섰다.

너인은 가는 신음소리로 애원하였다.

《아니... 아니... 가만 뒤주세요... 조금만...》

너인은 몇분동안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흑-》 하고 흐느껴 울며 앞치마로 얼굴을 헹싸는것이였다.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리였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꿈같은 소식이 준 충격때문인가?

정기석은 너인이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너인은 오래도록 진정하지 못하고 흐느

껴 울었다. 쉽게쉽게 흐느껴우는것이였다.

처음엔 울음소리를 삼키며 울던 너인이 얼마후에는 오열을 감추지 않았으며 방바닥을 손으로 허비기까지 하였다. 막 몸부림을 치는것이였다.

기쁨에 겨워하는 모습과는 어텐가 다른듯한, 마치 절통해하는것과도 흡사한 모양에 정기석은 한순간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니지... 12 년전에 죽었던 남편이 살아나지 않았는가!)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10 여분후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든 너인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섭섭합니다.》

《예?!》

《저더러 남으로 나가라는거지요? 어떻게 그럴수가...》

너인의 눈에서는 또다시 짹짹 눈물이 흘렀다.

《별세한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나타났는데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남이도 아버지를 만나봐야 할거고... 주남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겠는데.》

너인은 매찬 표정이 되며 대답하는것이였다.

《해방이 된 다음에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반공을 버릇처럼 외우는 사람을 전 찾아가고싶지 않습니다. 주남이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가 가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누가 말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래도 안해의 말은 좀 다들것입니다.》

《저는... 저는... 진국송의 안해가 아니예요...》

정기석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뭐라구요?!》

최월녀는 명확히 반복하였다.

《저는... 그 사람의 처가 아니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국송독립군대장의 부인이 아니란말입니까?!》

《아니예요...》

정기석은 어리둥절하였다.

《부인이 아니라니?! 그러면... 주남이는 누굽니까? 진국송의 아들이 아닙니까?》

《주남이는 그 사람의 아들이예요.》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주남이는 진국송의 아들인데 아주머니는 부인이 아니라니?》

《저는...》

너인은 말을 하려다가 잊지 못하고 또 앞치마로 얼굴을 헹싸쥐더니 다시 몸을 비틀며 흐느껴우는것이였다. 또다시 오열하였다.

한참후에야 조금 진정되면서 뉘우침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저는... 주남이의 어머니가 아니예요... 젖어머

니예요... 아, 이제 어떻게 장군님앞에...

저는 장군님앞에 죄를 졌어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겼으니... 아, 이제 어떻게 장군님께 용서를 빌까요?》

몸부림치는 녀인의 들먹거리는 어깨를 이윽히 바라보며 정기석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이 무슨 뜻밖의 일이란말인가?!

정기석은 타이르듯 말했다.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은데...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는 사실을 숨겼어요... 아, 이제 어떻게... 어떻게 용서를 빌까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말씀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저는... 농사군의 딸로...》

말을 시작하던 녀인은 다시금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숙이었다.

이런 상태의 녀인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는것은 무리한 일로 여겨졌다. 녀인을 우선 안정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정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그러면... 제가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후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정기석은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녀인은 그를 만류하였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오늘 다 말씀드리겠어요... 이왕 말이 났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죄다 하겠어요. 부끄럽지만... 사연을 장군님께 말씀올려주세요. ...》

이윽고 녀인은 흐느낌을 멈추며 떠듬떠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저는 농사군의 딸로... 시집도 농사군에게 갔어요. 그런데 시집간 다음해에 남편이 왜놈들에게 끌려가 철도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돌에 치여

죽었어요. 시신이 온 날, 그날은 바로 제가 첫애기를 낳은 날인데 저는 졸도했어요... 이웃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틀후에 소생했지만 애기는 이미

죽어있었어요. 혼자 남은 저는 목숨을 끊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느날 밤중에 험하게 생긴 장정들 서너명이 불쑥 집에 들어와 저더러 같이 가자고 했어요. 마적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제가 <어데로도 안간다. 이자리에서 죽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두말없이 이불로 나를 덮쳐서 싸매고는

줄행랑을 쳤어요. 어디로 얼마나 갔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은곳은 동서남북도 알수 없는 심심산중이었어요. 총을 가진 수염이 텁수룩한 사람들이 수십명 초막을 치고있었어요. 저는 났을 잃고 쓰러졌는데 갑자기 고향을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니 뜻밖의 광경이 벌어져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너무성이 나 조그마한 눈이 화등잔같이 되었는데 룡혈포를 뿜아들고 당장 누구를 쏠것처럼 고향

을 지르고있었어요. 그 사람앞에는 네명의 장정이 풀밭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마적단이 되었느냐?!>

룡혈포를 든 사람이 부르짖었어요. 더부룩한 볼수염이 푸들푸들 떨리고있었어요.

<내가 마적대장을 하자고 이 고생을 하는줄 아느냐? 언제부터 우리 부대 군률이 이 지경 됐느냐? 왜 대장에게 알리지두 않구 이런 엄청난것을 저질렀느냐?>

<대장님...>

무릎을 꿇고있던 장정들중 한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대장님... 주남이가 죽는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젖을 먹여야 살리지 않겠습니까?>

<군률이 무너지느니 주남이가 죽는게 옳다!>

<대장님, 저는... 우리가 못할것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부녀를 메여오는게 못할것이 아니란 말이나?>

<유부녀가 아니옵니다. 과부를 메여오는건 민속에도 있는 일로서... 저 녀인은 남편도 아이도 잃고... 젖어머니로서는 맞춤형줄로 압니다.>

<듣기 싫다. 다시 메여가라!>

<...>

<다시 메여가지 않으면 부대의 군률을 위해 결단코 너희들의 목을 칠테다!>

<대장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다시 메여가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더 다른 말은 말라!>

<한 말씀만 더... 다시 메여가긴 메여가되 이왕 메여온것이니 죽어가는 주남이에게 한모금만 젖을 빨려보겠습니다.>

<...>

대장은 그에는 대답을 않고 책 돌아서더니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진국공독립군부대였어요.

독립군대원들이 나를 한 풀막에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피덩어리같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십시오. 아이가 젖을 못먹어 죽게 된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저지른 일입니다.

이 산속 어디에서 젖을 얻겠습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는 대장님의 부인인데 보름전에 죽었습니다. 결혼을 한 반년뒤에 남편이 집을 떠났기때문에 10년동안 빈집을 지키고있다가 풍편에 남편소식을 듣고 지난해 봄 먼 충청도땅에서 이 산속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애를 낳은지 이틀후에 토벌이 들어 피해다니다가 병을 만나 그만 저세상에 갔습니다. ...>

저는 아이에게 젖을 먹였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라는것을 깨달았고 또 죽어가는 애기가 불쌍

했기때문이에요. 피딩어리같은 애기는 눈뜨고 볼 수 없을만큼 처참했어요. 숨도 없는것 같았어요. 처음엔 젖도 빨지 못했어요. 그러나 젖을 짜 입에넣어주니 다행히도 목에 넘기었고 다음엔 입술을 움직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애기는 소생되었고 소생되자 점점 세차게 젖을 빨는데... 그것이 어찌도 기쁘던지... 저로서도 뜻박이었어요. 꼭 죽었던 제 친아들이 되살아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젖을 먹이는 일이 거듭될수록 애기가 사랑스러워지고 제 살붙이처럼 귀중해지는 것이었어요. 전 그 애를 불안고 자꾸 울곤했어요. 까닭모를 울음이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아니예요. 슬픔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한 눈물이었어요. 제 친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간절하고 애달픈 소원이 담긴 눈물... 젖어머니의 정이란 아마 그런것인가봐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뜨겁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고정한 진국송대장은 나를 데려내라고 그후에도 여러번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는것을 대원들이 주남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을수있게 될 때까지만 그대로 두자고 애원하여 그냥있게 되었는데 대장은 한번도 제가 거처하는 토굴에 들어온적이 없었어요. 성미사나운 진국송대장은 제가 밀영지주변에 나다니는것도 엄금했습니다.

<저 녀인이 내 눈에는 물론 병사들의 눈에도 띄우지 못하게 하라!> 하고 갈범처럼 소리치는것을 전 들었어요. 전 진국송대장을 정말로 갈범처럼 무서워했습니.

...이 내막을 숨긴것은... 주남이가 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것을 주남이도 누구도 모르게 하고싶었기때문이에요. 진국송대장은 이미 저세상에 갔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마음을 다잡은듯 최월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맺는것이였다.

《저는 주남이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왜 그렇니까?》

《진국송은 주남이의 아버지이지만 주남이를 키우는데는 아무런 노릇도 못했어요. 주남이를 살리고 사람으로 키워주신것은 장군님이십니다. 장군님이 아니셨다면 주남이도 저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국송은 저에게도 주남이에게도 아무 소용없는 남이예요. 무엇때문에 주남이에게 장군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있는 그 령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국송에게도 여기에 주남이가 있다는것을 알리지 말아야 해요. 그 늙은이가 아들을 데려가자고 어떤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주남이를 빼앗기지 않겠어요. 반동에게 넘겨주지 않겠어요. 젖어머니로서 저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동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날저녁 정기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뇌이시며 피로운 빛을 띄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다시금 뇌이시였다.

《참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녀성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탁상에서 담배를 집어드시였으나 불을 붙이는것은 잊으신듯 그대로 드신채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 최월녀녀성의 반생에는 불행했던 우리 민족의 곡절많은 리면사의 일단이 반영되어있습니다. 험난했던 그 세월에 무슨일인들 없었겠습니까? 참 악몽같은 세월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픔과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진국송의 사람됨을 알게 되는데서오는 기쁨입니다. 최월녀녀성에 대한 진국송의 태도는 그의 강직성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완매성은 잠시 덮어두기로 하고 진국송은 얼마나 강직하고 결곡한 사람입니까.》

그처럼 결곡한 사람과는 그가 비록 반공에 눈이 어두웠다 하더라도 훨씬 따뜻한 심정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할수 있을것입니다.

사실 반공을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간교한 자들, 사기꾼들, 협잡꾼들, 정치적무뢰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정세자료를 보았을 때, 뜻밖에 나타난 진국송이 변함없이 반공을 정치적소신이라고 언명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부대가 피멸되는속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것도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가 결코 비굴한 방법으로 연명을 꾀했을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여기에서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최월녀녀성의 립장은 또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그도 이제는 랑일령밀림속에서 흐느껴 울던 녀인이 아닙니다. 최월녀녀성의 성장이 대견합니다. ...》

정기석도 최월녀녀성의 기구한 반생에 대해 그리고 주남이로 하여 품고있는 불안과 위구에 대해 동정과 련민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가슴속에 아픔을 느끼였다. 하지만 진국송의 출현에 대해서는 불쾌감밖에 감수되지 않았다. 만약 진국송이 주남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면 단호히 막아나설것 같은 심정이였다. 당신에게는 주남이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주남이에 대해서는 최월녀아주머니에게 전적인 권리가 있다, 주남이의 어머니는 최월녀녀성이다, 주남이문제는 최월녀아주머니에게 맡겨야 한다 하고 그를 떠밀어버릴것같은 마음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었다. 그의 안색은 맑았고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려있는 안광에는 오랜 나날 피롭게 모색하시던 해답의 실머리를 찾으신듯한 기쁨이 그윽히 담겨있었다.

3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우익정객들을 포함한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38선을 넘어오고있을 때 정기석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국송이 평양에 오는가를 살펴보았다. 장군님께서 그에게도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셨음을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진국송에게 초청장을 보낼 때 정기석은 의문을 품었다. 그 늙은이가 과연 오겠는가?

《내가 이역산야에서 풍찬로숙하는 뜻은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왜귀들과 사생결단하자는것이요 다른 하나는 공산당을 없애자는것이다.》

살과 같이 사나운 눈에 뿔소를 띄고 뇌이던 진국송의 메마른 얼굴이 보이는것 같았다.

정기석이 의혹을 품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진국송을 초청합니다. 그의 결곡성에 기대를 가집시다. 그가 청령을 지향한다면 민족의 영구분단을 피하는 무리들과 손을 잡지 않을것입니다. 그가 애국에 순결하다면 련석회의를 반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발밑에 모여앉자는것이 련석회의의 취지가 아닙니까.》

동무는 그의 완매성을 잊지 못해하는것 같은데 진국송의 경우 그것은 결곡성의 이지러진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리해가 가져온... 물리해는 깨우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련석회의의 날이 왔다.

그러나 회의가 개최된 날에도 진국송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이 늦어서야 그는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의 거동은 매우 초연하였다.

하얀 명주두루마기에 파나마모를 쓴 차림이었다.

진국송을 맞이하는 인원들속에 정기석도 있었는데 진국송은 그를 알아보는것 같지 않았다. 오랜세월이지났으니 알아보기도 어렵겠지만 도대체 진국송은 사람들을 주의깊이 살펴보는 성미가 아닌듯하였다.

자존심 높고 성미가 매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진국송은 영접나온 인원들의 얼굴을 눈주어보지 않았으며 무엇인가 자기 생각에 골몰한 사람의 눈초리로 평양의 역두풍경을 일별하고는 안내하는대로 자동차에 오르는것이였다.

다음날 저녁 장군님께서서는 정기석을 부르시여 최월녀녀성에게 진국송이 평양에 왔다는것을 알

려주라고 이르지였다.

정기석은 그길로 학원에 나가 최월녀녀성을 만났다.

《아주머니, 진국송선생이 평양에 왔습니다.》

《뭘라고요?!》

최월녀는 깜짝 놀라며 낯색이 변하였다.

《아주머니도 아시겠지만 지금 모란봉극장에서 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 회의에는 김구, 김규식을 비롯해서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이름있는 정객들이 참가했습니다. 리승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참가했습니다. 진국송선생도 참가했습니다.》

《그 령감이 사상이 달라졌나요?!》

《사상이 달라졌다고까지 말할수는 없지만...》

정기석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말을 더듬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사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북조선에 왔나요?》

《장군님께서서는 정견이 다르더라도 리승만의 단독선거로 나라가 분열되는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 통일방책을 의논하자고 부르셨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자로 되었거나 북조선의 민주건설을 지지해서 온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어디 한번 가서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출발하는 마지막시각까지 동요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진국송선생은 회의에 이를이나 늦어서 왔습니다.》

정기석은 주남이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월녀는 그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는것을 짐작하는 기색이있다.

《어떻든 진국송이 평양에 왔으니... 주남이를 데리고 가서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월녀는 오래동안 고개를 숙이고 대답이 없었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그의 피로움은 저고리웃고름을 움뻐다가는 풀고 움뻐다가는 다시 푸는 그의 가늘게 떨리는 하얀 손가락에서도 표현되고있었다. 입술은 마치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동통을 참아내고있는 사람처럼 꼭 옥물려있었다. 마침내 마음을 다잡은듯 고개를 든 최월녀는 이슬이 가랑가랑 맺힌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저는... 그 령감을 절대로 만나지 않겠어요. 주남이도 만나게 하지 않겠어요. 저를 무정한 여자라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령감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 령감이, 저같은것이야 사람으로 치부하지도 않겠지만 주남이는 데려가자고 할수 있어요. 저는 주남이를 잃을수 없습니다. 그애를 잃으면... 전 견디지 못해요. 절 리해해주세요...》

최월녀의 실주름이 그어지기 시작한, 그러나 아직도 눈매고운 맑은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줄

지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정기석은 더 말을 못하고 입을 봉했다. 그는 최월녀녀성에 대한 편민과 찢어진 동정을 폐부에 의식하였다. 그의 애달픈 처지, 그의 쓰라린 심정에 공감되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사실 최월녀녀성에게서 주남은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날이 닥쳐왔다.

련석회의가 끝난 후 어느 날 남조선 정객들이 혁명자유가족학원을 참관하러 나온 것이었다.

이날 정기석은 손님들과 동행하였다.

자동차들이 학원 정문앞에 멈춰서고 운동장이 떠나갈 듯 박수소리가 터져 오르는 속에 차에서 내린 손님들과 진국송이 원아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기석은 다시금 주남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까지 온 진국송에게 주남이를 만나게 하지 않는다면 인사불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된다. 그럴 수는 없다. 최월녀아주머니를 설복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말로 설복하겠는가?

《그 애를 잃으면... 전 견디지 못해요. 절 이해해주세요. ...》 몸부림치던 최월녀의 우는 얼굴이 떠올라 정기석은 다시금 가슴속에 에이는 듯한 아픔과 어쩔 수 없는 동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주남이를 만나게 한다는 것은 최월녀의 품에서 그 애를 빼앗아 진국송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최월녀는 주남이 없이 혼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남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애의 운명에 그것이 과연 유익한 일이겠는가? 정기석은 사람들의 미래가 좌우되는 운명적인 갈림길을 눈앞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끝없는 동요와 번뇌를 거듭하면서 정기석은 손님들의 곁에 서서 걸었다.

남조선 정객들은 원아들의 박수소리에 에워싸여 학원을 참관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과 거동은 각이했다.

틀스럽게 걷는 사람, 의젓이 뒤짐을 지고 유유히 걷는 사람, 감격에 겨워 원아들을 와락 부둥켜안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처음에 손님들은 원아들의 학습실로 안내되었고 다음엔 도서관과 강당으로 안내되었다. 손님들은 주의깊은 시선으로 학원의 설비들을 빠짐없이 참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락실에도 들어가보고 식당에도 들어가보았다.

정기석은 될수록 진국송의 곁에 서서 걸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을 가지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주남이나 최월녀아주머니에 대해 상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생겼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면서 학원의 연혁도 설명하며 가끔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진국송은 피이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무슨 노여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입을 꼭 봉하고 있었는데 마치도 적대국에 온 외교사절과도 같이 극력 삼가고 조심하면서도 오만함을 감추지 못하는 태도였다.

그는 정기석의 말에 잘 응대도 하지 않았고 될수록 정기석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 정기석은 그의 이런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정기석은 그가 자기를 경원하고 꺼려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한번은 무심중 가까이 다가섰을 때 진국송이 부르르 몸을 떠는 것을 그는 감촉하였다. 정기석은 의아했고 그 까닭을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보았다. 혹시 이 늙은이가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나를 알아본 것이인가?

사실 진국송은 그를 알아본 것이었다. 그를 알아본 것은 그가 학원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

《학원을 세울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유자녀들을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혁명가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난 날 모두 숨어살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니 한 아이를 찾기 위해 실로 천리길을 몇 행보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동북에 파견된 동무들은 랑일령에까지 가서 찾았습니다.》

랑일령이라는 단어는 진국송을 펄쩍 놀라게 했고 랑일령까지 아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의문을 품고 바라보게 하였으며 마침내 오랜 망각속에 사라졌던 불쾌한 사건, 유격대 파견원의 탈출 사건을 상기하게 하였다.

정기석을 거듭 주의깊이 살펴보면 그는 자기에게 체포되어 처형을 기다리던 사람이 곁에 서있음을 전율을 느끼면서 깨달았다.

이 사람이 아닌가?! 통일전선제안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 처형 몇 시간 전에 종적을 감춘 사람?! 나는 그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랭혹한 태도를 취했던가!

그는 외나무다리에서 오랜 적수를 만난 듯한 느낌이였다. 아니, 외나무다리가 아니었다. 외나무다리라면 서로 동등한 조건이지만 여기는 북조선이 아닌가. 이 사람은 나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고 나는 그 처리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 15년 전, 이 사람이 나의 군영에 들어왔을 때와 꼭 정반대되는 상태...

자기가 북에 온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행위였음을 그는 혀를 깨물면서 뉘우쳤다. 애당초 북행길은 잘못이었구나! 오지 말았어야 할 길이었구나!

아무리 과거지사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잊혀질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이야말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 사람은 내 명령으로 죽게 되어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유별스레 나에게 접근했구나.

북조선에 와서 보고 들은 모든것이 그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음을 그도 부인할수 없었다.

그러나 정기석이 누구인가를 알아본 순간 그는 자기는 결코 공산주의자들과는 나란히 설수 없는 운명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의 체험에 의하면 피는 피로써밖에 씻어질수 없는것이였다.

정기석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설 때마다 그는 오한을 느꼈고 심장에 마비가 오는것 같은 충격을 의식하였다.

그의 내심의 이러한 전율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수 없었다. 워낙 강직한 성미인 그는 거짓표정을 꾸밀줄 몰랐고 그가 할수 있는 최상의것은 침묵을 지키는것뿐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침묵하였다.

손님들은 여러 시간에 걸쳐 학원을 참관하고있었다. 가장 무표정하던 손님들의 얼굴에도 감동의 빛이 나타났다.

하지만 진국송만은 변함없이 침울하고 냉담한 얼굴로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정기석은 이러한 진국송의 피이한 표정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의 이렇듯 표표한태도가 지속되자 참을수 없는 격분을 안고 저런 늙은이에게 주남이와 최월녀를 만나게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저런 늙은이로 해서 최월녀녀성에게 고통을 줄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만사람에게 경탄을 주는 학원을 참관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는 유일한 사람... 아니다. 저런 늙은이로 해서 최월녀가 불행을 당할 필요는 없다.

정기석은 최월녀를 만나면 《아주머니가 진국송의 사람됨을 옳게 봤습니다. 신념대로 행동하십시오.》 하고 말해주리라 걱정하였다.

그런데 손님들이 마지막으로 원아들의 침실을 돌아보고 나올 때였다.

연한 물색의 조선옷을 단정히 입은 한 녀인이 손님들의 행렬뒤에 서있는 정기석을 향해 조심히 걸어오고있는것이 보였다. 최월녀였다.

최월녀의 가름한 얼굴은 약간 창백해진듯하였다.

최월녀는 정기석의 곁에 오자 나직이 그러나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어조로 속삭이는것이였다.

《아무래도 제가 저 령감을 좀 만나봐야겠어요.》

최월녀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예?!》

《저 령감의 태도를 보세요. 전 저 령감이 식당을 지날 때부터 유심히 살폈는데 참을수가 없어요. 눈빛이 얼마나 팽팽한가 보세요.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라고... 감히 저런 눈으로... 여기에서 주남이가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야 저 령감이 정신이 들겠어요...》

최월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샘솟아오르는것을 정기석은 보았다.

정기석은 어안이 빙빙해졌다.

《그러면... 그러면... 주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기석은 부지중 이런 물음이 나오려는것을 꺾눌렀다.

그의 의문을 리해한듯 최월녀는 입술을 꼭 옥물더니 말했다.

《주남이는... 잃어도... 그 애를 잃더라도... 그 애를 잃더라도 장군님의 은혜가 어떤것인지, 장군님의 사랑이 어떤것인지, 장군님께서 꾀시는 정사가 어떤것인지, 장군님께서 세우신 이 학원이 어떤학원인지를... 저 피박한 령감에게 똑똑히 알려줘야겠어요. ... 남조선정객들이 똑똑히 알게 해야겠어요. ...》

충격이 너무도 커서 정기석은 숨을 멈추었다. 그는 무엇이라고 최월녀에게 할말을 찾지 못했다.

《...》

최월녀는 눈물어린 눈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지금까지 전 어리석게도... 저 하나 생각만을 해왔어요. ...》

최월녀는 다시금 눈물속에 미소를 지어보였는데 그것은 모든것을 깨닫고 결심한 사람의 혼연한 태도였다.

정기석이 미처 어떻게 할 사이없이 최월녀는 진국송에게로 걸어갔다.

누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춘 진국송은 가까이에 웬 녀인이 서있는것을 보자 의아한 기색을 띠었다.

그곳은 원아들의 침실이 있는 청사에서 도서관 쪽으로 나오는 한적한 굽인돌이였다.

손님들의 행렬이 좀 멀어지자 최월녀는 침착하게 인사하였다.

《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진국송은 의문어린 시선을 그에게 보냈다.

《뉘신지?》

진국송은 조그마한 눈에 의혹을 띄고 뜻하지 않게 나타난 낯모를 녀인을 바라보았다.

산뜻한 조선옷차림의, 아직 젊음이 가셔지지 않은 단아한 용모의 중년녀인에게서 진국송은 누데기이불에 말리워 독립군비밀군영에 랍치되어왔던 최월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제가... 주남이 젓어머니예요.》

《뭐라고?!》

진국송은 몸서리를 치는것처럼 놀랐다. 그의 조그마한 눈이 희게 뒤집히는것 같았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최월녀입니다. ...》

《최월녀?! 어떻게 그럴수가? ...》

뚫어지게 쏘아보던 진국송은 한참후 그가 누구이라는것을 확인한듯 경풍이 인 사람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떻게 살아있소?! 이게 꿈이 아닌지 모르겠군. 정말 최월녀가 옳은가?》

《저편아니라 주남이도 살아있습니다. 주남이는 바로 이 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남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아까 정문에서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드린 녀학생결에 바로 주남이가 서있었어요.》

《주남이가?! 무슨 꿈같은 소리를 하오? 어떻게 그런 꿈같은 일이 있을수 있는가?》

《그때... 왜놈토벌이 들었을 때... 주남이와 저는 김일성장군님 유격대에 의해 천행으로 구원되었고 해방후에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파견원을 따라 평양에 와서 주남이는 여기 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 학생이 되었고 저는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게 참소리요?! 그, 그런 사연을 왜 여적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소?!》

《...》

《왜 알리지 않았는가? 하긴... 내가 서울에 있다는걸 몰랐겠군. 내가 죽었으리라 여겼겠지. 나는 그때, 토벌이 드는날 아침 미심스런 생각이 들어... 새 밀영지를 잡자고 랑일령막치기에 들어갔었소. 그래서 살았지. ...》

《선생님이 서울에 계신다는것을 저는 알고있었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서는 진국송선생이 서울에 있으니 주남이를 데리고 가서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지 않았소?》

《...》

《왜 오지 않았는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주남이를 어떻게...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뭐라고?》

《주남이를 데리고 선생님에게로 갔다가는 여기에 다시 돌아올것 같지 못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

《여기에 다시 돌아온다는건? 이 학원에 다시 온단말이요?》

《그렇지요. 학원에 다시 와야지요. 주남이가 이 학원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주남이를 이 학원에 낳자고... 랑일령밀림속에서 해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찾자고 얼마나... 얼마나 애를 쓰셨기에... 어찌 주남이가 이 학원을 그만둘수 있겠습니까. 오늘 선생님과 동행한 저 정기석동지도 주남이를 찾자고 랑일령주변을 여러날 헤맸습니다.》

진국송은 몸을 부르르 떨었을뿐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혁명자유가족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장차 나라를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남이가 이 학원을 그만두고 남에 나가면 어떻게 기둥감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어떻게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겠습니까?》

《...》

진국송은 대꾸를 못하였다. 입이 얼어붙은듯하였다. 입뿐아니라 눈도 얼어붙은듯 얼음조각처럼 뿌옇게 흐려져있었다.

한동안 고목처럼 굳어져있던 그는 문득 의혹이 떠오른듯 떠듬떠듬 물었다.

《주남이가 어떻게...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 학원에 다닐수 있단말이요? 이 학원은 혁명자유가족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장군님께서 주남이를... 애국자 진국송선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 저 정기석동지가 그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진국송은 다시금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오한이 나는 사람처럼 낮이 파랗게 질리며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강마른 얼굴에 이슬같은 차거운 땀방울이 후줄근히 내뿜는것을 최월녀는 보았다.

최월녀는 진국송을 똑바로 주시하였다.

그 시선에는 원망과 함께 질책하는듯한, 타이르는듯한 간절한 빛이 어려있었다. 마치도 몸을 병을 앓고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모모처럼 애정과 함께 절망이 어린, 그리고 오랜 세월 불치의 병에 지지리 시달리며 고생하다가 끝내 죽게 된 환자를 굶어보는 간병원의 런던과 측은함과 애달픔이 어린...

《가서 주남이를 데려올가요?》

최월녀가 나직이 물었다.

《...》

《잠간 기다리세요. 주남이를 데려오겠어요.》

《고맙소. ... 아니, 그만두오!》

《왜 그러세요?!》

《그, 그만두오. ...》

진국송은 뉘나간 사람처럼 허둥거렸다.

《인차 데려올수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러지 마오. ... 만나지 않겠소. ...》

진국송은 가슴에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허리를 구부리며 신음하였다.

《만나지 않으시다니요?!》

진국송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후에... 후에 만나겠소. ... 그 애야 살아있으니 아무때건 만날수 있지. ...》

다음날 아침 편석회의에 참가했던 남쪽대표들

이 지방참관을 나가기 위해 자동차에 오를 때였다.

진국송이 안내원을 찾아와 조용히 부탁하였다.

《나를… 장군님께 안내해주시오.》

안내원은 의아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방참관은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참관을 안해도 다 알수 있소. 안봐도 다 아요. 백가지를 봐야 백가지를 알겠소? 한가지를 봐도 백가지를 알수 있는거요. …》

진국송은 장군님께 안내되었다.

장군님께서 집무실에서 반가이 그를 맞아주시었다.

장군님앞에 선 진국송은 파나마그를 벗어 가슴에 안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배은망덕한 이 늙은이를 부디 용서해주시어. 이 늙은것이 눈이 어둡고 마음이 웅렬해… 밝은것을 밝게 보지 못하고 쓴것을 쓴게 보지 못하여 불민한것을 허다히 저질렀소이다. …》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그를 이끌어 쏘파에 앉히시고 나서 따뜻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두만강연안에 있을 때부터 선생의 선생을 익히 들었고 손을 잡고 함께 싸워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진선생을 이렇게 후련한 심정으로 만나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선생의 애국충정을 믿었고 결국한 성품을 믿었기때문입니다. 애국하자는 마음이 같고 애족하자는 립장이같은데 왜 길이 다르겠습니까? 언제든지 같이 한꿍으로 모일것은 정한 리치입니다. 이번 련석회의가 그 리치를 웅변으로 증명해주었습니다. 우익이요, 좌익이요, 중간이요 하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민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로 정견의 차이를 보기전에 먼저 서로의 애국심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애국을 하고 애족을 하자는 순결한 립장, 이 공통점을 원점으로 한다면 능히 민족대단합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주었습니다. …》

장군님의 말씀에 넘치는 신뢰와 사랑의 감정, 대해같은 도량과 관용의 정에 눈곱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올라 진국송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을 꼭 감았다.

아아, 지난날 얼마나 쓰거운 배신과 기만과 간계를 체험했으며 얼마나 눈물겨운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것이라. 그리하여 가슴에는 의혹과 불신이 녹지 않는 얼음처럼 웅어리졌고 그 멍든 마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세상만물을 대해왔던것이다.

이제 그 멍어리는 봄눈처럼 사라졌다. 장군님의 사랑과 관용과 믿음의 해발아래…

장군님께서 다정한 눈매로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덮이고 훌쩍하게 여윈 어깨를 구부리고 앉아있는, 오랜 세월의 눈비에 허울이 씻기우고 마음이 구새먹은듯한 늙은이의 측은한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위로하듯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번에 남으로 나가실 때 주남이와 주남이 어머니도 데리고 가십시오.》

진국송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씀드리었다.

《아니올시다. … 아니올시다. …아들이 남쪽에있 다해도 혁명자유가족학원에 데려다 넣는것이 소원이겠는데 장군님 은덕으로 분에 넘치게도 이미 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이를 어찌 데려가겠소이까. 그리고…

장군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저도 남으로 나가지 않겠소이다. …

저의 지금의 정직한 심정은 바다에 들어선 마음이오이다. 계곡을 흐르고 바위서덜에 부대끼며 모래볼에 슴배이면서 고달프게 흐르고 또 흘러서 마침내 바다에 들어선 한가닥 물줄기의 심정이오이다. 바다에 들어섰는데 이제 어디로 흘러나가겠소이까? 바다에는 오직 넓이와 깊이가 있을 따름 오른쪽도 왼쪽도 없는줄 아웁니다. 저는 이 넓으나 넓은 바다에 안겨 하나의 물방울로 살아가겠소이다. 그 바다인즉 장군님의 품이로소이다. …》

이때 문밖에서는 최월녀와 주남이 부둥켜안고 울며 서있었다.

장군님께서 진국송이 아직 아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는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최월녀아주머리를 잘 타일러 주남을 데려오도록 하라고 정기석에게 이르셨는데 정기석은 주남이와 최월녀가 도착했음을 알리려고 집무실문을 살며시 열다가 진국송이 장군님께 말씀드리는 목소리가 들리어 손을 멈추었다.

그리하여 장군님께 올리는 진국송의 말을 최월녀도 주남이도 정기석도 들은것이였다.

(바다…)

정기석은 마음속으로 뇌었다.

(그렇다. 바다와 같은 품이다. 온 민족을 하나로 그러안으시는 품… 반공전선의 맹장이라던 사람도 마침내 그 품에 안기지 않았는가. … 들란을 흐르던 물줄기도 낭떠러지에 덩굴던 물줄기도 땅속을 헤매던 물줄기도 바다에 안기면 하나의 큰숨결로 숨쉬듯… 그 품속에서 민족의 대단함은 기어이 이루어질것이다. …)

잊을수 없는 영광의 그날

조령출

사람들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라

내 한생에
가장 큰 행복과 영광
받아안던 그날을

모임을 추억은 많아도
내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
그날을

신록의 청신한 바람
강가에 설레던 그날이여

우리의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그이를
삼가 모신 그날이여

얼마나 기다린
그 시각이었던가

조국강산에 락원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락원의 노래》를 또
안겨주시려
몸소 창조현장에 나오신 그이

위대한 창조의 스승을 모신 그
영광
어찌 짧은 말로써 형언할수
있으리요

우리의 인사를 따뜻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도 뜨겁게
잡아주시고
우리를 한자리에 앉도록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은정만도
비길데 없는 영광인데

자애로운 눈길을 드시여
머리에 흰서리 내린 저를
부르시여라
인자하신 미소로 정겨우신
음성으로

그이 앉으신 바로 옆자리로
친히 손을 들어 부르시여라
-어서 이리 오시오

아아 꿈이면 이런 꿈이
있으리요
너무나 황강하고 귀중한 자리
내 무슨 충성의 공이 있어
그자리에, 감히 나아가리요

허나 천금같은 이 시각
더는 머뭇거릴수 없어
외람되이 발길을 옮겨
불러주신 그자리에 앉았노라

그 영광의 자리에서
력사에 큰 자욱으로 아로새긴
그이의 가르치심을 또한
받았노라

그것은 바로 주체의 진리
노래 하나를 지도하시여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숭고한 리념

참으로 그이는
우리 인민모두를
창조의 주인, 기적의 영원한
자리에 앉혀주신분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의 진리를 더욱 밝히시여
수천수만년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이 행복
이 영광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그이

참으로 그이는
우리 인류가 천만년
우려러모실
은정의 해발이시여라
진리의 향도성이시여라

아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듯 위대하신이의 뜨거운
은정
내 그날 그리도 가까이

받아안을 줄이야

행복에 목메이는 그 순간
나의 머리에는
지난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라
한많은 세상을
소원만을 남기고 떠나신
어머니
아들의 이 행복 보신다면
얼마나 감격의 눈물
흘리시리요

나라없던 슬픈 시절에
눈물의 자장가 불러주신
어머니

이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
이는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소원

하나 어머니의 이 모든 소원도
우리의 친애하는 그이께서
풀어주셨나니

좋은 세상도 인간의 봄도
더 활짝 꽃피워주시며
꽃방석보다도 천백배 고귀한
은정의 자리에 앉혀주셨나니

아 어머니 어머니
이제는 한을 푸시라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라
이제는 복받은 이 아들을
축복하시라

하나 축복에 앞서
은정의 품에 안아 값높은 삶을
주시는
친애하는 우리의 **김정일**동지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라
이 아들과 함께 큰절을
드리시라

세월이 흐를수록
잊을수 없는 그날이여
충성의 마음들은 그이를
받들어

억만년 노래하리라
가장 순결한 마음
티없이 맑은 충성의 마음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그날을 회상하리오
내 오직 충성의 그 마음으로
그날을 지켜 살리라
충효의 마음속에

내 그이를 가장 친근히 모시고
내 목숨으로 그이의 위업을
지켜가리라

운명의 품

동기춘

내 인생에도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보내는 하루하루에
생각도 깊어지는 나이,
설레는 아침에, 고즈넉한
저녁에
아니 잠들은 꿈결에도
때없이 갈마드는 생각이
있어라

매양 시작도 끝도
애오라지 거기로만 가닿는
그것이 있어
이 순간도 누를길 없는 마음을
나를 사로잡는 그앞에 세우면

어제런듯 선명한 먼날의 추억
못잊어라 당이여, 그대앞에
슛스러이 서서
첫 아뢰임을 드리던 그때가
그날처럼 그대를 우러르면
지금도 가슴은 하냥
끝없는 경모로 가득차누나

어찌하여 그대는 그리도
쉽사리
내 심장 틀어잡았던가
거기 무엇이 있어
내 운명을 스스럼없이
말렸던가

그대가 아니었더냐, 나에게
하늘을 준것이
누리를 불길인양 휘덮으며
장엄한 주체의 노을을
머리위에 성스러이 비껴주던
새벽
내 한생 이고살 그 하늘을
보았고

그대였더라 나에게 땅을
준것도
이름없는 두메의 한끝까지
이슬내린 들에 찍어간 자욱
강냉이포기조차 헤아려 세이며
그대의 부드러운 손길이
발이랑을 스치던 날
내 한생 딛고살 그땅도
보았어라

해 잘드는 산원의 창가
시름없는 안해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대 준 행복이 무엇인지를
읽을때
가로수 푸른 길에 아이들을
내세우며
소리없이 감싸는 그대의
미소를 안을 때
문득문득 가슴에 그들먹하던
더운것

당이여, 진정 그품
거기 무엇이 있어
이 세상 한끝에 놓였던 삶이
죽음도 넘어서 돌아와
안겼더냐

기쁨드린 이름이 아니라
심려끼친 이름을 놓고도
내린들 탓할수 없는 그 운명이
더 아파서 더 아파서
속이 젖어 안아준 아버지

오 당이여 참으로 그대는
이 땅에 일으킨 창조의 신비와
안해의 그늘없는 눈빛만으로
나의 심장 틀어잡은것
아니여라

도도한 시대의 격류를
향도하는
그 거창한 불멸의 사업속에
한날 내 운명도 귀중히 놓아준
위대하고 뜨거운 품이여

그러하다 당은
내 안겨사는 하늘이고 땅
숨쉬는 싱그러운 바람도
거기있고
밝은 해 밝은 별
내 사랑하는 들꽃도 거기 있는
삶의 은혜로운 세계

그대는 아득히 빛발치며
붉은 기발의 날개로 일어서는
영원한 세기 그 영광
천만 목숨이 안겨살며
조국이라 부르는 그의 운명도
거기 있는
한없이 크고 거룩한 품

당이여, 오 당이여
내 이제 더 무슨 바람있으랴만
바라노니 다만 하나
그대 살아가는 력사의 탑인
주체위업완성에 이 한몸
바쳐진다면
하나의 조약돌이 된대도
기쁨일것을

아아, 이것이
보답없는 생은
살아있는것도 피롭고
죽는것마저도 죄스러울
운명의 품 조선로동당이다

기존벽화리론의 종말

진리란 밝혀지고보면 명백한것이다.

하지만 낡은 관념과 낡은 틀, 낡은 관습에 의하여 파묻히고 눌러워있을 때 그것은 좀처럼 자기모습을 나타낼수 없다.

벽화에 대한 리론이 그러한 례의 하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벽화창작부문에서는 중세 기적벽화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에 의하면 벽화는 어디까지나 건축물에 복종되어야 하는만큼 색깔이 진하고 화려하면 건축물의 미가 파괴된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벽화라면 의례히 뿌옇고 흐리게 그려지며 유구한 세월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적이 없었다.

벽화에 대한 이 완고하고 그릇된 리론을 일거에 짓부셔버리고 참된 벽화리론을 창시하신분은 바로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미술가들의 작업장을 찾으니여 창작중에 있는 벽화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의 재능이 무엇때문인지 기를 펴지 못하고 주접이 들고있음을 간파하시였다.

그들이 만드는 작품들은 모두 퇴색되고 먼지가 오른것처럼 흐리터분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못내 의아해하시며 찬란한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벽화작품을 어떻게밖에 만들수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머뭇거리던 미술가들은 이른바 벽화리론과 세계적관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림이 살아나면 건축물의 미가 죽는다고 말씀올리였다.

사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대극장에도 이처럼 뿌옇고 흐린 벽화를 만들어놓았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며 미술가들에게 왜 그림이 건물에 복종돼야 하는가고 하시면서 그림이 건물에 가리워 살아나지 않게 할바에야 무엇때문에 벽화를 그리겠는가고 하시였다. 미술가들은 말문이 막히였다.

너무도 명철한 물으심이였기때문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벽화리론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설명해보라고 거듭 물으시였다.

그러나 벽화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던 미술가

도 그리고 그자리에 있던 《권위있는》 오랜 미술가도 서로 얼굴만 쳐다볼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남들의 잘못된 리론이 우리 미술가들의 창조력을 마비시키고 두손을 얹어 매놓았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벽화의 색깔은 화려하고 선명해야 오히려 건축의미를 돌굴수 있다고 하시였다.

말씀을 듣고보니 불을 보듯이 명백한 진리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했던가? 안개에 덮인듯한 벽화들만을 수많은 그려온 미술가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문하면서 교조주의란 참으로 악착한 질병임을 뼈아픈 자책속에서 새삼스레 깨달았다.

세계미술사는 수천년 세월을 내려오면서 거꾸로된 벽화리론을 절대적인것으로 고집하고있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견하신 새로운 진리앞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말았다.

밝혀진 진리는 너무도 명철하고 그 무엇으로써도 론박할수 없기때문이였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식 벽화의 화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벽화는 건축예술의 한 구성부분이지만 자기의 특성과 독자성을 가진 미술작품의 한종류이라고 하시면서 벽화는 조선화의 기법대로 간결하고 힘있게 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예술이 그러한바와 같이 벽화도 사회주의적내용을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민족적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주체적창작원칙을 밝히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벽화미술론을 지침으로 우리 화가들은 평양대극장의 뿌옇고 흐린 종전의 벽화도 화려하고 선명한 벽화로 바꾸였고 평양지하철도역들과 인민문화궁전, 2.8 문화회관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에 조선화기법에 기초한 훌륭한 벽화들을 창조하였다.

생의 궤도

김영길

1

시발역을 떠난 열차는 부전령의 험준한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달리고있었다.

사흘전부터 구질거리던 비는 오늘 새벽부터 발이 점점 굽어지더니 지금은 아주 소랭이로 퍼붓는 것처럼 기승스럽게 내린다.

줄대같은 비발은 달리는 열차의 차창을 마구 후려쳐 코끝을 스칠듯 지나가는 전주들마저 물속에서처럼 흐리마리하여 가려볼수 없게 하였다.

밖에서는 그렇게 비가 억수로 퍼부었으나 사람들은 제 나름의 즐거움에 잠겨 열차에서 새로 사 온 이들과 이야기보따리를 풀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승무원실에 혼자 오도카니 앉아 차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열차원 정옥의 마음은 비 내리는 바깥하늘처럼 흐려있었다.

정옥은 마음이 내켜서 열차원이 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때문에 마음에 없는 일을 시작한지도 이제는 달포... 그 기간 정옥은 겉으로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언제면 이 딸의 소원을 성취시켜줄 것인가 하는 막연한 기대속에서 살았다.

정옥의 아버지 김창국은 현재 ○○철도관리국 국장이다. 김창국은 지난 전쟁때 미국놈들의 폭격에 끊어진 동해선의 어느 철교를 복구하다가 입은 부상이 도져서 요즘 료양생활을 하고있었다.

정옥은 속상한 나머지 어제 휴식일을 리용하여 병문안도 할겸 기회를 엿보아 직업문제를 비쳐보려고 아버지를 찾아 료양소로 갔었다.

한데 예상외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것을 보고 놀란 그는 오히려 근심만 한가슴 안고 돌아왔다. 그래 지금도 역시 아버지의 신병에 대한 걱정과 시원히 토하지 못한 감정을 함께 안은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외동딸이라고 어렸을 때에는 먼곳으로 출장 갈때조차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성장하는데 따라 차츰 태도를 바꾸면서 딸에 대한 무관심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옥이 아버지의 그러한 변화를 처음 알게 된것은 고등중학교 졸업반에 갓 올라간 열여섯살때였다.

그때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원들이 대학생모집 예비심사차로 현지에 내려왔는데 시학생소년회관 예술소조원인 정옥이도 심사대상으로 점찍혔다. 이렇다할 재능의 싹까지는 몰라도 그만하면 인물맵시도 갖추고 유치원시절부터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오는 정옥이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과연 합격될수 있겠는지? ... 신심보다

불안이 더 큰 정옥은 아버지의 도움에 큰 기대를 걸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연극영화대학 학생이 되는걸 바라시지요?》

《암 바라구말구.》

그것은 예비심사를 하루 앞둔날 저녁이었다.

《그렇다면 심사원선생님들을 한번 만나줘요.》

《그건 왜?》

《그야 뭐 아버지의 말씀이 제가 심사받는것보다 더 힘있으니까 그러지요 뭐.》

《허허허...》 아버지는 한바탕 웃더니 이어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대학공부야 네가 하는건데 네 실력으로 붙어가지 아버지의 말이 무슨 힘이 된단 말이나. 일 없다. 네 실력대로 시험을 받아라. 딸의 대학입학 시험을 아버지가 쳐주는 법은 없단다.》

《...》

아버지에게서 깨끗이 거절당하고 (그렇다. 정옥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했다.) 실망을 금치 못한 정옥은 이번엔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랐다. 이 절호의 기회에 어떻게 하나 딸을 대학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한 정옥의 어머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다. 그 방법인즉 심사원선생들을 집에 초대하는것이였다. 초대하여 남편과 마주앉혀놓으면 딸의 입학문제는 그리 힘들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여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시학생소년회관 관장과 짜고 《초청공작》을 다 무르익혀놓았을무렵 갑자기 일이 뒤번져졌다. 저녁이면 집에 손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만해도 아무 소리 없던 남편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북부철길 건설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니 기다리지 마우.》하는 전화를 걸어 오고는 출장을 떠나버린것이였다...

결국 정옥은 예비심사에서 불합격이 되였다. 그는 너무도 분하여 눈물을 짜면서 아버지를 원망했고 그의 어머니조차 딸앞에서 생전 그런 일 없던 남편에 대한 고까움을 늘어놓았다.

북부철길 건설장으로 출장갔던 아버지는 닷새만에 돌아왔다. 이전같으면 정옥은 아버지가 신도벗기전에 달려나가 가방을 받는다, 모자를 받는다하며 수선을 떨었겠지만 그날은 아닌보살하고 두귀를 손바닥으로 꼭 막은채 책상앞에 앉아 영어단어를 외우는것으로 양값음을 했다. 그리고

그날밤 아래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소전쟁》이 있었는데 정옥은 무슨 《신발이니... 의 존심이니 탈선이니...》하는 아버지의 격한 목소리만 어렵듯이 가려들을수 있었다...

정옥은 아버지가 한 십년쯤 젊다거나 남들처럼 건강한 몸이라고 해도 것처럼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야속하지는 않을것 같았다.

본래 건강하지 못했는데 나이들어가면서 차츰 병원과 료양소 생활이 더 잦아지는 아버지가 래일이라도 덜컥 해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는것인가.

똑똑똑... 누군가 승무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옥은 생각에서 헤어났다.

문을 열어보니 연분홍빛 맛달린옷을 산뜻하게 입은 예닐곱살짜리 처녀애가 파란 비닐고뿌를 들고 서있었다. 처녀애는 마치 파란 잎사귀를 안고 피어난 한떨기 진달래꽃송이마냥 싱싱하고 귀여웠다.

정옥은 허리를 굽혀 처녀애의 몸을 쓸어주면서 물었다.

《물을 달라니?》

《응- 물 마실래.》

처녀애는 제법 웅성기어린 목소리로 또랑또랑 말했다.

그 애에게 물을 먹여준 정옥은 일어섰던 참에 물차관을 들고 손님칸으로 나갔다.

열차방송에서는 힘찬 음악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 6 기 17 차 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증산과 절약투쟁을 잘하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혁신적성과를 소개하고있었다.

정옥이 이쪽저쪽 손님들에게 물을 부어드리며 차칸 중간쯤의 어느 좌석에 이르렀을 때였다.

차창결에 바투 붙어앉은 상고머리의 로인이 창대같이 내리꽃은 비살을 바라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놈의 비가 무슨 일을 칠 잡도리군...》

그러자 역시 창문결에 로인과 마주앉은 교수머리에 붉은색 넥타이를 가슴에 드리운 청년이 정옥에게 불쑥 물었다.

《열차원동무, 도대체 이 비는 언제야 멎소?》

《네-에?》

정옥은 초생달같이 까부장한 눈섭을 살짝 들어 청년을 쳐다보았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동문 열차원이 일기예보를 모르면 되오?》

질문이 심겹기도 하지만 어리다고 알보는것 같아서 정옥은 껍지 않게 대꾸했다.

《미안하지만 열차원의 임무에는 일기예보를 알아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아요.》

뜻밖의 역습에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청년은 성난 표정을 지었다.

《동무 봉사성이 없구만. 열차원이...》

정옥은 어처구니 없었다. 이런 답답하고 렬치 없는 손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담... 제각하면 봉사성에 건다. 분한 생각같아서는 좀 모난말로 따벌처럼 꼭 쏘아주고싶었다. 봉사성이

뭘 웃결개인줄 아는가고... 그러나 차안의 분위기를 흐려놓을까봐 참고있는데 상고머리로인이 그를 대신해서 청년을 타이르는것이였다.

《이보게, 열차원이 그런것까지 어떻게 다 알겠나. 아직 어린 동문데 너무 나뭇말 말라구. 비야 멎을 때가 되면 멎지 않으리.》

그때였다. 금방 차굴을 빠진 열차가 갑자기 덜커덩- 하고 충격을 받더니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정옥은 얼핏 차창을 내다보았다. 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유리창 저쪽으로 소나무가 뻗뻗이 늘어진 산언덕이 보였다.

(웬일일가? 역은 아직 멎었는데...)

차는 서려는 모양인지 점점 더 속도를 늦춘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제나름의 판단을 내렸다.

《이거 사고가 생긴게 아니요?》

《글쎄 비가 이리도 오니 사태가 난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우린 큰 야단 아닌가. 잔치날이 래일인데...》

정옥은 손에 들었던 차관을 손님들에게 주어 창탁에 놓게 한다음 서둘러 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승강대에 채 가닿기도전에 완충기들이 덜거덕거리고 제동기가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열차가 천천히 멎어 서고말았다.

2

려객전무로부터 국사령의 무선전화지시를 전달 받은 정옥은 자기가 담당한 차칸으로 돌아왔다.

손님들앞에 나설 때는 될수록 상냥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애써 웃음을 지었으나 부자연스러워 얼굴만 빨개졌다. 무릇 웃음이란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만큼 마음에 없는 웃음이 꽃처럼 피여날수 없었던것이다.

열차가 도중에서 멎은탓에 열차원이 나타나자 질문들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정옥은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채 될수록 엄숙하게 기계적으로 말했다.

《손님여러분, 갑자기 내린 무더기비때문에 앞의 철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열차는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떠나지 못합니다. 내리는 손님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손님들은 중구난방으로 떠들었다.

《하, 이런 야단났군. 난 오늘중으로 일을 보고 되돌아서야 할 사람인데.》

이쪽의 바쁜소리를 저쪽에서 걸어찬다.

《아무리 바쁜들 나보다 더 바쁘겠소. 우리 이 사람은 래일 아침에 큰상을 받아야 할 새신랑이 우다.》 신랑되는 사람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저쪽으로 돌린다.

하지만 기차손님이라고 다 바쁜 사람만은 아니였다.

《까짓거. 난 밥만 먹여준다면 사흘이라두 기다릴 자신이 있수다레. 휴양가는 길이니께.》

휴양객의 늘어진 소리를 함경도녀인의 수다스런 목소리가 받는다.

《예구 기차라. 난 다음역에 내릴 사람인데 어떻게 목이 멘다구야... 이거보 렬차원아재, 이 기차 혹시나 여기서 밤을 새우는게 아임때?》

《무슨 그렇게야 오래 있겠나요.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정옥은 그 이상 아는것도 없지만 손님들의 끝이없는 입씨름에 말려들고싶지 않아 승무원실에서 밀대를 꺼내다 복도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한참 열심히 밀대질을 하는데 《렬차원체네》하고 어느 손님이 불렀다. 밀대를 세우며 보니 아까 말다툼을한 넥타이청년과 마주앉은 상고머리로인이었다.

《여기가 지금 어디요?》

《함수역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수사이 두번째 철교겠구만.》

《네.》

《그 다린 그닥 길지도 않은건데...》

청년이 팬스레 정옥을 힐끔 쳐다보면서 로인의 말꼬리를 잡았다.

《잡자기 산골물이 지니까 위험해서 그러겠지요. 자연재해가 뭐 긴다리 짧은다리 가리나요.》

《그건 그렇다 해두 철교란건 그런걸 다 타산하고 놓는단말이어.》

제나름의 고견을 피력한 로인은 문득 정옥을 불렀다.

《이보라구 체네. 그 함수천 철다린 내레 좀 하는데 기관사한테 알릴수 없을까? 이쯤한 비엔차가 통과해두 벌일 없을거라구...》

로인의 말에 정옥이는 물론 좌석에 앉은 손님 모두가 어이없어하는중에 붉은 넥타이청년이 입을 열었다.

《아바이두 참, 기차가 뭐 자동차 같은줄 압니까? 기차란 사령에서 지시하기전엔 한발자국도 제맘대로 움직이지 못한단말입니다. 한발자국도.》

무슨 대꾸가 있을상싶은데 한동안 가라부타 말이 없더니 마침내 로인은 움쭉 일어섰다.

《아무래두 내레 직접 가봐야지 안되겠군.》

《아니 아바이 어디 갑니까?》

《내 기관사한테루 간다니...》

그리고는 호기있게 출입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것이였다. 엉거주춤하니 일어서서 문을 나가는 로인을 멍하니 쳐다보던 청년이 자리에 들어앉으며 어이없이 중얼거렸다.

《허 그 아바이 정 웃기는 아바이군.》

그 말에 좌석의 손님들은 한마디씩 하였다.

《늙으면 오새가 없어진다니...》

《그래두 혹시 아오? 그 령감 덕분에 신랑이 제시간에 상을 받게 될지.》

로인은 정옥이 복도청소를 다 끝냈을무렵에야 돌아왔다.

하지만 갈때 그리도 호기롭던 로인의 어깨는 처져내리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 서려있었다. 문칸에서 로인과 만난 정옥은 웃음이 나는걸 참고 물었다.

《기관사동지를 만났나요?》

《만났어, 하지만 하늘소를 만났어.》

《네-에?》

《좌우간 그 물이나 좀 달라구.》

정옥은 물차관과 고뿌를 찾아들고 로인이 앉은 좌석으로 갔다.

아바이는 연거퍼 두고뿌나 물을 마시고도 식지 않고 김오르는 가마처럼 풀떡거렸다.

청년이 히죽이 웃으면서 먼저 말을 불었다.

《그래 기관사가 메랏디까?》

《헛참. -암만 말해줘두 하늘소에 양산도야, 뭘 모험을 하다가 사고나면 책임이 저한테 돌아온다나? 그런 담으로 기관사노릇은 어떻게 하는지...》역스러운듯 로인은 혀를 끝끝 찼다.

《보시라요. 아바이, 내 가지 말라는데 괜히 가가지구신... 한데 아바이, 그 철교에 대해선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청년의 물음에 로인은 벌떡 화를 냈다.

《내레 왜 몰라. 그 철다리를 놓은 사람이...》

《네-에?》

《?!》

《왜 놀랍나?!》

《...》

《하긴 놀라우테지 ...》

대답을 못듣는것이 흠족한듯 로인은 언제 화를 냈던가싶게 껄껄 웃었다.

《이보라구, 내가 이래봐두 철도에서 늙은 사람이야. 다시말해서 철도건설자지.》

《아하! 그렇구만요.》

청년은 감탄하고 정옥이와 주위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난 일생에 술한 철다리공사를 했네만 이곳 함수천철교를 세울 때 일이 제일 잊혀지지 않네... 왜냐구? 허허허, 그것은 내레 젊은 시절에 철다리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본새라 하겠는지 아니면 량심이랴구 하겠는지 좌우간 그러루한걸 배웠기때문일세.》

로인은 창탁의 담배갑에 손을 가져갔다. 라이타를 꺼내 담배불을 붙여주며 청년이 변죽을 쳤다.

《아바이, 비밀이 아니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체험담을 좀 이야기해줄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정옥이가 바라는것이기도 했다.

《허허허》

로인은 뿌연 담배연기속에 절절한 웃음을 섞더니 정색해졌다.

《그게 나로선 좀 부끄러운 일이지는 하지만은 정 소원이라면 말해보지.》

떡잎처럼 주글주글한 로인의 눈귀에 추억이 서리는듯싶었다.

《…그건 철다리공사 초입시에 있는 일인데 59년도니까 난 그때만 해두 젊었구 작업반장이였네. 첫교각의 기초공사를 마무리고 금방 천막속에 들어가 눈을 붙일만 했는데 누군가 흔들어 깨우더군. 눈을 떠보니 작업반의 막내동이겠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관리국에서 어떤 간부가 내려왔는데 성이 똑같이 나가지구서 나를 찾는다는 거야. 이젠 또 웬일이야 해서 눈을 비비며 기초현장으로 나갔지. 그런데 이런변이 어디 있겠나. 언제 왔는지 관리국 기사장이란 량반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내린것처럼 자갈무지에 발을 잠그고 서서 달려오는 나를 쏘아보더니 쳐넘길듯 주먹을 쑥 내밀지 않겠나. 그 주먹안엔 자갈이 한웅큼 쥐여있었어.

<이걸 비벼넣었소?>

<그렇수다> 하자 그 량반이 움켜쥔 자갈로 후려칠듯이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더 어찌지는 않고 다짜고짜 이미 해넣은 기초를 당장 까내고 다시치라는거였네.》

《그건 -왜요?》 청년이 물었다.

《자갈을 잘 씻지 않았다는건데... 어찌겠나, 사정했지. 돌격바람에 그리됐으니 두번째 교각부터 명심하겠다구... 하지만 그 량반은 막무가내야,

<첫걸음을 잘못 뒀는데 두번째 걸음을 잘할수 있다고 보우. 안되오. 이젠 철교요. 나라의 만년초석을 다지는 깨끗한 기초를 다져야 한단말이요.>

거기에 대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겠나. 별수없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틀을 꼬박기쳐넣은 몰탈을 도루 까냈네.

한데 마지막으 교각을 세우는날 기사장은 또 왔더구만. 와서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더니 만족해서 말하더군.

<반장동무, 수고 많았소. 그새 나를 욱 많이 했지요?>

<욕은 안했수다만...혼은 좀 났수다.>

내 말에 그 량반은 웃더구만. 웃고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

<이젠 됐습시다.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의 만년대계를 담보할수 있습니다. 나라의 동맥을 책임진 철도일군의 량심을 걸고 말입니다. 허허.>

우리 관리국 기사장이란 량반이 그런 진국이었네. 요 몇해전까지만 해도 관리국장 사업을 보냈는데 사람이 워낙 머리에 든것두 많구 그런 큰일을 할만한 재목이었지...》

로인의 마감말에 정옥은 은연중 놀랐다. 몇해전까지 관리국장을 하던 사람이라면 그 기사장이 결국은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는 벌써 10여년째 그 사업을 해온다. 그리고 관리국 기사장으로 일한 경력도 가지고있다.

그러니 생활이란 얼마나 오묘하고 우연으로 가득차있는가, 이 기차칸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그것도 용수없는 성격의 일단을... 바로 그 용수없는 외통배기 성미때문에 정옥이 지금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인가?

승무원실로 돌아오며 정옥은 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날 저녁의 아버지를 상기하였다.

...조용한 옷방에 딸과 마주앉은 창국은 저으기 감회가 깊었다.

아직도 응석반이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딸이 어느새 자라서 사회생활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다시말하여 인생의 시발역을 출발하게 된것이다. 나 어린 딸이 부러웠다. 이제 다시한번 딸처럼 인생의 시발역에 설수만 있다면 한생을 좀더 보람있게 살것만 같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느닷없이 자신이 철도에 첫발을 들여놓던 때의 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무슨 연고로해서인지 어렸을 때 그의 꿈은 기차를 몰고 끝없이 달리는것이였다. 해서 소년화부로 증기기관차에 첫발을 올려놓았었다. 그러나 해방전 소년화부의 하루하루는 피와 눈물로 얼룩졌었다. 무시로 차례지는 옥설, 사정없는 매, 땀으로만 치르는 신역, 멸시... 해방이 되자 창국은 철도와 인연을 끊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철도국에서는 젊은 화부들 왜놈 기관사가 앉았던 자리에 옮겨앉히고 놓아주지 않았다. 창국은 좋던 곳던 나라의 요구에 순응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과 나라의 처지를 톡톡히 헤아려보았던 것이였다.

그때부터 창국의 인생행로는 그자신의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두줄기 철길과 평행선을 이루었다. 기관사로부터 운영기사로 사령과 기사장사업을 거쳐 철도의 많지 않은 한개 관리국을 책임진 일군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는 때로 사업상 실패도 있었고 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신으로서는 한생을 궤도에서 탈선함이 없이 량심껏 살아오느라 애써왔다. 바로 그 노력속에 어느덧 종착역을 가까이하고있는 지금 그는 단지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의 선배로서 무엇인가 딸자식에게 말해주고싶은것이 있었다. 그는 딸에게 《사람은 로동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하여 마침내 참된 인간이 된다. 그러니 생활의 첫걸음을 로동으로 떼는것이 좋다. 로동이야말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드눌지 않을 뿌리를 키워주는 생활의 어머니...》라고 말해줄 작정이였다.

하지만 정작 입을 떼니 전혀 생각지 않던 말이 나갔다.

《애야, 네 생각에는 어떠냐, 철도에서 처녀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일터가 어데냐? 말하자면 너같은 기능공학교졸업생들이 제일 희망하는곳 말이야.》

정옥은 고개를 가웃이 쳐들고 아버지를 살짝

훑쳐보았다.

《역 안내원이 괜찮대요. 하지만 난 구내방송원이 더 좋을것 같애요. 아버지.》

《역구내 방송원말이나? 그건 왜서?》

《전망을 봐서도 그렇구... 아무래도 앞으로야...》

정옥은 종당에는 전문예술단체에 가야 할터인데 (그것은 어머니와 합의본 계획이었다) 그 기간 화술훈련을 하는셈치고 역구내 방송원이라도 하겠다는 말이 허끝에서 묻어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삼켜버렸다. 이쯤하면 아버지는 딸의 진속을 심본 리해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음, 그래... 그럼 모두들 실동해하는데는 어디라던?》

《렬차승무원이지요 뭐, 아이, 그런데 또 어떤애들은 렬차승무원이 좋다고도 해요. 그러나 내성격에는 암만해두 렬차원은 못할것 같아요. 지루하구 따분하구, 게다가 아유-그 손님단련...》

정옥의 말이 채 끝나기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네 말이 옳다. 우리 철도에서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이 승무원들이야. 그러구 철도를 망신시키는것두 렬차승무원들이구 또 철도를 빛내이는것두 그 사람들이구...》

정옥은 이것이 결정적인 마당이란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아버지품에 안길듯 바싹 다가왔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우리 래일 배치받아요.》

《음, 그건 나도 안다. 아무려나 배치를 받으면 일을 잘해라. 일이 사랑이라지 않느냐. 그러구 아버지가 관리국장이라서 낫을 내려거나 켜체하지 말고 어데 가나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바보가 건방진 위인보다 더 위인이라는 말이 있다. 내 말을 알만하냐?》

《네.》 기대하던 말이 아니여서 실망하며 정옥은 고개를 숙인채 손톱으로 무릎위의 치마흔술을 훑었다.

《그럼 가봐라.》

정옥은 아버지의 잠자리를 깔아주고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가내작업반 채봉공인 어머니는 아래목에서 손채봉침으로 병어리장갑을 만들다 말고 딸이 곁에 다가와 무릎을 눕히자 귀속말로 물었다.

《아버지 뭐라시던?》

《일 잘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혼시지요.》

《다른 말은 안하시던?》

《아-니》 정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눈을 마주보았다. 그러자 어머니가 속삭였다.

《이애, 걱정 말아. 아버지가 다 대책을 세웠다.》

《네-에?》

《내가 오늘 분국대렬과장을 찾아가서 네 문제

를 부탁했더니 글썽 말을 채 꺼내기도전에 네 아버지한테서 벌써 말을 들었다질 않겠니, 그래서 난 두말하지 않고 돌아왔다.》

정옥의 머리속에서 한점의 불꽃이 반짝했다. 역시 부모는 부모인것이다. 대학으로 못간이상 그어떤 일을 해도 좋지만 철도기능공학교만은 죽어도 안가겠다는 자기를 기어코 보내더니 이제 와서라도 딸의 전망을 밀어주려는것이 아닌가.

정옥은 가슴이 뭉클해났다. 아무렴 제자식의 장래를 생각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정옥은 괜히 아버지를 괴롭힌 자책감이 가슴을 알찌근히 파고들었다. 결정적순간에 손을 쓰려는것을 모르고 공연히...

《애, 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소릴랑 일절 말아, 남들이 알면 욕한다. 관리국장네 딸이 돼서 특세쓴다구... 알겠니?》

《참, 어머니두, 누가 뭐 어린애줄 알아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해요. 제가 철도기능공학교에 간것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를 칭찬하고있다는걸...》

정옥은 즐겁게 웃으면서 어머니를 향해 눈을 크게 빨았다.

정옥은 기뻐다. 하늘의 별을 따들 그보다 더 기쁠수는 없을것 같았다.

다음날 오전에 정옥은 분국 대렬과로 찾아갔다.

이미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고 또 기능공학교에 갈 때 만나봐서 풋낫이 있는지라 그는 서슴없이 대렬과장실로 들어갔다. 대렬과장 방에는 배치장을 받으려온듯한 사람들이 벌써 여러명 있었다. 잠간새 뒤에도 사람들이 연줄연줄 따라섰다.

정옥은 사람들을 비집고 책상앞으로 다가서며 알은체를 했다.

대렬과장은 인상좋은 얼굴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김정옥동무지?》

《네, 저... 아버지.》

《아, 네 다 알고있소.》

대렬과장은 더 들을것도 없다는듯 정옥의 말을 밀닥더니 문서철속에서 손바닥만한 종이장을 꺼내들었다.

《자-반소. 파견장이요. 아버지를 봐서도 일을 잘해야 돼.》

대렬과장은 정옥의 손을 잡아 힘껏 흔들어주면서 고무했다.

《알겠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함뿍 피어난 정옥은 돌아서서 가만히 파견장을 펼쳐보았다. 순간 정옥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이건...

그것은 렬차승무대 렬차승무원 파견장이였다.

혹시 파견장이 바뀌지 않았나 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자기가 틀림없었다.

그럼 아버지가 부탁했다는건 바로 이 렐차승무원과과견장이었던 말인가?

이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옥은 속시원히 알아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대렬과장은 벌써 웬 아주머니와 무슨 심중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안되오. 해야 되오. 이건 벌써 결론된 문제요.》

대렬과장의 단호한 말에 너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일을...전 그런 일을 하기엔 경험도 없지만 지금 일하는 객화차대가 좋아요.》

너인의 말에 대렬과장은 짜증을 냈다.

《하- 이 아주머니 정말 답답하구만. 객화차대 일도 물론 좋겠지만 아무렴 방송원에 대겠소? 경험이 없는건 마음 놓으시오. 아주머니야 처녀때 써클을 얼마나 잘했소. 그 화술이면 역구내 방송 좁은 히쪽 웃으며 할수 있수다. 자 받으시오. 받아가지고 가서 일이나 잘하시오.》

대렬과장은 과견장을 너인앞에 내밀었으나 그래도 너인은 두루 바재이기만 하면서 선뜻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장동진 어째서 꼭 저를 거기에 배치하려는지 모르겠군요?》

대렬과장은 문건을 들추면서 대답했다.

《그건 아주머니가 영예군인 남편을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요. 국장동지가...》

《국장동지가요?》 너인은 놀랐다.

《그렇소. 사실 우린 그자릴 좀 판데 쓰려 했는데 국장동지가 종시 승인하지 않아서 아주머니를 선선했수다. 그런줄 알고 국장동지를 만나거든 인사나 하시오.》

순간 정옥은 가슴을 불안으며 밖으로 뛰쳐나오고말았다. 더 묻지 않아도 어째서 자기에게 렐차승무원과과견장이 차례지게 되였는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정옥은 화단 귀퉁이에 있는 민출한 오동나무에 등을 붙이고서서 한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아 어찌면... 어쩔, 아버지 이다지도 딸의 심정을 몰라주나요? ... 전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란 말인가요? 예? ...아버지...》

정옥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푹 숙인채 집으로 향했다. 그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었다. 물론 점심도 건넷다.

저녁에 가내반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딸이 가져온 렐차원과과견장을 보고 딸의 이야기를 듣더니 락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밤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번째 《전쟁》이 있었다.

정옥은 아버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부모들의 말을 엿듣느라고 귀를 도사렸다.

어머니는 감정이 날대로 났었다.

《그래 당신은 애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요? 대학에 보내주었소? -직업 하나 똑똑한걸 구해주셨소? 아버지가 딸에게 준것이 그래 도대체 무엇이나 말이예요. 예?》

어머니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정옥의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말을 전부 대신했다.

얼마후 어머니가 저으기 진정되었을 때 아버지의 갈린 목소리가 토막토막 들려왔다. 의외에도 아버지는 탄식조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옳게 말했소. 난 요즘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요. 이제는 몸도 그전과 같지 않고 나이 들어 제대날두 가까워오니 더구나 생각이 많아지오. 내가 부모로서 딸자식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지식인가 재산인가...물론 난 아무것도 준것이 없소. 그러나 그 애에게는 당에서, 국가에서 받은것이 많소. 오늘 이때까지 공부는 나라에서 다 시켜주었겠다, 안정된 직업도 주었겠다, 이거면 다지 또 뭐가 더 있소? ...그런데 애가 그일을 달가와하지 않는다니 과연 우리가 하나밖에없는 자식을 그렇게밖에 못키웠단 말이지요?》

《...》

《말이 난김에 당신한테도 섭섭한 소리 좀 합시다. 난 그래도 당신은 이해하리라 믿었소. 내가 왜 애를 굳이 렐차승무원을 시키려고 하는지를...한데 이제보니 애보다 더 한심하기는 당신이요. 당신이 그래 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난 한생 철도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인생은 두 줄기 철길과 같다고 보우. 때로 곡절도 더러 겪어보긴 했소만 그만하면 난 이 인생궤도에서 탈선없이 살았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은 딸때때문에 날더러 자기궤도에서 탈선하기를 바라는거요? 인생의 마감역이 멀지 않은 지금에.》

창국은 문득 여기서 말을 끊었다. 다음은 오래동안 침묵속에 앉아있었다.

정옥은 갑자기 어머니의 흐느낌소리를 들은것같아 속이 불안해졌다. 처음의 기세로 보아선 분명 무슨 말인가 더 할것같은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종시 들리지 않았다. 들려오는것은 침대건너편벽에 걸려있는 낡은 채종시계의 똑딱거림뿐이었다.

...창국은 부상처가 뜨끔뜨끔 쑤시는것을 느꼈다. 우기를 앞둔 이마적이며 계절과 함께 꼭 찾아오는 피로운 증상이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서 더 아프게 생각되는것은 마음속 피로움이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애의 종착역을 앞둔 지금에 와서 자식때때문에 량심의 빛을 저야 하는가, 탈선해야 하는가?...

창국은 그것이 자신의 경력에 남은 오점이 될것이 두려운것이 아니었다. 딸자식에게 넘겨줄것이란 오로지 깨끗한 량심과 성실성뿐이라고 이제

껏 자부해온, 자기 재산의 전부인 그 량심과 사실성에 얼룩이 지는것이 두려웠다. 금방 생애의 출발점에 선 나 어린 자식의 가슴속에 벌써부터 흑점이생긴다면 머나먼 인생길에 장차 그 흑점은 얼마나 큰것으로 자라나라, ... 창국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그래서서는 안된다. 만약 후대들에게 무엇인가 넘겨주려거든 우리는 생활의 선배답게 말 그대로 원칙적이며 순결무구한것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더더욱 잘 지켜야 하는 참된 계승의 공리이고 생활의 료리인것이다!

창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해와 딸이 자기를 리해해주리라고 믿었다.

차창밖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소음이 일어났다. 비발은 아직도 차창유리를 두드리고있는데 비웃을 입은 사람들이 성급히 기관차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승무원들과 일부 손님들까지 내리며 비속도 아랑곳없이 자갈돌을 저력저력 밟으면서 앞으로 밀려갔다.

려객전무가 지나가면서 누구에겐가 《관리국장 동지가 나오셨소.》라고 말했다.

(아니, 아버지가?!...)

정옥은 료양소에서 본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모습을 피곳 상기하며 자리에서 일른 일어났다.

3

아버지가 그 몸으로 어떻게 나오셨을가? ...

이제껏 떠오르던 고까운 감정은 순식간에 봄눈처럼 녹아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밀물처럼 가슴속에 몰려들었다.

그는 렬차에서 어떻게 뛰어내려 기관차쪽으로 달려갔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기관차의 이마불이 앞길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그 불빛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는 정옥의 눈앞으로는 뜨거운 이슬이 피잉 고여올랐다.

그는 차마 사람들의 물결을 가르고 아버지앞으로 다가설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외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함수천다리는 60 년대 천리마시대에 우리가 놓은거야. 억년가도 끄떡없어》라고 장담하던 상고머리 로인이 주저주저 아버지앞으로 다가가면서 말을 붙이는것이였다.

《가만, 이게 우리 관리국장동무가 아니시우?》

《로인장은 누구신가요?》

아버지의 눈에 전에없는 빛발이 어리였다.

《내레 이 함수천 첫교각을 세울 때 기사장동무한테서 확질을 뎌 시공반장이올시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좌우간 건설관 전우를 만나니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비속에 내렸습니까?》

《차안에서 듣자니 관리국장 어른이 내려왔다지

에 한말씀 여쭙려구 나왔더니 이렇게 뜻밖의 상봉을 했수다. 이 철다리야 우리가 놓은게 아닙니까. 허히히...》

《허허허...그랬듯군요. 아무려나 고맙습니다. 한데 어떻습니까, 30 년전에 우리가 놓은 철콘데차가 통과하면 안될가요? 난 일없을것 같아보이는데 시공반장동무의 생각은.》

《나도 자신이 있수다. 탕수가 아니라 산이 무너져 내려앉는대두 끄떡없을거우다. 기사장동무.》

《허허허... 나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전혀 딴 사람이 된듯 기분이 좋아져서 호방하게 웃으며 여느때없이 말을 많이 했다.

장마철이다보니 마음을 놓을수가 없어 료양소에서 국관내 렬차운행 상태를 시시각각으로 료해하던 창국은 갑자기 쏟아진 무더기비로 지선인 함수천철교가 위험하여 려객렬차가 도중정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물론 국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국사령에서 원만히 운전지휘를 할것이였다.

그러나 창국은 오늘까지 본선과 지선을 따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사람의 몸에 수백갈래 뻗은 피줄이 다 살아있어야 하듯이 조국땅우의 모든 철길은 다 살아 움직이어야 하며 바로 그것을 위해 철길원도 기관사도 관리국장도 있는것이라고 그는 언제나 생각해왔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된 생각의 충동이 료양소장의 만류를 애써 물리치고 여기함수천 정차현장으로 달려오게 했던것이다.

수동도로리 한대가 사람들의 어깨에 받들리어 불빛속으로 운반되여왔다.

관리국장은 도로리가 철길우에 정확히 놓이자 선참으로 올라타면서 말했다.

《함께 갈 사람이 없소?》

상고머리 로인이 꾹-하고 맞은켠에 올라타면서 수동도로리의 한쪽 손잡이를 틀어잡았다.

《아니, 아바이가요?》

《난 내가 한 일을 끝까지 보증할수가 있수다.》 이때 누군가 말없이 도로리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었다. 젊은 기관사였다.

로인은 기관사를 알아보고 나무라운 소리를 했다.

《아니. 아까는 못가겠다구 딱 잡아떼던 사람이 어찌된건가, 영?-》

《아바이, 용서하십시오. 철도선배를 몰라보았됐습니다.》

어둑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바이는 내리십시오. 제가 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동지두요...》

말과 함께 장대같은 두손이 쑥 올라오더니 로인을 뉘큼 안아내리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이 구간 담당 철길소대장이였다. 소대장은 재차 국장을 향해 말했다.

《국장동지! 내리십시오. 저 철교는 저의 소대구

간입니다. 제가 책임적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국장은 그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다가 룡조로 말했다.

《여보 철길소대장, 이 국장두령감이라구 맹탕 안아던지겠나? 내가 룡양소에서 왔다는걸 알지? 내 병은 철도에서 얻은 병이라 이런 도로리를 타구 철길우를 달려야 낫는 병이야. 그러니 어서 오르게, 우리 같이 달려보자구.》

창국의 고집으로 도로리에는 결국 세사람이 탔다. 철길소대장과 기관사 그리고 철도관리국장.

도로리가 곧 어둠속에 잠기고 재롱 재롱 철길을 울리던 바퀴소리마저 사라져버리자 멍하니 어둠속을 바라보고 섰던 상고머리로인이 혼자소리로 웅얼거렸다.

《허허, 일하는 본새가 예전 그대로군. 사람이 하나두 변하지 않았다이...》

정옥은 그것이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았다. 그래서인지 가슴이 뭉클해오는것이 이상했다.

× ×

드디어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옥은 열차가 조심스럽게 철교를 건느고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예전보다 4시간을 줄이어 열차는 함수천철교를 통과했던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침대칸으로 갔다.

아버지가 누운 침대에 사람들이 반원으로 둘러서있었다. 그들속에는 방금 주사를 놓은듯 빈주사기를 든 낯익은 룡양소 녀준의의 얼굴도 보였다.

식은땀이 함뿍 내뿜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옥은 눈물이 핑-돌았다. 어쩌면 자기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신상에 어떤 불행이 닥쳐온것처럼 생각되었다. 생각이 그래서인지 열차승무원과 견장을 받은날 밤 아래방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격한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상기되었다.

《...안되오, 난, 내게는 내나름으로 량심의 궤도가 있소, 난 그 궤도를 탈선할수 없소, 더구나 인생의 마감역이 멀지 않은 지금에 와서말이요.》

아버지의 그 말에 반발하여 정옥은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좋아요. 아버지, ...다시는... 절대로 아버지의 덕을 바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나 철없고 어리석은 항변이였는가, 아니 항변만이 아니다. 마음속에 철길을 안고 량심으로 그 궤도를 떠받들며 한생을 살아온 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모든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야말로 얼마나 미련한 계집애이고 낱아키워준 사랑을 불신으로 갚은 좋은 아버지의 나쁜 딸인가...

《아버지!》정옥은 사람들을 비집고 침대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제야 아버지는 딸을 알아본듯 눈가에 대견한 미소를 그리었다.

《오, 우리 정옥이가 이 차를 탔됐구나. 수고한다. 그렇게 열차원완장까지 척 끼니 더 고와보이는구나, 허허허.》

아버지의 그 룡담속에 룡담만이 아닌 진정이 깃들어있음을 알았을 때 정옥은 그만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제가...제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하다니? 기차가 이렇게 잘 가는데 뭐가 잘못되었단 말이냐.》

하지만 어찌 아버지가 딸의 마음을 모르랴.

《고맙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니...하지만 어서가봐라. 손님들이 너를 찾을지도 모르니...》

정옥은 눈물을 씻고 일어섰다. 그리고 손님칸을 향해 힘있게 걸어들었다.

아리랑

(중국) 남영전

날아가는 산새야, 흘러가는 구름아
잠깐만 멈춰서서 내 노래 들으려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마음 등실 실어 님에게 전해주렴

그이가 길러내신 좋은 벼종자
오늘은 넘실넘실 금나락이 설레고
그이와 함께 심어 가꾼 파수원
사과맛이 하좋아 어린것도 손벽친다

그이가 칭찬하신 나의 손재간
고향의 새 모습을 뚝자리에 돌친다만
새길수가 없구나, 이것만은 정녕
내 고향 어디나 넘치는 기쁨은...

그이를 바래이는 언덕우에서
유정한 달빛아래 다진 속다짐-
그이는 수도에 가 학문을 깊이 닦고
나는 고향에서 힘껏 일하자던...

그이가 보낸 편지 시내물이 읽어주어
불현듯 고향땅에 봄빛이 길어진듯
하늘인들 못오르랴, 지혜의 별을 따다
고향에다 눈부신 빛을 줄것을...

날아가는 산새야, 흘러가는 구름아
잠깐만 멈춰서서 내 노래 들으려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마음 등실 실어 님에게 전해주렴

찢광이

(중국) 문창남

너무도 수수한 나무다. 솔이 눈을 떠이고 독야청청 솟은 층암절벽도 아닌 고즈넉한 야산 문덕에 불품없이 서있는 나무, 허나 귀중한 그 무엇 한점이라도 다칠세라 늘 가시울타리 치고 숨쉬는 찢광이나무!

지난 《5.1》절날, 나와 안해는 10여리길을 더듬어 길림 북산 약왕묘 동쪽기슭에 우거진 찢광이숲을 찾았다.

《바로 여기, 이 나무숲이요. 저기 저 약왕묘, 동쪽벽중간쯤 보오. 우가 타원형인 쪽문자리가 보이지?》

《네, 보여요. 지금은 벽돌로 다 막았네요?》

안해의 눈이 울릉해졌다.

《저 담안 집안에 약왕묘지하실이 있지. 바로 그 지하실에서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시던 김성주라는분이 초볼켜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지도하셨소. 보초서주던 착한 중이 반동군경놈들이 온다고 압호하면 저 문으로 뛰어나와 이 찢광이숲에 몸을 숨기곤하셨다오. 시고 뚝은 찢광이로 굽주림을 달래기도 하시며... 이 일로 15세 어린 나이에 길림감옥에 일년 갇히셨겠소. 그분이 바로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치떨던 **김일성**장군님이요.》

《아, 그래요?! ...》

안해의 눈동자가 신비로이 빛났다. 이 찢광이나마가 금시 황홀한 금무늬 이루며 설레이 보이듯이-

《여기 흙 한줌, 나무 한그루에도 그이의 뜨거운 숨결과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소. 《평양축전》이 아직 뒤달 있으니 화분에 옮겨 잘 길러보자구.》

《네-에...》

안해는 삼으로 캐면 뿌리가 성한다고 손으로 나무뿔을 파기 시작했다. 나와 안해는 말없

이 뒹뚱남짓한 찢광이묘목 15그루와 푸근한 부식토를 캐어 자루에 넣었다.

베란다 고운 화분통에 애지중지 기르노라니 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기지개켜며 싱싱히 아지뻘었다.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참관단으로 평양에 도착한 나는 이 화분과 인삼꿀벌젓 한상자를 조선관계부문에 바쳤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감회깊이 길림에서의 옛시절을 추억하시며 청춘혈기로 환한 웃음꽃을 다시금 떠올리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나는 중국인민친선의 정을 담아 그이께 조그만 기쁨이라도 드리고싶었다.

7월 6일 오후 5시경, 나를 실은 택시가 뜻밖에 만경대고향집으로 달렸다. 평양시를 못 벗어났건만 벌건 땀들이 이리저리 풍기고, 까치들이 유난히 기쁨을 우짖는다. 울창한 수림과 싱그러운 화초들이 우거진 만경대사적관앞에서 조선의 관계부문일군들과 만경대혁명사적지관리국동지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사적관마당앞 층계 오른쪽 잔디밭엔 15개 구덩이를 넓게 간격잡아 파놓았다.

성스러운 만경대고향집 이 자리잡은 산기슭에 먼 길림 북산 약왕묘기슭의 유서깊은 나무가 뿌리내리는 순간, 뿌잇해난 나의 눈길엔 우주를 휘감는 친선의 무지개가 서서히 어려왔다.

이 찢광이나마가 차타고 건너오긴 쉬워도 **김일성** 동지께서 열네살 어린 나이에 조국광복의 굳은 뜻 품고 압록강 포평 나루터를 건느시며 눈보라 만리길에 길림북산 약왕묘지하실을 찾아 추켜드신 진리의 화불

이 오늘의 주체사상탑으로 일어서기까지 헤쳐오신 고난의 혈로는 몇천리, 몇만리던가, 장중한 교향악, 비장한 서사시도 그 숨결, 그 자취 다담지 못하리라.

조선혁명의 노을이 시작된곳에서 자란 이 나무가 숨쉬는 푸른기념비로 무궁히 설레일것을 나는 기원한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나무가 조선 만경대를 빛내이며 조용히 뿌리내렸다. 끝끝내 만경대 넓은 품에 행복스레 안기였다. 찬연한 노을속에 이슬지는 일새마다 감격에 설레인다...

식수의식이 끝나자 나는 조선간부의 대동하에 청류관으로 향했다. 2층의 단아한 연회장에 들어서자 그 일군은 숙연한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나무들을 만경대에 옮겨심어 잘 가꾸라고 하시였습니다. 오늘저녁 이 연회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선생을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

나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사람이 예상외 분에 넘친 혜택을 받을 땐 송구스러움속에 쓰라린 추억이 앞서는가보다. 저주론 동란시기, 항일의 혈전속에 어깨결고 싸우며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을 《백두산》 제2부 서사시로 쓴것이 《죄》되어 청춘을 세탁해버린 10년 철창살이! 그 진통이 비참하게 떠오르며 나는 오열에 떨리는 입술, 흐르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

창너머 지켜보는 별무리가 떨리는 술잔에 어리여온다. 어머니눈길, 벗들의 눈길이 되

여...

몸돌바 모르는 흥분속에 밤
잠을 설치고 깨어난 이튿날, 7
월 7일 오전 10시, 나는 잊지
못할 영광의 시각을 맞이했다.

목메여 부르는 환호의 만세
소리속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만수대의
사당에 나오시었다. 아, 얼마나
름름한 풍채, 인자한 모습, 환
한 웃음이신가!

《축전》의 이 바쁜 시각에 해
외동포들을 먼저 찾아 우리 참
관단과도 함께 사진을 찍으시

고 오래오래 손저어주시는

김일성 동지!

나는 그대로 서서 찢팡이나
무로 우거지고싶었다. ...

길림 북산언덕너머 태고연한
백두설령이 우뚝이 떠오른다.

1211 고지나무의 말

- 《조국선물실》에 진렬된 반나마 불탄 나무토막앞에서 -

(총련) 김학렬

불바람이 인다
이 가슴에

시커멓게 탄 그대
1211고지의 한토막 나무앞에 서니
후더워오는 이 가슴에
그날의 포격소리 쿵쿵 울린다
전사들의 함성 높이도 메아리친다

시누런 하늘아래
흙도 타고
바위도 산산이 부서지면
아, 가렬한 싸움의 그날

그날의 용사들
그 불타는 심장 전하러
나무여, 그대는 해를 지나 바다건너
이역의 우리앞에
그리도 거연히 섰는가

온통 술한 탄알과
녹슨 파편이 박힌
그대는 영웅들 불가슴의 피웨침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덩어리

그대는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결단코 원썩을 용서치 않을 의지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목직한 철추!

그대는 나에게 가르친다
비발치는 탄알을 맞받아
고지우에 피흘려 쓰러진
수많은 청춘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호소한다

- 조국의 준엄한 운명앞에서
하늘도 땅도

산천초목까지도 불을 토하며
사생결단 원썩을 맞서싸웠거니
원썩을 한시도 잊지 말라
이글거리는 분노로
원썩와 맞서라

조국은
피로, 목숨으로 지켜야만 하는것
조국앞에
팔짱끼 방관자가 되지 말라!

그대는 부르짖는다
조국 위해
손 한가닥 놀려본적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의 개소리판을 두고
우리앞에서 지탄의 말을 한다

- 녀를 잃고
말을 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저버리는자들에게
너는 지금 불을 안고 매섭게 싸우느냐?

나라 위해
통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너는 이 순간
어느만치 아글타글 가슴 불태우느냐?

아무리 이역바람 험상궂어도
아름찢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노상 어머니조국을 우러르느냐?

민족자주의 단 하나의 리념인
우리의 조국을 비방하는
안팎 원썩들이 찌소리 못하게
추잡한 그 숨통들에게
마구 시뻘건 철추를 내리라!

이나라 녀인들

김홍익

1

도에 있는 체신일군양성소를 마친 심유순이 고향읍거리 한복판에 자리잡은 우편국 직원으로 입직한것은 전쟁이 일어나던 그해 이른봄이었다.

곧고 늘씬한 키, 균형을 맞추어서 배치한듯 제자리에 꼭꼭 들어박힌 이목구비, 우유빛의 희고 부드러운 살결... 첫눈에 띄는 미모로 하여 처녀는 인차 읍거리청년들의 류다른 관심속에 들었다.

김일성 장군님의 령도밑에 제손으로 민주개혁을 해왔겠다, 인민정권도 세웠겠다, 해방 5 년간에 담이 커질대로 커진 젊은이들이라 처녀하나쯤 못 휘여낼가싶어 저마끔 재간껏 처녀에게 접근했다.

대담한 축들은 처녀의 앞길을 무례하게 막아나섰고 즐난축들은 공연히 우편국앞을 맴돌았으며 개중에는 동서고금의 연애소설들에서 따낸 현란한 문구투성이의 길다란 편지를 보내오는 축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편국장녀인이 명백히 예언한 바와 같이 결코 그런식으로는 처녀를 후려내지 못할것이였다.

그누가 길을 막아서건말건 처녀는 검정색 제복에 역시 모표 없는 검은색 제모를 꼭 내려쓴채 헛눈을 파는 일 없이 아침저녁 출퇴근길을 곧바로 오갔고 낮이면 빨간 뺨끼로 《전보》라고 써붙인 판유리너머에 그린듯이 앉아 손님들에게 전보용지를 내어주고 전보문의 글자수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하였다. 이쯤되자 처녀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점차 실망과 비난으로 변져 나중에는 듣기 어려운 험담까지 마구 나돌았다. 성난 고양이라느니, 뺨동해낸 너자라느니...

어느날 그옆에서 소포며 송금이머를 맡아보는 팔랑이처녀 손레연이 끝내 참지 못하고 한마디 중떠보았다.

《언니, 요즘 언니를 두고 어떤 말들이 나도는지 알아요?》

손님이 없는지라 심유순은 소설책에만 정신을 팔고있었다.

《언니더러 지뢰원이라네.》

그제서야 심유순은 까부장하니 휘여든 긴 속눈썹을 치켜들었다. 축축히 젖어든 속눈썹밑으로 찰랑찰랑 넘치는 정기!

(이러니 남자들이 왜 속이 달지 않을까!)

일종의 질투심 비슷한것을 느끼며 손레연은 말을 이었다.

《지뢰원이지 뭐야? 앞에서 다가서자면 언니의 쏘는것 같은 눈길때문에 십미터 안엔 들어설수 없구 뒤에서 접어들자니 언니뒤통을 그림자처럼 따

라다니는 경쟁자들때문에 얼씬도 못하겠지... 참 들었어요? 언니에게 눈독을 들인 어떤 총각이 밤낮 우리 우편국앞을 맴돌다가 우체통이 벌떡 일어서며 커다란 발통으로 뺨을 후려치는바람에 줄행랑을 쳤대요!》

때마침 누가 들어서는지 출입문이 열렸다.

얼핏 눈길을 드니 스핑크스처럼 딱 버티고앉은 사자모양의 우체통이 뺨히 내다보였다.

참말 어처구니없는 소문도 다 내돌린다. 뭐 지뢰원? 뺨동한 너자? ... 남자들이란 어쩔 모두 그렇게 련치가 없고 어리석기만 할가.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면 혹시 심유순은 벌써 마음속에 배우자를 점찍어두고있는것이냐 아닐까?

아니였다. 유감스럽게도 심유순은 아직 미래의 동반자에 대한 뚜렷한 표상조차 갖고있지 못했다. 단 이것만은 말해둘수 있는데 스스로 마음이 끌려 아껴오던 처녀의 순정을 한순간에 쏟아부을수 있는 그런 상대여야 했다. 한데 그런 상대가 쉬이 나타나는가? 앞을 막아서는 남자들은 뻔뻔스러워서 질색이였고 그림자나 밟고 다니는 못난이들은 도대체 사내같질 않아 돌아보기조차 싫었다. 한마디로 대담하되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되 비굴하지않은 사람이라야 했다.

《아직도 상대가 없단말이나?》

언젠가 심유순과 손레연을 불러왔던 국장녀인은 혀를 쭉쭉 차며 이렇게 충고했었다.

《사랑이란 기다리기만 해서는 오지 않는 법이다. 찾아야 하구 가꿔야 한다. 세상에 완전무결한 남자가 어디 있다더냐? 우리 령감도 내앞에 첨 나타났을 땐 도무지 눈에 차질 않았어. 사람이 체소한데다 성미가 오물썸물한게 사내같은데가 눈곱만치도 없어뵈더구나. 그런데도 왜그런지 싫진 않아. 난 그의 순박성을 믿구 맘을 정했드랬다. 그리곤 닥달질하구 잔소리하구 의욕을 북돋아주었어, 했더니 이제 그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 둘 사이에 자식이 없는게 흠이긴 하지만 까짓대수냐? 문제는 정이 통하면 되는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참, 저 레연이라건 언제부터 쫓아다니는 철제일용의 제관공총각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리머리질이지, 유순인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뺨기를 푹푹 풍기지... 눈잡잡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는게 처녀시절인데 참!》

정말 이러다 혹시?!

겉이 덜컥 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때면 문득 멍쳐서서 겁먹은 눈길로 멀리 뒤꼴을 바라보곤하였다. 그러면 지나온 길에 만났던 남자들의 모습

이 우렛이 떠올랐다. 그러나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그 군상속에 그의 마음을 틀어잡을만한 상대는 없었다.

《언니, 뭘 생각해요. 앞에 손님 세워놓고...》

짜증을 내는듯한 레연의 목소리에 심유순은 얼굴을 들었다. 판유리너머로 웬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청년은 갑자기 쳐드는 심유순의 눈길과 시선이 마주치자 당황한듯 얼른 고개를 떨구었다. 그바람에 원래는 옆가름을 탔던 모양으로 단정히 빗어넘긴 통머리가 두쪽으로 갈라져내리며 이마전에 드리웠다. 순간 심유순은 그렇듯 부자연스레 흘러내린 머리 모양을 어디선가 본듯한 생각이 들어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무척 애도보이는 청년의 해사하고 갸릿한 얼굴모습도 언젠가 꼭 본듯하였다. 그러나 딱히 짝이는데는 없었다.

《저... 전보용지 한장 줘...》

청년의 더듬는듯싶은 웅글은 목소리.

심유순은 그제서야 무엄하게도 남자의 얼굴을 훑쳐보는 자신을 질책하며 전보용지를 한장 뜯어 앞탁우에 놓았다.

청년은 얼굴생김과는 상반되게 크고 억세여보이는 손으로 그것을 슬그머니 당겨갔다. 반원으로 뚫린 유리구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전보용지를 결눈질해보던 심유순은 펼친채 밀어놓았던 소설책을 끌어다 읽기 시작했다.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였다. 그의 눈앞에는 노동자를 사랑할 용기는 있어도 노동자의 사상을 사랑할 용기가 없는 또나와 단호히 결별하는 젊고 용감한 주인공- 빠넬 꼬르차킨의 림름한 모습이 금시 떠올랐다.

(아, 이게 남자다! 정의롭고 용감하고 강의하...)

《호호호호...》

갑자기 터지는 레연의 웃음소리만 아니었던들 심유순은 언제까지나 책속에 묻혀있었을것이다.

《언니, 이자 그 남자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왜 오긴? 전보...》

말이 저절로 허끝에서 얼어붙었다. 내다보니 방금전 전보용지를 달래던 청년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었다.

레연은 어안이 빙빙해진 심유순을 보는것이 재미있는듯 생글생글 웃더니 움쭉 일어나 유리구멍 밑에 놓인 전보용지를 집어다 소설책우에 소리나게 놓았다.

《자 보라요, 이래도 전보치러 왔어요?》

전보용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씌여있지 않았다. 유순은 더더욱 어리둥절해졌다. 왜 그냥 갔을가? 혹시 갑자기 수신인주소라도 까먹은것인가? ... 그의 의혹을 레연이가 풀어주었다.

《그 사람은 언니의 마음을 닮으러 왔어요.》

《뭘?》

레연은 인상적인 오목눈을 깜박거리며 유순의

놀란 얼굴을 조롱하듯 뻔히 들여다보았다.

《언니 몰랐지? 그 남자가 언니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걸. 하지만 난 그가 두세번 거쳐 나타나자 벌써 알았거든. 매번 올 때마다 꼭 언니앞에서 한참씩 머뭇거리다간 우표랑 편지지랑 사가곤하는데... 호, 글썄 생각해보라요. 언니, 무슨 편지 할데가 그리 많아서 사흘 건너 우표랑 편지지랑 사간단 말이에요?! 속심이야 뻔하지.》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한 심유순은 속으로 피식 웃어버렸다.

《앤 정말 말 같지 않은 말 그만둬!》

《하지만 두고보세요. 며칠후에 그 남자가 또 나타나면 언니 생각도 달라질걸.》

《달라질것두 두고볼것두 없다.》

했으나 며칠후 그 청년이 또다시 유리간벽 저쪽에 나타났을 때 심유순은 은연중 그의 외모를 살펴보았다.

창백한 얼굴, 가냘파보이는 길고 가느다란 목, 풀을 먹여 뿔뿔이 다려입은 무명옷속으로 드러나는 좁은 어깨, 잠을 설친듯 약간 부석부석해보이는 눈만은 그런중에도 사내답게 검고 크다. 대신 두쪽으로 갈라져내린 통머리는 여전히 좁은 이마를 답답스레 덮고있었다.

(흠, 그 이마엔 차라리 옆가름이 나은걸 공연히 품을 들여 류행을 따랐구나!)

자기를 지켜보는 레연의 칼끝같은 시선을 감촉한 심유순은 괜한것에 관심을 둔 자신에 화를내며 눈을 내리깔았다.

《저 어... 우표를 석장만...》

애도보이는 얼굴에 비해서는 무척 웅글은, 그러면서도 어딘가 더듬는듯싶은 목소리.

심유순은 우표를 세여 유리구멍밑에 놓았다. 그리고는 얼굴을 들지 않은채 돈을 받아 탁상금고에 넣었다. 천천히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 문이 열렸다 닫기는 소리...

《호, 저렇게 사가다간 우리 우편국우표를 아주 밀창내겠네.》

알망겅게 울리는 레연의 빈정거림을 못들은듯 심유순은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이 실었던지 레연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두 그 남자가 철제일용의 그 체관공보담은 훨씬 낫지. 사람이 어딘가 진실해보이구 침착하구...논엔 사색이 깃들어있어.》

《넌 철제공장의 그 남자가 그렇게도 싫니...?》

《싫어요, 싱겁구, 거칠구, 대통맞구... 요만전 어쨌는지 알아요? 자기 동무들까지 잔뜩 거느리구 골목길을 지켜섰다가 떡 막아서서는 한다는 소리가 뭐 나더러 자기 손아귀에서 빠질 생각은 아예 말라! 철판도 척척 휘는 손이라면서...참.》

《그렇다면 힘들겠구나.》

무슨 말로든 레연을 위로해주려고 말머리를 찻던 심유순은 동그랗게 파낸 판유리밑의 조그마한

구멍에 눈길이 닿자 그만 제 생각에 빠져버렸다. 여직껏 심유순에게 있어서 손님간과 직원간을 막은 키낮은 유리벽 저쪽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로인이든 서신거래 때문에 찾아온 손님의 그 누구도 아니었다. 유리벽을 분도기모양으로 동그랗게 파낸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그 어떤 마음의 고백이 흘러들어올수 있으리라고 언제 한번 상상이나 해본적이 있었던가!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고백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할지라도 (물론 훌륭할수 없을테지만) 심유순이한테는 일종의 모욕으로 될것이었다. 사랑은 다른데서 그를 기다릴것이고 다른데로부터 그를 향해 올것이었다. 그렇다. 전보용지나 나드는 저 조그마한 유리구멍으로 찾아드는 사랑은 너무나도 범박한것이다...

시간은 놓아버린 살갗이 빨리도 흘렀다. 봄에서 여름으로... 생활은 그 시간을 앞질러 달리고 있었다.

모든것이 변모되었다. 거리도, 사람도, 자연도... 하지만 변화무쌍한 생활을 품고 흐르는 시간속에서도 그냥 한본새로 되풀이되는것은 며칠에 한번씩 유리간벽 저쪽에 와서군하는 그 피이찍은 청년의 행동이었다. 길고 가느다란 목, 험쵸한 얼굴, 어디를 건줄지 몰라 허둥거리는 눈길, 웅글은 목소리, 《우표를 좀...》, 《편지지가 있습니까?》

두번... 세번... 거듭 반복되는 사이, 어디선가 그를 본듯싶던 처음의 인상도 흐려졌다.

보긴 어디서 봤겠는가? 그저 낮익어보였을뿐이지, 세상에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라구?

그 생각이 들자 심유순은 그 청년의 주기적인 우편국출입에 대하여 차차 심상하게 여겨졌고 그를 대하는 태도도 자못 랭답해졌다. 그러나 청년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을뿐더러 동안이 더욱 잦아졌다. 그에 내심 마음의 긴장을 느낀 심유순은 한번 기회를 봐서 되게 골려주던가 아니면 조용히 만나 정면으로 면박을 주리라 마음먹었다. 그같이 어리석은 《장기전술》을 그만 두라고, 그래야만 그의 끈지고 어리석은 걸음을 멈춰세울수 있을것으로 여겼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시 골려주지도, 면박을 안기지도 못했으니 시간앞서 흘러가던 생활은 미제원썹들이 불지른 전쟁이라는 준엄한 시련앞에 먼저 자리를 내어준것이였다.

2

전쟁의 불구름은 우편국에도 뚜렷한 그림자를 던졌다.

누에치기를 잘하자는 내용의 선전화가 붙어있던 맞은편 벽엔 전쟁승리로 부르는 선전화가 나붙었고 커다란 창문우엔 검은 빛 차광막이 걸

렸다.

타곳에서 부쳐오는 편지와 전보, 소포들이 갑자기 적어졌다. 우편국을 찾는 사람들도 훨씬 줄어들었다.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변앞에 사람들은 그만 우편국의 존재를 잊은듯했다.

전쟁!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일단 그것이 눈앞에서 터지자 누구도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맞받아나야했다. 거리는 전쟁을 몰아온 원썹 미제에 대한 피타는 절규와 전선탄원의 뜨거운 웨침으로 잠들줄 몰랐고 역두는 매일 같이 전선으로 나가는 청년들로 붐비었다.

심유순은 누가 자기를 지켜보는듯한 촉감에 머리를 들었다. 순간 그의 반드름한 랑미간이 가느다란 주름살이 그어졌다.

관유리너머에 레의 그 청년이 서있었던건이다.

《저 전보용지를 한장 좀 줄수 없습니까?》

탁하고 웅글은 목소리, 조금 넓은 무명옷, 전에 없이 열기땀 눈속에서 고요히 빛발치는 이상한 광채, 이마우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어쭙게 쓸어올리는 크고 억센 손. (봤어 저 손동작... 어디서 봤을가?)

언뜻 스치는 환영을 눈여겨보던 심유순은 그가 다시 요구해서야 전보용지를 한장 내밀어주었다.

어쩐지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도 변모시키지 못한듯싶은 그를 보는것이 언짢았다. 눈길을 떨구었다. 그가 울적마다 펴놓고보곤하던 소설책이 이젠 없다. 책읽기를 그만둔지 전쟁이 시작된 날자와 맞먹는다.

맞은편 벽에 붙인 선전화에 눈길이 갔다. 흘날리는 포연, 파헤쳐진 들판, 질주하는 탱크, 그뒤를 따라선 보병대렬... 보총을 가슴앞으로 끄당겨 잡고 커다란 주먹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며 힘있게 웨치고있는 병사-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저 부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신으로 달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든이들을 전선으로 떠내보냈다. 그속엔 우편국장의 남편도 있다. 오늘 낮차로 떠난다고 국장은 역전에 나간지 이속한다.

《저... 어...》 용서를 비는듯한 조심스러운 목소리,

심유순은 유리구멍밑에 놓인 전보용지를 집어다 책상우에 놓았다. 어리숙해보이는 생김새와는 대조되는 그의 웅글은 목소리같이 굵직굵직하고 활달한 필체가 눈에 안겨들었다. 그런데 주소란이 비었다.

심유순은 전보용지를 도로 주려고 손을 쳐들었다. 그러다가 흠칫 굳어졌다. 본문란에 씌여진 세마디의 글자가 살처럼 눈을 찔렀다.

《심유순동무야》

의혹, 놀라움, 심장의 어렴풋한 예감...다음 구절에도 눈길이 미끄러졌다.

《전선으로 떠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리벽.》

가슴이 후두둑 뚫다. 그로서도 대중할수 없는, 심히 모순된 감정이 전신을 휩싼다. 맹렬하게 끓다가는 싸늘하게 식어들고 우뚝 일어서면 짹 짓누르고... 화학반응이라도 일어난듯 소름치던 감정의 물결이 서서히 갈았다. 점점 그 색깔이 선명해진다.

그것은 조소도 경멸도 기쁨도 아니었다.

이 청년 역시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구나 하는 일종의 안도감에서부터 환기된 따뜻한 마음의 첫물결이었다.

심유순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출입문이 부르르- 진동하고있었다.

출입문열 커다란 창문으로 사람의 형체가 언뜻 스쳐지나갔다.

심유순은 자석에 이끌리듯 나뉘문을 열고 손님간에 나섰다. 조금 망설이다가 손님간을 가로질러 출입문 앞에 멈춰섰다. 그다음... 문을 열었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이

...

씩씩하고 우람찬 노래소리가 멀어져가고있었다.

네거리 굽인돌이로 퍼그나 긴 대렬의 앞머리가 금시 꺾어돌고 그옆으로 낮익은 군사동원부 상급지도원이 걸어가고있었다. 전선으로 탄원해가는 초모생대렬이었다.

심유순은 우편국과 이웃한 읍중학교의 키낮은 담벽밑에서 그 대렬을 뒤쫓아 쫓쫓쫓 뛰어가는 청년을 보았다.

엇대까지 축 처져내린 낡은 회색 배낭이 잔등에서 들썩들썩 춤추고있었다. 대렬의 마지막 꼬리가 네거리 복판에 우뚝 솟은 3층짜리 국영종합상점뒤로 사라질무렵 그는 간신히 대렬에 들어섰다. 어긋자긋 발걸음을 맞추느라 우습강스레 잔걸음을 하면서도 그는 얼핏 우편국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찰나 그 모습을 가리우며 풍을 쐬운 화물차가 지나갔다. 그뒤로 먼지가 뽕얇게 서려올랐다.

종이에 쓴 조그마한 꾸레미를 든 레연이가 앞을 막아서서야 심유순은 텅빈 네거리에서 눈길을 거두었다.

《언니, 그 동무가 오늘 전선으로 떠나가요.》

《그라니?》

《제관공말이에요..》

《그-래?!》

...레연이와 함께 역전으로 향한 심유순은 그가 리해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싫다던 제관공과 어느 사이에 인연을 맺었던 말인가?)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하고선 판전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어떤면에서는 레연이같은 팔랭이들이 더 엉큼한 법이다.

역함은 사람홍수에 잠겨있었다. 심유순에게 보꾸레미를 맡기고 그 홍수속에 뛰어들었던 레연은 한참만에야 땀에 푹 젖어 자기의 제관공을 끌고 나타났다.

《인사해요, 아시겠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레연의 소개가 미처 끝나기도전에 야무진 구령이 그의 말허리를 찍었다.

《전체 모였!》

《중대 4렬횡대로...》

제관공청년은 한밤중에 처녀의 앞길을 뚝 막아서군하던 그답지 않게 얼굴이 벌개서 이쪽저쪽이며 바재더니 《내 모였다 오겠소!》 하고는 한창렬을 짓기 시작하는 대오를 향해 뛰어갔다.

《야 참, 벌써 모이면서...》

레연은 안타까운듯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마구 훔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유순은 동무의 심정이 리해되었다. 애인을 전선으로 떠나보내는 처녀마음이 어찌 바람잔 호수같이 평온하랴. 범상치않은 그 심정을 말해주듯 레연의 가슴은 폭풍속의 바다마냥 높이 오르내렸다. 레연이 문득 유순의 손을 잡았다. 불갈았다.

《한데 언니, 언닌 왜 말이 없어요. 언제부터 저 동무에게 마음을 주었는가구 왜 묻지 않아요?》

평소의 알망곳은 장난기가 싹 가셔버린 레연의 오목눈속에서 물기어린 광채가 반짝 부서진다.

《?...》

《난 저동물 여직껏 몰랐댔어요. 어제밤에야 그를 알았어요. 밤늦어 날 찾아와서는 이제 전선으로 나가니 그동안 거칠고 어리석게 군걸 죄다 용서해달라구, 전선에 나가서 편지할테니 한두마디 씩이라도 회답을 해달라구, 그러면 자긴 나의 체온이 스민 그 편지를 가슴에 품구 용감하게 싸우겠다구... 아, 언니, 그는 거칠지 않았어요. 어리석지도 않았어요, 조용하구 침착했어요.》

내가 여직껏 그러보던 그런 사람이었던 말이에요.》

순간 심유순은 느닷없이 눈앞에 매달렸다가 사라지는 짙막한 글줄을 읽었다.

《전선으로 떠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리벽.》

(리벽 ...)

심유순은 눈을 감았다. 그도 이 차편으로 떠날텐데...

《승차!》

-와-

가까스로 정돈해 섰던 초모생대렬은 금시 휩쓰는 환송군중들한테 순식간에 먹히워버렸다.

그 와류속에 어쩔새 없이 빠지는 심유순은 쇠물가마속에 던져진 조약돌마냥 순간에 온몸이 확대아올랐다. 땀에 젖은 살냄새, 찌물쿠는 더위, 소용돌이... 누군가의 역센 손이 팔을 잡아당겼다.

《소영이!》 돌아보았다. 불꽃이 번쩍 튀겨오르는 검고 크고 시원한 눈이 마주 바라본다. 낮설은

눈이다. 눈속에 번뜩이던 불꽃이 인츰 미안한 기색으로 어두워진다. 《안됐소. 난…또…》 돌아선다. 목갈린 부르짖음 《소영이-》

순간 그 어떤 부러움갈기도 하고 아쉬움갈기도 한 쓸쓸하고 야릇한 감정이 가슴밑바닥에 뭉친다.

《언니, 여기야요 여기-》

레연의 목소리를 찾아 밀고 밀리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제관공청년을 보았다. 다가섰다. 《저어...레연동문 걱정 말고... 부디 몸주의하세요.》

심유순은 흠칫 몸을 떨며 입을 다물었다. 자기의 목소리에서 서글픈 음조를 감축한 것이었다.

목멘 기적소리가 다시금 귀청을 때렸다.

《동무들, 빨리 기차에 오르시오.》

《여러분 열차에서 떨어지세요.》

인술군관들과 열차원들의 비는듯한 목소리가 허공에서 떨어졌다.

《자, 그럼 ...》

제관공청년은 장알박힌 커다란 손으로 두 처녀의 손을 한꺼번에 거머쥐고 꼭 힘을 주더니 열차를 향해 달려갔다.

심유순의 손에서 꾸레미를 와락 뺏어든 레연이 그뒤를 쫓아갔다. 심유순이도 따라섰다. 그들이 짝 운집된 사람들을 비집고 열차승강대앞에 다달았을 때 기관차는 금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열차결에 밀집해선 사람들의 물결도 점점 더 뻥뻥이 죄어들며 따라 움직였다. 승강대에 바싹 달라붙은 레연은 제관공의 가슴에 꾸레미를 안겨주었다. 청년은 꾸레미와 함께 처녀의 손을 짝 틀어잡았다.

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레연은 금시 어푸러질듯 허정거리며 열차를 따라 달렸다.

열차원이 다급히 웨쳤다.

《동무, 동무, 손, 손 놓으세요.》

그제서야 청년은 처녀의 손을 슬며시 놓아버렸다. 그바람에 몸에 가해진 힘을 못이겨 어푸러질듯 비척거리던 레연이 용케 자세를 바로잡더니 웨쳤다.

《기다리겠어요!》

열차를 따라 달려가는듯한 레연의 목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순간 심유순은 전신에 찌르르 전류가 흐르는것을 느꼈다.

열차는 미끄러지듯 흠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창문에, 승강대에 튼없이 짝 달라붙은 얼굴들, 허공을 가르는 손들... 그속에서 심유순은 맨뒤 승강기에 서있는 리벽을 알아보았다. 바래주러 나온 사람들속에 가까운 친지나 동무들이 없는듯 묵묵한 시선으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는 환송객들속에 섞여있는 심유순을 보았던지 가는 목을 쭉 빼들며 손을 쳐들었다.

순간 심유순은 저도 모르는 충동에 마주 손을 들었다. 그러나 흔들지는 못했다. 가슴속에 자리

잡은 처녀의 자존심이 억제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는 손을 내릴수도 없었다. 그러한 뻥담성을 용인하기에는 흥분으로 높뛰는 그의 심장에 흐르는 피가 너무도 뜨거웠다.

어느덧 열차는 역구내 끝에 막아선 그리 높지 않은 언덕뒤로 꼬리를 감추었다.

《그래 너희들도 나왔됐구나!》

썩 갈린 목소리와 함께 잔등에 와닿는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에 유순은 머리를 돌렸다. 눈언저리가 척척히 젖어든 국장이 서있었다.

《떠나갔어, 나들이라도 가는것처럼 인차 돌아오마고 웃으면서 ...》

작별의 가볍지 못한 감정에서 깨어나지 못한듯 기관차가 뿜어올린 회피은 연기타래가 몽그러니 떠있는 언덕우를 망연히 바라보던 국장은 두 처녀의 잔등을 떠밀어 개찰구쪽으로 향하면서 조용히 물었다.

《유순인 누가 떠나갔니?》

《저어... 전... 그저 ...》

심유순은 어찌선지 당황해지는 마음을 느끼며 레연을 바라보았다.

국장은 알만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레연이한테로 시선을 주었다.

레연은 애써 눈물을 참는듯 인상적인 오목눈으로 허공을 쳐다보며 툭, 툭 끊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동무가... 제관공이... 떠나갔어요.》

《봤다, 봤어.》

젖어든 눈언저리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처녀를 바라보던 국장은 그의 동그스름한 잔등을 두드려주며 말을 이었다.

《전쟁이 너희들의 사랑을 갑자기 무르익혀왔구나!》

《어머니!》

우뚝 멈춰선 레연은 국장의 실박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갑자기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아. 안다, 알아 네 심정을...》

전쟁관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녀자의 마음이 편할수야 없지. 하지만 걱정 말아. 너희 제관공은 돌아온다. 암 꼭 이기고 돌아오구말구.》

국장은 레연의 부들부들한 머리칼을 다정히 쓸어주며 정겨운 어조로 말했다.

《넌 참, 좋은 처녀야!》

한덩어리로 되어버린 두 녀인의 상기된 불우로는 맑은 눈물이 방울방울 구울러내렸다. 눈물은 결에 홀로 선 심유순의 불우로도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귀중한 사람들을 금방 싸움터로 떠나보낸 국장과 레연의 눈물은 그 눈물에서 반사된 감동의 여파에 지나지 않는 자기의 눈물보다 훨씬 더 뜨거우리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을 돌렸다.

눈물에 함뱍 젖어든 레연의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고난 국장은 심유순의 존재는 잊은듯 레연을 이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걸음 옮기던 레연이 심유순을 돌아보며 어서 가자는듯 방그레 불웃음을 지었다. 어린 소녀에의 천진한 웃음을 련상시키는 그 웃음속엔 조그마한 그늘도 없었다.

심유순은 조갈이 든 도톰한 입술새로 반짝 드러난 레연의 맞물림이 정교하고 류달리 흰 이발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숙였다.

어쩐지 레연이가 부러웠다. 자기보다 두살 아래인 그가 언니처럼 돋우보였다. 국장언니와 같은 높이의 어른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어느 소설에 쓴것처럼 미혼처녀를 완성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것이 아닐가?

텅 빈 행길위에 홀로 남은 자신이 갑자기 외롭게 느껴졌다. 주위가 텅 빈듯했다. 가슴이 허전했다. 마지막 승강대에 묵묵히 서있던 리백의 모습이 안개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도 혹시? 그럴수도 있어...)

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다면 나도?)

그는 문득 멈춰섰다.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아니야, 나에겐 그한테 안겨줄 아무것도 없었어. 또 그 동문 그저 한번 객기를 부려본것일거야. 레연의 제관공하군 달라.)

3

금방 수신통의 전보를 발신해보내고난 심유순은 까닭없이 호젓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정면벽에 붙어있는 선전화에 시름겨운 눈길을 건주었다.

(전략적후퇴때, 그 그림을 손수 떼가지고 갔던 우편국장은 재진격이 끝나자 그자리에 고집스럽게 다시 붙여놓았었다.)

전쟁 2년이 흘러간 오늘에도 그림속의 병사는 여전히 틀어진 주먹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기운껏 웨치고있다.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이즈음 심유순이한테는 고요한 시간이면 지금 같이 그 선전화를 바라보며 까닭모르게 심신을 틀어잡는 허전한 기분을 음미해보는 전에도없던 버릇이 생겼다. 그 습관은 우편국장의 돌연한 희생을 목격한 직후부터 생기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날, 적들의 폭격으로 끊어진 전화선을 이으러 심유순을 데리고나갔던 국장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의 기총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운명직전에 국장은 붉은피가 흥건히 내뻗 저고리 안섶에서 꺼내든 조그마한 수첩을 심유순의 손에 꼭 쥐여주며 간신히 말했다.

《유순아, 여기에 그이가 며칠전에 보낸 편지가 들어있다. 그인... 결혼식을 기념하여 집 마당가에 심어놓은 돌배나무에 밤새워 북을 주고는 다음날로 전선으로 떠나갔었지... 아, 그 돌배가 무르익었다고 회답편지를 쓰자고 했었는데 이렇

게... 그이에겐 내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이나 같았어. 그인 고집쟁이처럼 꼭 날 통해서만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인... 그이한테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어야 해. 다문 전쟁을 이길 때까지만이라도...》

말을 채 끝맺지 못한채 국장은 심유순의 무릎을 베고 숨을 거두었다.

심유순은 피묻은 수첩속의 편지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읽어낼 재간이 없었다. 글자들이 보풀에 묻힌우에 피로 얼룩진때문엔지, 눈물에 젖은 시야로 보는데문엔지 ...

심유순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가까스로 편지를 뜯어읽었다.

《습격을 떠나기전에 몇자 쓰오.

당신의 편지를 받았소.

돌배나무에 첫 열매가 달렸다면서? 당신의 낮익은 글줄에서 난 무르익은 돌배의 알싸한 향기를 맡는것만 같았소. 부디 잘 키우오. 자식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나무는 우리의 살불이나 같지않소?

여보, 당신은 편지마다 내 걱정인데 오히려 난 당신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수가 없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것이요. 이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날...》

심유순은 더는 편지를 읽지 못했다.

심장을 갈가리 찢어내는것만 같았다. 것처럼 귀중한 안해가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실망하랴 하는 생각에 억이 막혔다. 미국놈들에 대한 서리찬 미움이 새삼스레 가슴가득 치밀어올랐다.

아, 미국놈, 양교배기관 종자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생겼을가?... 저도 모르게 짝 옥문 이새로 뽀드득 소리가 났다.

그날밤 심유순과 레연은 어떻게 하면 국장의 남편에게 안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것을 알려줄가하고 궁리를 모았다. 생각끝에 안해가 팔을 상하여 대필로 써보내는것으로 합의를 봤으나 써놓고보니 《부상》이라는 말조차 그에게 시름을 줄것만같아 피묻은 수첩장을 뒤적이며 속을 쓰던 그들은 수첩장에 써여있는 짤막한 전보문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언젠가 남편에게 쳐보낸 국장의 전보문인듯했다.

《11월 17일, 고향에 첫눈이 내렸음. 건강을 빌면서, 당신의 안해.》

전보문에서 쳐드는 두 처녀의 눈속에선 눈물어린 불꽃이 번쩍하였다.

(전보를 치자. 그러면...)

하여 그날 국장의 피값으로 이어진 전신선을 타고 맨처음 흘러간것은 심유순과 레연이 눈물로 작성한 국장의 전보였다.

《9월 24일. 무르익은 돌배가 주인을 기다림. 상봉을 고대하면서. 안해.》

전보문을 부르던 레연이도 전건을 두드리던 심

유순이도 목이 콧 잡겨 흑흑 흐느껴 울었다.

레연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헉헉 삼키며 목놓아 우는 심유순을 달래었다.

《울지 말자요 언니, 눈물로는 싸움터에 나간 이들을 위해주지 못해요. 국장언니를 보세요. 그 래요,맞아요, 그네들한테 우리 언제나 살아있어야 해요.》

그 일이 있은후 그들은 매달 초순마다 국장의 남편에게 며칠씩 고심하여 만든 짙막한 전보를 쳐보냈다. 물론 국장의 이름으로였다.

그런 날이면 레연이도 제관공청년에게 길다란 전보를 손수 작성하여 보내곤했다.

고집스레 그 일을 해나가는 나날속에 레연은 점차 다른 녀자로 변해갔다. 말수더구가 적어진 대신 홀로 생각하는 때가 많아졌고 늘 웃음이 낄 실거리던 발기우리한뺨엔 파리한 엄숙이 항시 떠날줄 몰랐다. 제관공에게서 편지를 받은 날이면 말없이 일손을 다그치는것으로 그 기쁨을 소속들이 음미하는듯했고 편지가 떠지는 때면 중 무언 속에 가슴타는 피로움을 조용히 묵새기곤했다.

어떤때는 어느쪽이 먼저 선택하고 어느쪽이 후에 끌려들었던가 하고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손레연이 체험하고있는 신비롭고 독특한 세계를 온 육감으로 느끼는 심유순의 가슴속에도 전과는 확실히 다른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심유순은 두려움속에 그것을 느꼈다.

그의 눈앞엔 전선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주던 그날의 자기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자주, 더욱 선명히 부각되었다. 목멘 기적소리, 뺨을 타고 흐르던 후더운 눈물, 서로 부축하며 총총히 앞서 걸던 국장과 레연이, 텅 빈 길우에 외로이 서있던 자기... 심유순은 지금도 홀로 서있는 자기를 무시로 발견하곤하였다. 외로웠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그전의 단순하고 공허한것이 아니었다. 그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하고 어렵 못한 그리움이었다.

심유순은 아차하는 실수로 잃어버린 귀중한 그 무엇을 찾는듯이 때없이 허둥거리는 자신의 심정을 다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분주한 사업으로 들몰과 날몰처럼 엇갈려드는 감정의 회로에 맞서보았으나 사업은 사업이였고 감정은 어디까지나 감정이였다. 행복과 불안, 기쁨과 슬픔, 그리움, 기다림 등 레연이 겪고있는 모든것을 같이 나누는것으로 나날이 커지는 그 이상야릇한 그리움을 메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손레연의것이였지 심유순, 자기의것이 아니였다. 망연히 주저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는 때가 잦아졌다. 그러나 하늘은 흐릿하고 불투명했다. 가닭모를 마음의 변열에 속이 달때면 읊소재지의 변두리로 흐르는 강기슭에 나아가 내물에 손발을 적시기도 했다. 했으나 내물도 미적지근했다. 밝고 명랑한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 뜨겁거나 찬것에 대한 격렬한 욕구... 모든것이 꿈꾸듯 몽롱했다.

(내가 왜 이렇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제관공한테서 몇달째 소식이 끊어져 이즈음엔 레연이마저도 등지를 잃은 새처럼 불안에 몸을 떨고있었다.

심유순은 열혈이 멀다하게 편지를 띄워보내는 레연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몸에서 조금 활력이 느껴지는것은 날마다 한번씩 타곳에서 부쳐온 수백통에 달하는 편지들을 선별할 때뿐이였는데 그런 때 레연의 오목눈은 그 어떤 기대와 불안으로 파들파들 떨었다.

심유순은 그가 편지를 선별할 때마다 자기의 제관공의 이름을 찾는다는것을 알았다.

(그의 편지를 내가 먼저 찾아낸다면 그래서 레연을 깜짝 놀래운다면...)

심유순이도 어느때 읽는 관심으로 편지의 이름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유순은 편지앞에 마주설 때마다 제관공의 이름의 다른 한사람의 이름을 찾으려고 원심을 쓰는 자기를 발견하곤하였고 그때마다 스스로 놀라곤했다.

애간장을 끓이는 무언중의 그 일은 전쟁의 두번째 여름이 저물도록 계속되었지만 수백수천통에 달하는 편지와 전보속에 그들이 찾는 서로 다른 이름은 없었다.

두 처녀의 애간장을 말리며 오래동안 지속되던 그 기다림은 어느날 아침 드디어 끝나버렸다.

그날 아침도 무거운 심정에 짓눌려 우편국에 나온 심유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한 예감에 몸이 오싹해졌다. 책상에 엎드려 어린애처럼 엉엉소리내며 울던 레연이 불쑥 나타난 그의 손에 한장의 편지를 던져주며 기다렸던듯 목메여 부르짖었던것이다.

《언니! 그인... 그인...》

심유순은 불안에 살을 떨며 편지를 퍼들었다.

《... 난 지금 사단군의소에서 이 편지를 쓰요. 놀라지 마요. 큰 부상은 아니고 망할놈의 눈먼 파편조각이 허벅다리를 약간 긁어냈을뿐이요.

레연이, 용서하오. 난 오늘 중대친구들이 면회를 오면서 한몽테기 안겨준, 기다림에 아주 목이 멘 동무의 편지들을 보고서야 아차! 하고 머리를 쳤댔소. 병원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큰일이나 난것처럼 울며불며 야단할가봐 숨겼던 노릇이 동무에게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주었구만. 정말 미안하오. 내 맹세하는데 이제부터 한두자씩이라도 날마다 편지를 할테니 더는 속썩이지 마요. 정말 그러다간 이놈의 전쟁이 동무의 마음을 아주 재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말겠소. 젠장, 난 심장이라버린 레연인 싫단말이요.》

《바보! 싱겁둥이!》

심유순의 어깨너머로 편지를 따라읽던 손레연이 그의 잔등에 몸을 실으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그런것두 모르고 난... 무슨 생각인들

안했겠어요? 그없이 할머니가 되도록 홀로 살아가는 내 모양을 그려보구, 전쟁에서 팔이나 다리를 잃고온 그를 부축하여 걷는 내 모습도 상상해보구... 그런데 참... 아 언니! 그인 살아있어요. 그저 다리를 조금 굽혔을뿐이래요.》

청각으로가 아니라 심장의 궁글은 울림으로 그 목소리를 듣고있던 심유순은 불시에 눈곱이 젖어 들어 얼굴을 돌렸다.

벽에 붙여놓은 선전화가 부잇한 시야속에 흐릿하니 안겨왔다.

그림속의 병사는 박자틀린 보조를 맞추느라 헤덤벼치던 그날의 리벽의 모습으로 홀연 환원되었다가 아직 본적없는 초연에 얼굴이 검실검실 그 쓴 낯선 사나이의 모습으로 흐릿해졌다.

《동무, 동문 왜 소식 한장 없어요?》

심유순은 속으로 애타게 뇌이였다.

《그날 역두에서 손 한번 흔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참, 동무두 엉터리군요. 그날 어떻게 손을 흔들수가 있었겠어요? 내 가슴에 아무런것도 없었는데... 예?! 지금은 있는가구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

《모르긴 뭘 몰라?》하고 심유순의 잔등에 뺨을 대인채 흑-흑- 흐느끼는 레연이가 뻗히 올라다보며 묻는듯했다.

《그런데 언닌 왜 그렇게 심상해 있어요? 언닌 지금 그 동무의 소식을 기다리지요, 우표사려 자주 오던...》

《글쎄... 그 동무인지는 몰라도 그 누구인가를 기다리는것만은... 하긴 아무것도 안겨준것 없이 무엇인가 기다린다는게 우습긴 하지만... 아 지금 같은때에 나에게도 가슴에 차오르는 살뜰한것을 안겨줄 사람이 싸우는 이 땅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퍼내준것만큼 초연내서린 역세고 격렬한 그 무엇을 대신 채워준다면...》

그날부터 심유순은 날마다 조용한 시간이 차례지면 지금같이 선전화에 마주앉아 그림속의 병사와 이야기하곤하였다.

《동문 왜 소식이 없어요? 그날 정말 날 끌려주나라고 똥을 해본건가요?》

그림속의 병사는 틀어진 주먹으로 전선 어딘가를 힘차게 가리킬뿐 대답이 없었다.

4

하지만 기다리던 그순간은 왔다.

저녁교대를 조금 앞두고 그날 온 편지들을 지역별로 갈라놓던 심유순은 《아!》하고 비명을 울리며 손에 들었던 봉합엽서를 떨구었다. 책상위에 떨어져내린 편지의 결봉에 활달한 필체로 쓰여진 낯익은 두자의 이름이 화살처럼 눈에 날아들었다.

《...심유순동무앞》

《...리벽으로부터》

그는 자기를 또렷이 올려다보는 그 편지가 다치면 터져버릴 그 무슨 폭탄이라도 되는듯이 섣뜻 집어들념을 못했다. 두손을 가슴우에 포개었고 우두커니 섰 채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한동안 내려다보기만 했다.

마침 레연이 들어섰다.

그가 불가봐 얼른 편지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난 심유순은 점점 더 커지는 심장의 박동에 몸을 떨며 교대를 시작했다.

《전신기 정상, 일부인은 책상사람에... 편진 채 갈라놓지 못했어. 청소도 아직... 그럼 난 가!》

여느때없이 헤덤벼치며 근무를 넘겨주고난 심유순은 레연의 의심쩍은 시선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편국을 나섰다.

가슴이 활랑거렸다. 심장이 쿵쿵 흥벽을 때렸다. 락조비긴 강변으로 달려나온 그는 안주머니에 넣고온 편지를 꺼내들었다. 뜯었다. 읽었다. 간명한 인사말, 자기가 속한 사단이 이룩한 전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그날 동문 깜짝 놀랐을것입니다.

전선에 나간다는 그런 비상한 정황만 아니었다라면 난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해낼 용단조차 내리지 못했을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서투른 고백으로 한 녀성의 평온한 가슴을 놀래우고 떠난 나의 그 처사가 부끄럽고 죄스럽기 짝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2 년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오늘에야 이렇게 펜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난 전투직후의 고요한 순간이면 우리 발전소언제아래 백사장에서 목격한 두해전의 그 잊을수 없는 5.1 절운동회를 생각하곤합니다.

그날 발전기점검을 하다가 손에 그대로 망치를 천채 운동회구경을 나갔던 나는...》

《어마나! 그럼?》

심유순은 칼에라도 맞은듯 비명을 울리며 얼굴을 들었다. 어디선가 꼭 본듯하던 갈라져내린 머리모양, 5.1 절, 망치... 찌릿한 전율이 지나갔다.

웅원소리, 웃음소리, 환희, 흥분...

그날 심유순은 보물찾기경기에 출전했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것을 찾아가지고 오라.》는 한결같은 표를 주어든 청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5월의 강변에 흠여졌었다.

심유순은 표를 쥐자 무작정 강변과 잇닿은 산기슭으로 달렸다. 거기에 이맘때면 아침마다 한송이씩 꺾어다 자기집 창가에 꽂아놓곤하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정향꽃이 피어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꽃송이는 비록 화려하지 못해도 취할듯싶은 그향기로하여 심유순의 마음을 사로잡은 꽃! 하지만 유순은 우뚝 떴어섰다. 아직 정향은 피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것이었다. 그러면...

그러면 무엇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것은? 이날 내가 제일좋아해야 할것은? 돌아섰다. 실망에 겨워 터벌터벌 경기가 진행되는 언제아래 넓다

란 백사장으로 돌아왔다.

강변에 흠여졌던 선수들은 벌써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두고 달려오고있었다. 때늦은 철쭉을 한아름 꺾어안고 달려오는 처녀, 금방 갈아엎은 발에 달려가 흠을 한몽큼 들고온 농민청년, 기관구의 소문난 익살꾼 청년은 이미 온 거리에 소문이 자자한 자기의 약혼녀를 강짜로 끌고 나타났다.

쓰라린 패배감에 잠겨 구경군들한테로 돌아서던 심유순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는 망치를 보았다. 해빛에 번쩍거리는 자그마한 망치,

(5. 1 절, 망치!)

머리속에서 섬광이 번쩍 튕겨오르는듯했다. (저거다!) 망치를 향해 달려갔다. 덩석 잡아쥐었다. 《...저 이걸... 잠깐만... 줘!》

망치를 들고있던 청년은 웬 영문인지 알수 없다는듯 이마전에 갈라쳐내린 머리칼을 쓸어들릴 뿐 망치를 놓아주지 않았다. 심유순은 더 설명할 여유가 없었다. 분에 초를 다투는 경기가 아닌가?

사유는 경기가 끝난다음 찾아가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것이다. (할수 없지) 청년의 손에서 망치를 뺏아내려 했다. 그리고는 주석단을 향해 달렸다. 유순의 손에서 망치를 받아든 경기심판(군민청부위원장)은 그것을 높이 쳐들었다.

《망치는 근로의 상징, 로동계급의 징표, 노력에 기생하는 온갖 사회악을 짓부시는 무기! 이로 하여 로동계급은 태어났고 망치잡은 계급의 권리를 지키려 피의 일요일 5.1 절은 태어났습니다! 하여 좀 늦기는 했지만...1 등!》

이어 박수가 일어나고 와- 함성이 터졌다. ... (그러니 그가, 그사람이 바로 그 망치의 임자였던 말인가?)

심유순은 마치로 두드리듯 쿵쿵 울리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군민청부위원장이 높이 쳐든 해빛이 번쩍번쩍 부서지는 나의 망치가 커다란 메처럼 눈앞으로 확대되어 오는 순간 나는 가슴의 흉곽 밑에 심장이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느꼈던것 같습니다.

망치와 5.1 절, 망치와 처녀, 망치와 나, 그리고 처녀와 나...

나의 머리속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것은 그날 군민청부위원장의 억센 손에 나의 망치가 높이 쳐들린것이 아니라 동무의 높은 정신력에 <나>라는 존재가 5 월의 하늘가에 버쩍 올라선것 같았기때문입니다. 현훈증이 일어났습니다. 하여 나는 경기가 끝나고 동무가 망치를 돌려주려 나있는데로 다가올 때 그만 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그자리를 피해 발전소로 돌아오고말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망치를 찾으러 동무의 우편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망치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무를 다시 보는 순간 망치가 아니라<나>란 존재가 동무의 가슴속에 남아있는듯이 느

껴지면서 망치를 찾고싶지 않았던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가슴속에 자기의 존재가 자리잡고있다고 느끼는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데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나는 마음이 들썩해질 때마다 우편국을 찾아가곤했습니다. 물론 동무의 랭담한 태도를 뻔히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어느날엔가는 그 랭담성이 가혹한 면박으로 날아오리라는것도 예감했습니다. 그러면 하는수 없지요. 망치를 찾으러왔다고 자신을 변명하는것으로 딱한 순간을 모면할수밖에... 그렇게 되면? ... 그런중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전선으로 떠나오던 날 나는... 용서하십시오. 사실 나의 펜끝에 의하여 전보용지우에 찍여지는 그같이 엉뚱한 글줄에 나 자신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말이지 무례한 요구였다면 깨끗이 잊어 주십시오.》

심유순은 고개를 쳐들었다.

좌아- 좌-

언제너머로 떨어지는 물소리, 라는듯한 락조에 노을빛 거품을 날리며 흐르는 물, 물... 마음이 거뜨해졌다. 강물은 어느결엔가 그의 마음속에도 흘러들어 긴긴 나날 녀을 흐리우던 무겁고 피롭고 쓸쓸한 모든것을 말끔히 씻어내린건 아닌지...

유순은 희끗희끗한 바위가 웅크리고 앉은 백사장 한옆으로 걸여갔다.

5 월의 그날, 이 바위옆 어딘가에서 그는 리벽의 손에서 기름문은 망치를 빼앗았었다.

(놀라기는 그 동무가 더 놀랐을것이다. 무작정 망치를 빼앗았으니...)

바위옆에 깊숙이 인찍힌 그 누군가의 발자욱, 혹시 그날에 남긴 그의 자욱은 아닐가? 그의 숨결인듯 전쟁의 불비속에서도 웅- 웅- 전류의 노래를 읊조리는 발전소쪽으로 총총히 흘러간 발자취, 그것 역시 그날 망치의 임자를 찾는 나를 피하여 허둥지둥 발전소로 돌아간 그의 자취가 아닐가?

심유순은 그렇게만 믿고싶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그렇듯 지워지지 않는 포렷한 자욱을 찍으며 전선으로 달려간 그 아닌가? 처녀에게로 향한 발걸음은 그렇게도 소심스러웠던 그였지만 조국의 부름따라 달려나간 전선으로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힘찼다! 그 발자취는 심유순의 심장에도 남아있다. 아니 그렇게 인찍은 모든 병사들의 자욱은 이나라 녀인들의 가슴마다에 남아있다. 녀인들뿐이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어린 바래움을 받으며 싸움터로 떠나간 전선병사들의 가슴에도 그러한 자욱은 새겨져있을것이며 무시로 닥쳐드는 어려운싸움의 매 순간 그들을 고무하고 격려하고 따듯이 감싸안아줄것이다.

전쟁은 엄혹하다. 그러나 전쟁속에 태어나고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참되어지는 사랑은 그 어느

시절의 사랑에 비할바없이 소중한!

심유순은 벌이 총총 돌아나기 시작한 봄밤의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이 그려지는 그림속의 병사-몸집이 체소한 국장의 남편갈기도 하고 키가 꺾 두룩한 레연의 제관공 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초연에 그들은 리벽의 억세인 모습갈기도한 그 어떤 군복입은 사나이의 형용을 우러르며 중얼거렸다.

《한심하기두, 뭐 무례했다면 잊어달라구요?!》

심유순은 금시 달이라도 솟으려는데 희뽀해진 산너머 공간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고요와 엄숙이 깃든 저 공간속, 가증스런 적기를 찾는 탐조등의 눈부신 불기둥이 엇갈리는 저 하늘아래 어딘가에 그들은 있으며 싸울것이다. 작열하는 포탄, 귀부리를 스치는 총탄, 무너진 전호, 습격의 진창길...

《기다려겠어요, 부디 잘 싸우고 돌아오세요.》

가슴이 찡하니 울렸다. 난생처음 입에 올려보는 살뜰한 정에 겨운 속삭임이었다.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여 우편국의 자기 사물함에 정히 건사해둔 리벽의 망치를 손에 잡아보고 싶은 충동을 누를길이 없었다. 그의 손때가 올라 철맛이 있는 자루, 온 땅덩어리의 무게가 다 실린듯 높이 들어 힘껏 내리치면 그 무엇도 죄다 부서질것만 같은 망치! 그것은 리벽의 체취이며 녀이 아닌가! 불쑥 사무치는 그리움!

《아 아 언제면 모두들 돌아오는가요?!》

5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것이였다.

며칠전엔 비행기사냥군조운동시기에 적기를 다섯대씩이나 떨구고 영웅이 된 국장의 남편이 돌아왔다. 떠나기 직전에 그가 친 전보를 받고 우편국직원전체가 역전으로 마중을 나갔었다. 그때에야 안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된다는것을 알게 된 영웅은 다리힘살이 풀린듯 휘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영웅답게 주저앉지는 않았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맙다고, 동무들의 그 전보가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거듭거듭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끝없이 돌아오고 또 왔다. 돌아오기 앞서 그들은 짧다란 전보들을 날렸다.

《8월 ×일 ×차로 평양을 떠남》

《8월 ×일 ×차로 도착》

《손레연 앞 8월 ×일 ×렬차로 도착함》

레연은 나는듯이 역전을 향해 달렸다.

그뒤로 한송이의 장미꽃을 든 심유순이 따라섰다.

산촌역은 삼년전 여름의 그날처럼 사람홍수에 잠겨있었다. 마중나온 사람, 차에서 내리는 사람,

반가움에 젖은 부르짖음, 환희, 눈물, 포옹... 기다림도 이젠 끝났다. 상봉이었다.

급수를 하느라 방통들을 흠에 때놓고 칙칙거리며 급수탑쪽으로 빠져가는 기관차에서는 축복의 환영곡이런듯 연송 목멘 기적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유순이한테서 장미꽃을 받아친 레연은 덤벼치며 사람들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이기고 돌아온 용감한 병사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물결이 한덩이, 또 한덩이씩 갈라져 개찰구로 향했다. 흠에 짙은 집했던 사람들의 소용돌이가 수문을 빠져나가듯 점차 성기여지다가... 아주 텅비어버렸다. 쇠죽이 오른 갈색의 흠엔 둥글모자를 쓴 늙수그레한 조역과 치마저고리를 단정히 받쳐입은 레연이만 남았다.

(이 열차에 오지 않는가보구나.)

8월의 폭양이 재글재글 끓는 한낮의 포석우에 실망한듯 꽃송이를 내리뜨린채 서있는 레연이, 가없는 생각이 든 심유순은 그를 위로해주려고 천천히 다가갔다.

이때였다.

꼭 닫겼던 맨 앞 차문이 열리더니 산듯한 병사복차림의 웬 군인이 훌쩍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레연이!》

역사쪽으로 금시 돌아서려던 레연이 한순간 얼어붙은듯 서있더니 책 돌아섰다. 손에서 장미꽃이 털썩 떨어졌다. 몸이 공처럼 쟁충 뛰어올랐다가 떨어졌다.

《정범동무!》

나는듯이 달려간 레연은 무작정 제관공의 목에 매달렸다. 둘은 한덩어리로 되어버렸다. 담이 크고 통이 걸죽한 사나이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림에 지칠대로 지친 자기의 속을 말려준 제관공의 너부죽한 앞가슴을 마구 때리며 레연은 맥락이 닿지 않은 욕을 퍼부었다.

《차창으로 뻥히 보면서두... 고약해요, 고약해요.》

훈장이 서로 부딪치는 맑고 쟁쟁한 금속성이 무덤고 무거운 한여름의 대기를 조용히 흔들었다.

순간 심유순은 아찔한 미궁으로 떨어져내리는 듯한 환각에 고개를 돌렸다.

머리를 돌렸을 때 레연은 벌써 자기의 제관공과 함께 개찰구를 향해 걷고있었다.

심유순은 화끈 달아오른 포석우에 던져진 장미꽃을 주어들고 천천히 그들을 따랐다. 끊어졌다 이어지는 두사람의 목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훈장이랑 많이 탔군요.》

《레연이가 넘려하며 애써준 덕분이지.》

《아이참, 내가 뭘했다구... 자기가 세운 공로로 받은거지.》

《글쎄 나도 공을 세우느라고는 했지, 그러나 레연이가 없었더라면 난 아무런 공도 못세웠을거요. 그렇다니 말이지 내 이제 전선병사들의 이름

으로 나라에다 청원을 낼테요. 우리 전선병사들이 탄 훈장의 절반은 후방에서 싸운 여성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구, 사랑에 대한 표창으루 말이요.》

순간 유순은 전류마냥 가슴속으로 지나가는 짜릿한 아픔을 느끼며 열결에 손을 들어 심장우를 지그시 눌렀다. 전쟁의 나날 머리속에 인찍힌 크고작은 생각의 가다가락들이 불쑥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떠오른다. 레연이와 제관공, 국장언니와 영웅... 전쟁과 사랑, 조국에 바친 의무와 헌신... 그렇다, 위훈에는 표창이 있어도 그 위훈을 낳은 사랑에는 표창이 없는 법이다.

위훈이 곧 그에 대한, 참다운 사랑에 대한 표창으로 되는데문인가?

심유순은 우편국의 자기 일터로 돌아와서야 장미꽃이 그대로 자기손에 쥐여져있음을 알았다.

(꽃을 안겨주지 못했구나!)

눈을 감으니 기다리고기다리던 제관공의 가슴에 허겁지겁 안겨들던 레연의 모습과 함께 대기속으로 쟁쟁히 퍼져가던 훈장 부딪치는 맑고 은은한 금속성 음향이 귀전을 울린다. 소용돌이치는 진정과 태동하는 정열과 순결한 행복감으로 떨던 레연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든다.

《기다렸어요, 지치고 지치도록...》

그 진정, 그 열정, 그 뜨거움! 그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꽃이 어디에 있겠는가!

심유순은 벌써 시들기 시작한 장미꽃을 창턱우의 꽃병에 꽂아놓았다. 그리고는 옷매무시를 꼼꼼히 살피고 일손을 잡았다....

나날이 흘렀다.

심유순이도 손레연이도 전쟁전처럼 《전보》《송금》이라고 써붙인 관유리너머에 그린듯이 앉아 일을 계속 해나갔다.

얼핏 보매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는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무척 달라졌다.

레연은 눈에도 입가에도 그리고 전에없이 가끔 귀밑머리를 쓸어올리는 손동작에도 이름할수 없는 행복이 깃들어있는듯했다. 행복은 그의 가슴에 꼭 차고도 남아 그의 눈과 입과 손을 거쳐 어디론가 새여버리는것만 같았다.

심유순은 또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전쟁과 함께 덮어버린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였다. 전쟁전 그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용감한 꼬르차킨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지금 심유순의앞에 나타난 꼬르차킨은 전쟁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전의 꼬르차킨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어떤 매력이 있었으나 지금의 그는 그저 용감하고 강직한 기질의 소유자일뿐이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전쟁전의 그 소설책에 바로 주인공인만큼 꼬르차킨이 달라질리는 없다. 달라진것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심유순이었다.

그에게는 소박하면서도 용감한 자기의 주인공-리벽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귀중하였다.

그런데 그 귀중한 사람이 승리한 이해의 여름이다 가고 가을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것이다.

《동문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나요?》

전쟁은 끝났어도 맞은편 벽에 예전그대로 붙어있는 그림속의 병사에게 유순은 묻곤하였다. 그러나 병사는 전쟁때나 다름없이 고집스레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하고 호소할뿐 심유순의 물음에는 아랑곳 없었다. 그러면 유순은 말없이 닦고 쓸고 만지고 해서 말끔해진 리벽의 망치를 꺼내 보며 애원하듯 그를 불렀다.

《빨리 돌아오세요. 돌아와 떠나가던 그때처럼 이기고 돌아왔다는 글 몇자를 저 유리구멍으로 슬쩍 들이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둘이 손잡고 언제아래 그 강변을 걸으며 이 망치로 하여 인연 맺은 5 월의 그날을 되새겨보자요. 류달리 뜨거운 이해의 저 태양밑으로 동무 앞서고 내 뒤따라 숨이차도록 달려보지요. 아 동무, 말해보세요. 지금쯤 고향으로 달리는 어느 렬차의 승강대에 서있는건 아닌가요? 아니면 저 우체통뒤에 숨어서서 내모양을 가만히 지켜보는건 아닌가요?》

똑 똑 똑...

문득 관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에 심유순은 숨을 딱 멈추었다.

《전보용지 한장 좀 줄수 없습니까?》

조금거센 목소리.

속삭이다 만 가슴속의 애원도 잦아들고 흐르다 몇은 눈앞의 환영도 사라졌다.

전보용지를 한장 뜯어 탁우에 올려놓고난 심유순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앞탁에 구뭇하니 옆드려 전보용지우에 글을 쓰는 웬 군관의 모습이 유리너머로 안겨왔다. 구레나룻이 거뭇한, 나이 지속해보이는 소좌였다.

전보문을 다 쓰고난 군관은 그 어떤 기대와 불안이 어린 눈길로 심유순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다시 전보용지를 내려다보더니 후- 하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그것을 유리구멍으로 들이밀었다.

심장을 지그시 압박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보용지를 받아든 심유순은 만년필을 꺼내어 짤막한 전보문을 헤여내려가기 시작했다.

《심유순동무, 리벽동무가 돌아왔습니다.》

(?!)

얼굴을 들었다. 소좌는 돌아서서 창문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순간 유순의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났다.

《어디 왔어요. 어디요?!》

유순은 간벽문을 박차며 뛰쳐나갔다.

소좌는 출입문을 향해 달려가는 심유순의 팔을 잡더니 무슨 말인지 하려다말고 대신 그의 잔등을 동안뜨게 몇번 다독여주었다.

잔등에 와닿는 소좌의 손길에서 선풍한 그 무엇인가를 예감하며 출입문앞에 다가선 유순은 순

전히 첫순간에 받아안은 충동의 관성으로 문을 열었다.

눈부신 햇빛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현훈증이 일어났다. 잠시후에야 길 건너 읍중학교의 키낮은 담장옆 인도위에 쌍지팽이를 짊고 서있는 웬 군관을 알아보았다.

(아니?!)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출입문을 등지고 선 소좌는 처녀의 눈길에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하였다.

심유순은 후둑 후둑! 경련이 일으키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짹 누르며 길을 건너 쌍지팽이를 짊고서있는 군관에게로 급히 달려갔다. 서너걸음 앞두고 저도 모르게 우뚝 굳어졌다.

단정히 눌러쓴 군관모, 견장우에서 빛나는 두알의 별, 별에 타고 초연에 그슬려서 억세고 준엄해보이는 얼굴...

몰라보게 변하긴 했지만 그는 다름아닌 3 년전의 그 여름, 우편국의 전보용지우에 기다려달라는 조심스러운 요구를 남기고 초모생대렬을 뒤쫓아 바로 이 담장밑을 경충경충 뛰어가던 발전소의 그청년-망치임자 리벽이었다.

유순은 숨이 막혔다. 어째선지 강변에서 발전소로 그어진 한줄기 발자욱이 떠올랐다.

앞서간 초모생대렬을 따라잡느라 경충경충 뛰어가던 그 억센다리가 밟혀왔다. 목멘 기적소리, 우렁찬 군가...

자기의 무릎을 베고 운명한 우편국장의 인자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다. 《왜 멈춰섰느냐? 뭘 주저하느냐?》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겁고 뜨거운 눈물이... 그 뜨거운 눈물을 자욱자욱 휘뿌리며 달려간 심유순은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한발로 굳건히 서있는 리벽의 가슴에 와락 몸을 실었다.

《이제사... 이제사 돌아왔군요!》

우편국앞 길가에 나와 선 소좌는 유난히 희고 깨끗한 처녀의 손이 혼장이 주런이 달린 리벽의 가슴과 군관혁띠를 짹 졸라맨 허리와 기둥처럼 땅을 짹 짊고선 그의 성한 다리로 더듬더듬 미끄러져내리다가 다시 어깨위로 올라가는것을 눈물겹게 바라보다말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두... 그런데 두... 안오겠다구 황소처럼 뺨치더니... 봤지, 정치부중대장, 이 나라 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무렴 이 땅에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가 안길 품이 없을라구? 허허허.》

소좌는 어깨를 들썹거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우화시

한 젊은이

어떤 로작가를 찾아갔었다네
제가 쓴 몇편의 우화작품 가지고
그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젊은이는 돌보기를 벗은 후에도
쓰다 달다 말이 없으니
안달아난 젊은이는 말했네
-선생님, 그 어떤 혹평도
접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윽고 젊은이는 입을 열었네
-자네가 쓴 작품들은 괜찮네만
그와 비슷한것들을 이미 쓴 사람이 있네
라퐁페느란 사람이...

젊은이는 성급히 물었네
-대체 라퐁페느란 누군가요
젊은이는 의아스런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대답했네
-한 300 년전에 프랑스에 산

우화

조성관

유명한 우화작가였다네

그 어떤 혹평도 접수할 준비가 되었던
젊은이는 그만에야 폭발하였네
-그럼 제가 그것을 표절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라 아무개란 작가를 알지도 못하며
그의 작품을 읽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래 300 년 뒤늦게 태어난것이
저의 죄로 된단 말씀입니까?

젊은이는 웃으며 조용히 타일렀네
-나는 자네가 표절하지 않았다는것을 아네
우연한 일치라는것도 있을수 있으니
자네의 죄라 할가 자네의 잘못은
300 년 뒤늦게 태어난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지 않았다는데 있네

젊은이가 돌아간후에
젊은이는 혼자 중얼거렸네
-그가 써가지고 온 우화는 락제지만
그 젊은이야말로 우화감이로군

병사시절 언제나 평양과 함께

박세일

병사의 첫걸음을 시작하며

평양이여, 나를 키운 고향의 품이여
초소로 떠나는 나에게 너는 또다시
참으로 귀중한것을 안겨주고 있구나

만경봉의 솔숲은 그 푸른 빛으로
나의 군복 더 진하게 물들여주고
룡남산마루의 아침노을은
어깨의 전사령장 더욱 붉게 해주누나

학교길 오가며 눈에 익혀온
당중앙청사 보초병의 모습은
내가 배워야 할 초병의 자세

방학때면 찾아가던 전승기념관
거기 포연스민 공화국기발은

내 마음속에 품고 갈 기발
우러르니 해빛넘친 만수대언덕
아버이수령님 한손 높이 드시여
이름없는 이 병사를 바래워주시는가

오직 평양만이 줄수 있는 그것을
평양의 아들인 내가 받아안았거니
자, 이제는 떠나보자
보답만이 남아있는 병사의 길을...

금별의 찬란한 빛발에 휩싸여
내 돌아와야 할 고향이여
저기 보이는 인민군렬사탑
그 병사의 모습으로 달려와 안길
아, 평양 평양이여!

평양행렬차를 향해

저기 설령과 칼봉사이로
해살이 비쳐드는 이런 때이면 저기 설령과
칼봉사이로
평양행렬차가 산굽이를 돌아선다
내가 선 초소앞을 가까이 지나간다

그러면 후두둑-가슴속에 뛰는 생각
저 렬차만 타면 갈수 있겠구나
못견디게 그리운 내 고향 평양땅에
오늘밤중으로 가닿을수 있겠구나

하여 마치 고향길에나 오른듯
마음 절로 즐거워지는데
아서라, 저게 어떤 렬차나
어떤 사람들이 저기 타고 가느냐

저 차창가엔 비껴있으리

수령님께 보여드릴 춤노래 안고
예술축전 간다는 꼬마들의 눈빛이
풍년농사자랑안고 평양전학 떠난
청년분조처녀들의 떠들썩한 웃음이

아마도 저 렬차엔 타고있으리
수령님을 모신 큰 회의에서
석탄증산 토론할 영웅탄부아바이가
새로 만든 자동선반 도면을 안고
당중앙을 찾아가는 기계공장지배인이

장한 일을 해놓은 자식들마냥
아버이 계시는 평양으로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재촉하는 마음들이
저 급행렬차를 떠밀고가려니

한갓 나들이를 위한 사람이라면
선뜻 저 렬차에 오르지 말자
내 또한 고향행렬차라 하여
해놓은 일 없이 오르지 말자

군사복무라는 내 삶의 한구간에
충성의 열매만이 주렁졌을 때
평양행렬차여
나에게도 좌석 하나 내어달라!
평양으로 갈수 있는 자격을 달라!

옥류관 국수맛

종구나, 화끈한 철갑모 벗어제끼고
빙-둘러앉은 훈련장의 식탁
어허! 점심엔 국수가 올랐구나

목직한 그릇에 저가락 쿵 박고
칭칭 감긴 국수사리 풀어내자니
추억도 오리오리 풀어지는가

문득 생각난다 내 고향 국수맛이
일요일 저녁때면 우리 집 온 식구
즐거 찾곤하던 옥류관 국수맛이

대동강에 잠긴 보름달을 건져온듯
시누런 낫쟁반에 들어온 국수
식초랑 겨자랑 맞춘히 치고

내 고향 사람들의 후한 인심인양
듬뿍 놓인 고기꾸미 골고루 섞어가며
쭉쭉 들이키던 그 맛이란 참...

그래서 내 그 이야길 했더니
동무들도 저마끔 그 이야기

글쎄 옥류관 국수이야기

누구는 평양에 열병식 가서
누구는 후방견학 못있을 그날에
옥류관 국수맛을 보았다면서

함흥의 신흥관, 원산의 송도각
이름난 식당국수 다 가져다봐도
옥류관 국수 결에도 못간다나

나보다 더 성수가 나서
나보다 더 자랑하며
옥류관국수자랑 펼쳐놓는 동무들

그 모습 바라보며 나는 그저 싱글벙글
먹음직한 국수사리 줄줄이 풀어가네
마음속엔 칭칭 향토애를 감아가네

평양이 내 조국을 대표하듯이
아무렴 그해야지, 옥류관 국수도
국수중에 국수로 뽑히워야지

우리 평양에는 인민군렬사탑이 있다

우리 평양에는 인민군렬사탑이있다...
50년대의 전선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병사들
우리 당이 기억한 하나의 모습으로,
해방산언덕우에 서있다

한결음만 비켜서면
살수도 있었을 길을
곧추 맞받아 달려간 그들
이 땅을 파헤치는 원쑤의 총탄앞에
저저마다 가슴들을 내댔거니

죽음앞에 비겁을 모르고
조국앞에 배반을 모르는
아, 그런 병사만을 내세워주는구나
우리 평양의 인민군렬사탑!

나도 그렇게 살리라

말이나 지혜나 글로써가 아니라

피와 심장과 목숨으로써
병사답게 조국애를 표시하리라

하여 내 만일
여기 참호의 흙덩이에 불을 비비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해도

오! 나는 그것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리
고향땅을 다시 밟을수 없다고
추호도 서럽게 생각지 않으리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고향사람들
해방산언덕에만 오르면
아무때건 나와 만날수 있잖느냐

...우리 평양에는 인민군렬사탑이있다

나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엔 그저 배낭이 하나
손에는 그저 제대증 하나...
나는 이렇게 평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의 배낭에 너를 위해 캐낸
석탄 한덩이 없다고
나의 두손에 너를 위해 가꾼
꽃
한송이 없다고
평양이여, 아직은 나를 탓하지
말아다오
고향이여, 아직은 나를
나무라지 말아다오

그동안 몰라보게 달라진
평양의 모습앞에
그동안 많은 일을 해놓은
고향사람들앞에
가슴헤쳐 내 하고픈 이야기가
있나니

며칠째 계속되던 천리 강행군
처벌처벌 걸어간 나의
군화자욱이

창광거리여, 광복거리여
너의 로반을 다지어나갔다

쌍안경 렌즈에 낀 성예를
닭아내며
내 전호에서 지켜보던 그 푸른
하늘이
류경호텔이여, 5월1일
경기장이여
오늘은 너의 지붕우에
아름답게 비끼여있다

그리고 저기 개선문을
배경으로
결혼사진을 찍는
청춘남녀들이여
그대들이 누려온 사랑의 그
나날을
아는가, 병사들이 지켜주었다
비가 오면 비에 젖어...
눈이 오면 눈에 묻혀

더 이상 긴말이 필요있으랴
병사들 헤쳐가는 길아닌 길이
있어
락원의 넓은 길이 이 땅에
뻗어가고

병사들 지새우는 그 밤들이
있어
희망찬 아침이 약속되나니

평양이여, 땀자욱에 얼룩지고
색은 바랬어도
이 아들의 배낭을 기꺼이
받아달라
한 병사가 이 땅에 바친
성실성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보라

고향사람들이여, 나의 이
제대증을
대학졸업증처럼 펼쳐보시라
군사복무성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시라

인생에 한번밖에 안차례진
그 20대의 청춘을
조국의 전호가에 방패로
세워놓고
나는 내 고향 평양으로
돌아왔다

...나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늘가에 뿌려진 글발

리석

항쟁으로 날이 저무는 거리
피로 물든 포석우에
기와없는 지붕우에
삐라, 삐라가 날린다
휘몰아 휘몰아 날린다

-미제는 물러가라!
-《민자당》 타도하라!
거리를 누비며
물결쳐가는 어깨성우에
화염병 처든 손과 손들에
눈발처럼 하얀 눈발처럼
날리는 삐라의 글발이여

자주, 민주, 통일을 부르며

참을래야 더는 참을수 없어
터친
열혈청년학도들의 피타는
절규를안고
하늘에 뿌려지는 노한 웨침
바람을 타고 휘날리는 삐라
삐라

그것은 그대로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심장과 심장들에서 터져나온
결사의 웨침, 분노의 뉘이
아닌가

남녘을 휘몰아 덮는 눈보라
아닌
오, 전투경찰들이 미친듯이
쏘아대는
최루탄연기도 가리울수 없고
란무하는 파쑈의 광풍이
얼굴수도 녹일수도 없는
눈보라 눈보라

그것은, 오 그것은
이 땅우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추악한 파쑈의 무리들
력사의 쓰레기들을
매장해버리는 눈발처럼
온 남녘천지에 내린다

90년대 인간의 성격

윤상현

지금은 90 년대에 갓 들어선 때이다. 이제 그 초입에 서서 앞으로의 10 년간을 내다보면서 새로 등장하게 될 인간들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한다. 아름찬 일이지만 이 문제는 평론계의 집체적인 지혜를 모아 90 년대의 하루하루가 더 흘러가기전에 제때에 해명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새 년대에 들어선 첫걸음부터 90 년대의 전형들을 작품에 등장시켜야 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90 년대 새 인간성격에 대한 평론가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돌려지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일단 필자가 생각한 몇가지 내용을 미숙한것이나마 지상에 내놓는다.

1

년대는 시대의 한 구획이다. 력사의 한단락인 년대를 력사전체의 흐름에서 분리시킬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매 년대 전형들의 모습도 해당 력사적시대 전반에 관통되어있는 전형적인간의 특징과 고립시켜볼수 없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의 전형창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전력사적행정을 통해 매 년대들에서 시종일관 관철해야 할 문학사적과제이다.

90 년대인간의 전형적성격은 이 년대의 새로운 요구에 따르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라는 큰 전제와 테두리속에서 고찰된다.

한년대의 전형적인간의 성격은 시대전반의 흐름속에서만이 아니라 선행한 년대와의 계승적관속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주체문학사를 곰곰히 되새겨보면 그속에 뚜렷한 특징과 합법직성이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항일혁명시기 주체형의 투사들은 우리 인민이 낳은 영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주인공들인 원남의 일가와 꽃분이의 남매, 항일유격대원들과 공작원들 그리고 혁명가요의 서정적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해 알수 있는바와같이 항일혁명문학은 이 첫 세대의 영웅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을 구가하여왔었다. 그후 조국해방전쟁문학은 소설 《불타는 섬》, 《싸우는 마을사람들》, 희곡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 《바다가 보인다》, 시 《나의 고지》, 《조선은 싸운다》, 가사 《결전의 길로》 등이 보여준바와같이 공화국이 낳은 새 세대 영웅들을 주인공으

로 내세우고 그들의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빛나게 형상하였다. 천리마운동이 개시되던 시기 우리 문학은 김창혁, 리선자, 오명숙, 현우혁을 비롯한 천리마기수-시대의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세기를 주름잡는 천리마진군기상을 화폭으로 펼치였다. 숨은 영웅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고있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새형의 영웅들이다. 80 년대의 문학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복구건설시기,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함께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당이 내세워주는 80 년대의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힘있게 그려냄으로써 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할 영웅시대의 장엄한 진군에 발맞추어왔다.

항일의 영웅들, 조국해방전쟁 영웅들, 천리마대고조시기 영웅들, 숨은 영웅들...

우리 인민의 현대력사는 결국 대를 이어 영웅을 키워온 력사였으며 우리 문학도 대를 이어 영웅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온 그지없이 장하고 긍지높은 문학으로 발전해왔다.

영웅을 그리는데, 요컨대 이것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즐기치게 고수해온 우리 문학의 특징적인 전통이다. 우리 문학을 영웅적인 문학으로 부를수있는 근거의 하나도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자랑스런 전통을 계속 견지해나가야 한다. 1990 년대에도 우리는 이 년대에 새로 출현할 영웅들의 모습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 영웅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떼떽이 내세워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으로 자라나며 영웅적으로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는 우리 당의 의도에 비추어보아도 이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이 바로 현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며 90 년대는 물론 앞으로 먼 앞날까지 우리가 들고나갈 구호인것이다.

90 년대에도 영웅의 전형율! 이 말은 그 어떤 상징적인 호소가 아니다. 산발적인 몇몇작품에서 그리다마는것이 아니라 10 년간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기본이 영웅 혹은 영웅적인간의 형상으로 되여야 한다는 말이며 영웅을 그리되 영웅다운 영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영웅형상화를 위한 본격적이며 집중적인 창작전투가 벌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영웅형상작품들을 돌이켜보면 성과도 크지만 시정할 점도 없지 않다.

우선 일부 작가들의 관심이 현실의 영웅보다 전쟁시기나 복구건설시기,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지난 시기의 영웅들에게 더 쏠리고있다는 점이다.

지금 일부 작가들속에서는 전쟁시기나 전후복구건설시기, 천리마대고조시기를 그럴 때는 영웅을 주인공으로 삼으려 하지만 일단 현실주제를 잡았을 때는 영웅 아닌 인물을 내놓으려는 태도가 다분히 느껴지고있다.

80 년대에 나온 장편소설가운데서 성과작으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작품들과 장편소설 《너당원》, 《빈터우에서》, 《뜨거운 심장》, 《철의 신념》, 《붉은기》, 《첫 기슭에서》, 《대지의 아침》, 《탄생하는 계절》, 《청춘송가》, 《탄부》, 《야금기지》, 《동트는 강산》, 《태백산줄기》, 《갑오농민전쟁》, 《높새바람》, 《김정호》 등등을 지적할수 있겠는데 보다싶이 현실주제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못하다. 물론 중편소설까지 합치면 장중편소설분야에서 현실의 영웅을 그린 성과작들이 과히 적지는 않다.

그런데 단편소설과 시문학의 사정은 그보다 못하다. 단편소설분야에서 현실주제의 작품이 많이 나왔으나 그속에서 영웅형상소설이라 할만한 작품은 적으며 영웅형상작품의 파반수는 지난 시기의 영웅을 그린 작품이다. 시문학에서는 오늘의 영웅이든 지난 시기 영웅이든 영웅에 대하여 노골한 작품자체가 다른 류형의 작품에 비해 훨씬 적은 형편이다.

지난 년대에 영화문학에서는 확실히 현실의 숨은영웅, 숨은 공로자, 숨은 애국자들을 형상한 성과작들을 많이 내놓았다.

우리는 90 년대에 영화문학과 장중편소설분야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를 확대하여 오늘의 새 영웅을 그리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영웅을 그린 작품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인민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새로운 영웅을 형상한 작품인것이다.

90 년대에 영웅형상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점은 또한 영웅을 영웅답게 그리는 문제이다. 우리가 말하는 영웅형상작품이란 반드시 주인공이 영웅이라는것을 까밝힌 작품만을 의미하는것이아니다. 작품에 나온 주인공형상이 영웅다운 사상정신적 풍격과 위훈을 체현한것이기만 하면 구태여 영웅이라는 명명이 없이도 사람들에게 영웅의 형상으로 인정되게 되는것이다.

영웅적인것은 미학적질에서 정신세계의 숭고성과 행동의 담대성, 위훈성을 체현하고있다. 그런데 일부 작품들은 우리 시대 영웅들의 소박성과 평범성의 측면에만 집착하던나머지 도무지 영웅다운 위훈이 엿보이지 않는 인물을 영웅이라는 이름에 걸어 내세우고있다. 꾸준하고 말없이 겸손하기만 해서 영웅으로 불리우는 법은 없다. 정신세계의 숭고성과 실천행동의 위훈성을 소박성, 평범성과의 통일속에서 감명깊게 부각시키는것이 영웅형상의 근본요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여 또한 일부 작품들처럼 영웅의 비범성을 민

음이 가지 않게 기정사실화하거나 돌발적이며 인위적인것으로 조작해내서도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80 년대의 성과작들인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너당원》, 《빈터우에서》, 영화문학 《생의 흔적》, 《월미도》, 《열네번째 겨울》, 《도라지꽃》의 경험을 빛나게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90 년대의 전형이란 주체시대 전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혁명가의 전형이어야 하고 선행년대들과의 계승관계에서 볼 때는 영웅의 형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지 어떤 사람이 1990 년대에 고유한 영웅의 전형으로 되겠는가 하는데 있다. 전적으로 그것은 90 년대의 시대특징과 이 년대에 살게 될 인간들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90년대는 우리 인민이 커다란 포부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 희망의 년대이며 투쟁의 년대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여온 우리 인민은 오늘 력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전도를 결정하는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되며 따라서 전체인민이 커다란 포부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할 희망과 투쟁의년대로 된다는 여기에 위대한 1990 년대의 특징이있다.

무슨 일이든지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결정적인 전환점일수록 피동에 빠져 우물거리지 말고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주동적으로 정황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바로 90 년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새 년대의 격동적인 력사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영웅들, 바로 이들이야말로 1990 년대를 대표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으로 될것이다.

그런 영웅은 여러 류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류형은 《90 년대속도》 창조운동의 선구자들이다.

《90 년대속도》 창조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당에 의해 1990 년대에 처음으로 발기되고 이 년대의 전과정에 힘있게 밀고나가게 될 전인민적 총진군운동이다. 당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비롯한 모든 대중운동이 《90 년대속도》 창조운동에 총 지향되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90 년대속도》 창조운동이 1990 년대의 기본특징, 기본요구를 가장 전면적으로 체현한 운동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이 운

동의 선구자들이야말로 90 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되는것이다.

1990 년대에 새로 나타나게 될 영웅의 부류는 또한 《90 년대의 김진, 리수복》들이다.

《90 년대의 김진, 리수복이 되자!》 이것은 조선 인민군 제 2 차 사로청일군대회가 호소문을 통해 발기한 새로운 혁명적구호이다. 이 구호는 인민 군용사들은 물론 전국의 청년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을 격동시키고있으며 김진, 리수복영웅처럼 한 몸 그대로 격전장의 화구를 막는 육탄이 되어 90 년대의 진격로를 열어나갈 결심에 충만되게 하고 있다.

90 년대에 이밖에도 얼마나 많은 형태로 새 영웅들이 등장하게 될지 이자리에서 다 예상하기 어렵다.

2

그러면 90 년대 새로운 인간전형들의 성격적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과 의지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구호는 어느 재능있는 문필가의 펜끝에서 만들어진 명문장이 아니다. 이 구호는 우리 군인건설자들속에서 처음나온것인데 나오자마자 즉시로 90 년대의 첫 진군길에 오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넋을 들어잡았다. 지금 나라의 그 어디를 가도 이 구호를 볼수있으며 대지를 진감하는 이 구호의 우렁찬 메아리를 들을수 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의 구호밑에 탄광, 발전소, 철길 공사장으로 달려가던 투지, 그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랴!》는 신념으로 《70 일전투》, 《100 일전투》의 앞장에 섰던 기상, 그리고 80 년대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신념과 의리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달려온 충성의 맥박이 90 년대의 오늘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충천하는 기상으로 승화되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는 우뢰로 울린다! 이 피끓는 열정과 의지에는 당과 수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저한 확신과 당과 수령이 펼쳐준 90 년대의 웅대한 전략을 결단코 실현하고야말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맥박치고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지난 시기의 그것과 다른 새로운 높이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신뢰와 충성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견결하고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명령지시를 결단적인 행동으로 지체없이 실천에 옮겨 관철하려는 결단성, 위훈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비등되어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문학작품들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90 년대인간들의 이 견결한 충성의 각오와 결단적인 실천성, 위훈

성이 뚜렷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동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방어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공격전으로써 막아서는 난관을 맞받아나가며 역사의 위대한 진군을 주도해나가는 그러한 영웅적특질이 힘있게 부각되어야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신념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에 대해서는 80 년대문학에서도 강조해온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새로운 특질을 부각시키는 한편 충실성형상의 미학적질을 한계단 높이는것으로써 90 년대문학의 얼굴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버리자는 것을 호소하고싶다. 서정시 《어머니》는 충실성에 대한 직선적인 표현 한마디 없이도 당에 대한 힘모의 정을 얼마나 절절하게 노래하였는가. 90 년대에는 바로 이런 작품들으로써 명작풍년을 이룩하여야 한다.

1990 년대 인간의 성격적특징은 또한 혁명적라관주의와 랑만성이다.

1990년대란 20 세기의 마지막 령길에서 바야흐로 동터울 21 세기를 지척에서 내다보게 되는 때이다. 지금으로부터 26 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받아안고 모두가 흥분에 휩싸여있던 때가 어제같은데 꿈과 리상으로 그려보던 그 휘황한 전망이 현년대안으로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희망에 넘쳐 그려보던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그것이 오늘은 지평선우에 멀리 바라보이는 리상이 아니라 지척에서 자기의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현실적인 실체로 되었다. 온 민족이 반세기가 되어오도록 절절히 소망해온 조국통일의 성업도 그 실현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환희롭고 격동적인 시각에 우리 인민의 가슴이 어찌 희망과 랑만으로 부풀어오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오늘 인류의 자주화위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80 년대말부터 더욱 급격히 열을 올려 《사회주의의 소멸》을 부르짖으면서 반사회주의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이 소동이 90 년대에 한층 더 로골화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 공격의 화살이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 나라들에 집중되고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가장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이런 때 우리 문학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우리자신이 선택하고 우리자신이 세우고 운영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는 필승불패하다는것을 깨우쳐주며 패배주의, 비판주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랑만을 안겨주어야 한다.

90 년대는 이처럼 희망의 년대로서의 밝은 전망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랑만이 깃들수밖에 없으며 또한 적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극심해지게될 준엄한 정황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적라관

주의로 무장시켜야만 되는것이다. 어느모로 보든지 90 년대의 새 인간의 전형은 다른 어느 년대의 주인공들보다도 랑만성, 락관주의의 소유자로 되어야한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노래도 많고 웃음도 많으며 만난을 명랑한 얼굴로 이겨내며 필요하다면 자기의 심장이라도 꺼내들수 있는 랑만의 투사, 여기에 90 년대 주인공들의 특징적면모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 문단에서는 랑만성문제가 중요한 논의일정에 오른 때가 별로 없다. 왜그런지 이제는 랑만성, 랑만주의라는 말조차 들어본지가 오랜 감이 든다.

그러나 90 년대를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문학의 랑만성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볼 때가 아니겠는가.

누구나 목격한 일이겠지만 몇달전 텔레비존방송을 통해 랑만적인 노래가 소개되자 즉시 사람들속에 전파되었으며 지어 어린이들까지 흥얼흥얼 따라부르고있다. 그것은 이 가요가 매우 생활적이면서도 사람들의 랑만적인 정서를 강하게 자극시켜주기때문이다.

최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결혼식이나 생일을 축하하여 부를수 있는 생활적인 노래들을 주저하지 말고 대담하게 써낼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으며 지난 3 월 31 일 또다시 이 문제를 강조하시면서 당에 대한 노래를 랑만이 넘치게 창작할데 대하여 깨우쳐주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에게 밝고 락천적인 생활과 다양한 랑만적정서를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마땅히 90 년대인간들의 랑만적기질과 생활기풍이 강조되어야 하며 랑만적인 양상의 작품들이 레년에 없이 활발히 창작되어야 한다.

80 년대문학을 건설해오는 과정에 우리는 이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경험을 축적해왔다.

장편소설 《너당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주용녀가 공장으로 친히 찾아오신 장군님께 《장군님, 너무 녀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올리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가슴속에 넘치고있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신념과 락관주의정신이 집중적으로 울려나오고있으며 바로 그때문에 독자들의 가슴에 강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모든것이 채더미가된 폐허속에서도 이 전쟁은 벌써 이겨놓은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복구건설까지 문제없다고 확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랑만적이다. 작가는 그의 랑만성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어제의 눈물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모습과 몸매도 작은 외형을 강조한 다음 그런 녀인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려울것이라고 세계가 우려하는 나라의 복구건설을 자기의 작은 한가슴에 맡아안고나선 거인적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였다. 그 결

과 진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승리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오늘의 고생을 락으로 삼고 천만시련도 웃으며 막아설수 있다는 진리를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었다.

영화문학 《월미도》에서 리태훈중대장과 영옥의 형상이 그토록 잊혀지지 않는 여운을 남기고있는 원인의 하나도 성격형상의 질은 랑만성에 있다. 작가는 화선오락회세부를 둘러싸고 중대장과 영옥의 관계에 가벼운 극적굴곡을 조성시키면서 그들의 다감하고 인정적이고 락천적인 감정세계를 파고들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죽음앞에서도 웃음을 지을줄 아는가를 진지하게 감정을 축적하여 보여주었다. 바로 그토록 노래를 좋아하고 그토록 인정많고 락천적인 사람들이기에 정이 끌리게 되는것이고 그 희생에 가슴아픔을 느끼게 되는것이다.이 영화처럼 주인공들의 희생을 그리는 경우에도 희생되기까지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웅적특질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공감이가도록 잘 파고들면 성공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서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매우 경솔하게 취급하고있다. 아마도 주인공들의 영웅성과 랑만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우리 문단에 주인공이 희생되는 작품이 급격히 많이 나타나고있다. 그런작품이 단편소설은 물론 중편소설들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장편소설 《령마루》의 교훈을 돌이켜보아도 알수 있겠지만 우리의 문학작품 특히 현실주제의 작품들에서 불치의 병이거나 죽음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더우기 그것때문에 현실을 어렵게 그려보여서는 안된다. 혁명적랑만성은 어둡고 침침한 생활기분에서가 아니라 밝고 명쾌한 생활기분에서 표현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내 잦다는것부터가 벌써 우리 현실에서 전형적인것이 아닌 어두운 구석을 파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주인공을 희생시키기만 하면 곧 작품양상이 어두어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영화문학 《월미도》가 보여준바와 같이 긍정인물이 모두 희생되는 비극적인 생활이 펼쳐진 경우라도 작가가 그 주인공들의 랑만성을 얼마나 풍부히 돋구어 올리는가에 따라 생활을 얼마든지 락천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죽음을 그린 작품이 랑적으로 많이 나오고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그 죽음을 저조한 형상의도의 리용물로 랑용하고있는데 있다.

지금 주인공의 죽음을 그린 소설들중 일부 작품은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는 별치않은 범상한 사람으로 알았했는데 그가 일단 죽고보니 대단한 사람이였구나 하는것을 때늦게야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씌여져있다. 이 도식적인 줄거리 자체가 우리시대 영웅의 특질을 파상적으로 보고 안일

하게 꾸며낸 고안품이다. 사람이 죽어야만 영웅이 되는것도 아니고 죽음 그자체가 영웅적인것의 전부일수도 없다. 작품에서는 생존시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깊이있게 천명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중요하지 그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자체가 중요한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평범성의 외적측면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다가 죽음으로써 만사가 다 해명된듯이 형상하는 편향은 왜 생겨나는가? 죽음이란 원래 사람들에게 슬픈 감정이나 비장한 느낌을 자아내는 현상이다. 일상생활에 깊이 숨겨진 숭고한 정신적높이를 과고들만한 탐구력이 딸리는 작가는 대신 죽음의 그 속성과 효과를 리용하여 한몫 보려 하며 주인공의 죽음이 환기시키는 비감으로써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하는것이다.

새 년대에는 이런 얄고 비속한 창작태도에 자리를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랑만적인간을 그리자면 랑만주의적수법도 합리적으로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비록 이러저러한 부족점은 있으나 단편소설 《고향》에서 대담한 예술적과장과 비약, 날카로운 대조와 서정으로 등 일련의 수법을 리용하며 비교적 인상깊은 랑만적주인공을 형상해낸것은 우리 문학의 귀중한 싹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는 물론 지나친 과장과 레외적인 갈등, 특수하고 기괴한 정황조성, 비현실적인 인간형상화 등등 과거 랑만주의문학에서 상투적으로 써오던 수법을 그대로 본뜰수 없다. 우리의 랑만적주인공들은 오늘의 벽찬 투쟁과 생활속에 실지로 존재하고있는 현실 그대로의 산 인간들이다.

우리 주인공들의 랑만은 결코 현실화될수 없는 유토피아를 학수고대하는 공상의 랑만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품어온 웅대한 리상의 실현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는 인간들의 환희와 열정의 분출이며 새 년대의 그 높은 고지를 마음먹은대로 점령할수 있다는 나래치는 신심의 발현인것이다.

랑만주의문학을 비롯하여 과거의 그 어느 문학에서도 주체의 혁명관, 주체의 수령관에 기초한 랑만적주인공을 내놓은 전례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할수도 없었다. 90 년대의 우리 문학은 바로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불타는 심장도 웃으며 바칠줄 아는 불굴의 랑만적투사의 형상을 창조해야 하며 현대사실주의문학의 랑만성문제 해결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의 랑만성문제, 시대와 로동계급의 미학적요구에 맞는 새로운 랑만주의적수법을 탐구하는 문제는 문학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해명되어왔지만 90 년대의 우리 주체문학에 의해 보다 완벽하게, 보다 새로운 경지에서 개척되어야할 심중하고도 보람있는 과제로 된다.

1990 년대 인간의 성격적특징은 또한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풍부한 과학기술적소양이다.

과학기술적재능과 그에 대한 열렬한 지향은 80 년대 숨은 영웅들의 성격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던 특징이지만 90 년대 인간들의 성격형상에서도 의연히 중요하게 그리고 80 년대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강조되게 된다.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한층 더 미증유의것으로 되며 더우기는 90 년대의 웅대한 전망과 《90 년대속도》 자체가 높은 과학기술적안받침을 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사상의식이라면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과학기술지식이다. 오늘 나라들사이에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서로 앞서나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문화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이길수 없으며 90 년대 영웅으로 될자격을 갖추수 없다.

90 년대의 작품들에서는 마땅히 과학기술적으로 웅대한 지능과 탐구심을 갖춘 인간들이 위주로 주인공의 위치에 서야 할것이며 나아가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해나갈만한 높은 학식의 소유자들도 많이 내세워져야 할것이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것만큼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요구이다. 90 년대에는 과학자, 기술자들 특히 과학자영웅, 기술자영웅을 내세우고 그들의 발명과 창안활동을 힘있게 고무해주기 위한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인공들의 생활모습을 형상함에 있어서 90 년대 문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지금 우리 작품들에서는 첨단과학과 최신기술을 요구하는 현시대의 과학기술추세를 외면하고 수공업적으로 똑딱거려 만들어내는 기술창안들이 보다 많이 그려지고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재래식기술창안들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창안을 그리는 경우에도 촌티가 느껴지게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는 50 년대에도 보아온 그런 낡은 기술수준으로 떨구는데 대해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3대혁명전위들과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수천대의 각종 로보트를 제작하여 당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였으며 적지 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전자, 자동화공업, 첨단물리학과 생화학분야에서 놀라운 발명과 창안성과를 올리고있다. 90 년대문학에서는 바로 이런 성과들에 보다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경제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90 년대에 혁명적변혁이 일어나야 할 중요한 분야의 하

나가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경제의 관리운영을 과학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제를 크게 전진시킬수 없으며 90 년대의 방대한 전망계획을 수행할수 없다. 그런데 지금보면 기술혁명주제분야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창안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그리는것이 기본이고 관리운영의 과학화문제를 취급한 작품은 거의나 나오지 않고있다. 90 년대에는 이 빈틈을 반드시 메꾸야 한다.

지금 기술혁명분야의 생활과 투쟁을 그린 작품들에서는 일련의 도식적인 틀이 생겨나고있다.

보수주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 연구한것을 시험하다가 실패하여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더욱 기세를 부리고, 고집을 써서 다시 시험을 진행하고, 그래서 종내 성공했다는식의 판에 박은 이야기줄거리, 특히 새 기술 창안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마다 시험실패의 폭발장면을 한번씩 넣곤하는것이 거의나 도식화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3 대혁명소조원 김동무》라는 단편소설이 나와서 독자들의 일정한 좋은 반향을 일으킨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부터 이 소설줄거리를 닮은 《쌍둥이작품》들이 자주 나타나곤한다.

원래부터 어떤 창안을 시도해오던 한 지식인이 보수주의자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에 빠져 모든것을 단념해버린다. 그리하여 그 창안은 완성되지 못한채 파문혀버린다. 이럴 때 새로운 지식인(혹은 3 대혁명소조원이나 당일군)가 나타난다. 그는 이미 파문혀버린 그 창안을 애써 찾아내며 자포자기에 빠진 지식인을 적극 고무해가면서 기어이 완성한다. ...

아마 이런 정도로만 상기시켜도 여러 작품들에서 자주 보아온 줄거리라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인물을 부기사장, 부직장장 같은 《부》책임자급으로 설정하거나 긍정인물이 부정인물의 딸 혹은 친척과 사랑관계를 맺게 하거나 공부정관계를 기술혁신자와 보수주의자와의 관계로만 설정하려 하는것, 부정인물이 가망없는 기술창안을 벌려놓았다가 생산계획을 수행 못한 책임을 질가봐 창안을 한사코 반대한것으로 형상하는것, 도식적인 틀은 이밖에도 여러가지이다.

90 년대의 인간전형은 우리 력사에 처음 등장하는 새형의 영웅이다. 작가들은 그들의 새로운 면모를 예리하게 추구해들어가면서 온갖 도식의 사슬에서 벗어난 독특하고 생신한 새 년대의 전형들은 창조해야 할것이다.

90 년대의 과학기술적비약을 반영하려면 작가들 자신이 과학기술에 밝아야 한다. 지금 고티나는 수공업적창안들이 자주 그려지거나 우리 작품들이 가끔 과학자들의 물의를 일으키는것을 보면

많은 경우 작가들 자신이 과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데서부터 초래되곤한다. 작가는 박식가가되어야 한다. 적어도 자기가 취급하는 분야의 기술지식에서만이라도 어느 정도 정통해야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능세계를 체험적으로 파악할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마음놓고 깊이 파고들수 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향이 강렬하고 과학문화적소양이 풍부하다는것은 그만큼 지성도가 높다는것을 말해준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간들의 지성세계는 급진적으로 상승한다. 90 년대의 변혁은 인간자체의 개조에서도 뚜렷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며 이 과정에 사람들이 보다 높은 사고방식과 문화성의 소유자로 자라나게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새 년대에 등장하게 될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선행년대보다 한단계 뛰어오른 숭고한 지성수준으로 하여 또한 매혹적이어야 한다

문학에서의 지성도문제는 지금까지 심중하게 논의되어오면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있는 어려운문제이다.

인간의 지성세계는 그에게 생활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그 철학이 얼마나 심오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있는가에도 관련되어있으며 그의 사상문화적수양의 정도에도 관련되어있다. 이에 대해 누구나 말하면서도 창작실천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작가자신의 사고방식과 사색의 세계가 높은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데 있다.

90 년대에 우리는 작가들의 지성도를 높일데 대한 문제를 보다 심중하게 제기하고 작품의 지성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것과 아울러 20 세기의 지성세계를 총화할만한 높이의 인간전형들을 내놓도록해야 할것이다.

90 년대인간의 전형적특질은 이밖에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사회주의적애국주의, 혁명적동지에 등등 많은 측면에서 이야기될수있다. 그러나 90 년대의 전형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이며 영웅이라는 큰 범주속에서 고찰된다는것을 이미 앞에서 전제한 조건에서는 구태여 주체형의 인간, 영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타 일반적인 특질까지 여기서 다 언급해야 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

1990 년대는 문학사의 견지에서든 뚜렷한 전환의년대로 된다. 우리 문학은 바야흐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할만한 높이로 비약하기위한 력사적전환기에 처해있다.

이 기간에 우리 문학의 키는 확실히 몰라보게 달라져야 한다. 그 중요한 한고리는 90 년대의 새 인간전형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탐구형상해냈는가 하는데 있다.

모든 작가들은 90 년대의 전형창조사업에 힘치게 펼쳐나서자.

생활의 원근법

리창록

우리 생활이 담고있는 크나큰 의미를 어느 한순간에 다 깨닫기는 어려울것이다. 한것은 진리란 평범한 생활속에 존재하는 까닭이다.

내가 살고있는 경흥거리에 류경호텔이 건설되기 시작한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높이가 수백미터에 달하는 세계굴지의 건축물은 오래동안 우리 경흥거리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고있었다. 아마도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건축의 목격자라는 류다른 긍지일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번듯한 포장도로를 내놓고 우야 다니기힘든 건설장의 구내길을 리용하군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커가는 건축물의 모습을 직접목격하는것은 단순한 흥미거리만은 아니였다. 부서에 나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어야 할 일종의 의무감을 지니고있었던것이다.

나 역시 한동안 이를테면 105 층건물이 시내 어디서나 다 바라보이게 되기전까지는 그러한 《통신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었다.

어느덧 105 층건물은 주변에 있는 고층건물들의 키를 훨씬 넘어섰다. 바야흐로 한층두층 표고점으로 육박하고있었다.

어느날 나는 길가에서 우연히 마을아이들이 벌린 엉뚱한 《론쟁》에 가담하게 되었다. 105 층이 높다느니, 41 층이 커보인다느니하는걸보니 뭔가 오해가 생긴모양 같았다. 그들의 론쟁대상인 105 층과 41 층은 서로 손이라도 잡을듯 가깝게 있었다. 빨갈고 파란 세타우에 멜가방을 멘 애들은 인민학교 1학년생들인 인국이, 준혁이, 현일이들이였다.

《글쎄 41 층이 더 높아보일때도 있단말이야.》 이렇게 말하

는것은 애들중에서 키도 크고 얼굴도 넓죽한 준혁이다. 그 애 말대로 여기서 보니 파란색의 41 층건물은 키가 쑥 빠진 몸매 고운 처녀 같았는데 그뒤에 멀찍이 서있는 로케트형의 류경호텔과는 키가 서로 엇비슷해보이는가 하면 지어 더 커보이기까지 했다.

《체, 105 층은 말이야. 41 층보다 두배반이나 더 높은데 두?》 고지식해보이는 인국이가 불부는 소리를 했다.

《헐, 그럼 한번 더 보려무나. 어때, 41 층이 더 높아보이지?》 준혁이는 그냥 빼기였다.

《아니야.》 잠자코 서고만 있던 현일이가 끼여든것은 이때였다. 영민해보이는 눈동자가 반짝 빛을 뿌린다. 《전때 올라버지랑 모란봉에 놀러 갔을 때 봤는데 뭐. 저 105 층이 제일 높았어.》

1 학년생들만이 가질수 있는 의문이고 《론쟁》이였다. 그 내들과 얘기해보고싶은 충동을 느꼈을때 《아저씨요?》 하고 나를 띠여본 현일이가 물었다. 《왜 그럴까?》 내가 다가서면서 이렇게 의문부호를 꺼내들자의혹에 찬 눈동자들이 나에게로 확 쏠리였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자꾸나.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퍼들고 저기 서있는 건설자아저씨와 대비해보렴. 손가락이 건설자아저씨를 가리우지?》

애들은 저마끔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척 내밀고 내가 가르쳐준대로 마치 군인들이 목측으로 물체의 높이를 재일 때처럼 해보았다.

《엄지손가락이 아저씨를 다 가리웠어요.》 마침내 현일이가 환성을 질렀다. 이어 다른 애들도 동감이라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제 무슨 현상인지 누가

한번 말해보렴.》

그러자 애들은 눈동자를 깜박이며 고개를 가웃거리였다.

《그건...》 현일이가 먼저 말머리를 떼놓고는 주뭇거리였다. 내가 재촉을 해서야 《그건 가까이있는 물체는 커보이고 멀리 있는건...》 하고는 자신이 없는지 또 머뭇거리다.

《맞았다. 멀리 있는건 작아보이기때문이란다. 그걸 보고 <원근법>이라고 한단다!》

《원근법!》 애들은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큰소리로 받아외었다. 또하나 새 지식을 얻은데서오는 기쁨이 귀인성스러운 얼굴들에 활짝 피어났다.

나는 그 애들과 헤어져 살림집층계를 오르느라니 웬일인지 생각이 깊어졌다. 한것은 건설장가까이를 지나다닐 때마다 나 자신이 그런 모순에 사로잡히군했었다는 사실이였다. 고층건물들사이로 바라다보이는 105 층건물은 대비할수 없는 그 높이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애들 말처럼 엇비슷해보였다. 과연 원근법의 그단순한 리치를 리해하지 못한탓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생활에도 《원근법》의 리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항용 눈앞에 보이는것, 그 이상은 보려 하지 않는다. 그때문에 본의아닌 모순에 빠질때도 있다.

우리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려한것에 인차 현혹되어버리는 젊은이들을 간혹 볼수 있다. 희귀한 상품, 값진 물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이 가장 크고 훌륭해보이며 생활의 전부로 되겠는가?...

언젠가 나는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처남의 대학동창생과 자리를 같이 한적이 있었다. 일

본에서 귀국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을 거쳐 지금은 전자공학분야에서 한몫 하고있는 연구사였다.

그의 귀국은 썩고 병든 사회의 탕류에 물젖지 않은, 건전한 리성을 가진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권유에 따른, 아니 보다는 그자신의 심각한 체험의 귀결이었다.

그는 나에게 인간생활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었다.

《희망의 실현, 생활의 안정...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크고 귀중한것은 없을것입니다.

인생을 빛내주는건 딸라나 황금이아니지요.》

그 어조에는 생활의 깊은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일부 젊은이들에 대한 불만이 느껴졌다. 복잡다단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의 말이어서인지 의미심장하게 들려왔다. 생각해 보면 10 여만명을 헤아리는 귀국공민들, 그들이 《문명과 번영》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를 떠나온것은 일시적충동이나 단순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서만은 아닌것이다.

개인의 향락과 치부욕이 곧 《리상》이요 돈에 의한 만족이 곧 《행복》인 썩어빠진 사회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 낯은것과의 결별이고 새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이였다.

인간이 황금의 노예로 산다는것은 불행중의 불행이다. 자기수중에 돈이 없어지는 그 시각부터 그는 인간이 아니기때문이다. 사람에게 보다 귀중한것은 존엄, 자주적존재로서의 당당한 권리,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긍지이다.

나에게는 돈이 그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 대립과 불신, 반목과 질서,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는 썩어빠진 사회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있는 불행한 인간들이 보이는것만 같다. 제국주의자들의 비인간적, 반력사적책동이 빚어낸 물질생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의 빈궁화, 정치생활의 반동화로 자본주

의사회는 동물세계로 화해가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과 믿음, 화목과 친절, 정열과 생기를 찾을수 있으며 우리모두의 운명을 책임지고 영원한 생을 안겨주는 그렇듯 크낙한 사랑의 품, 뜨거운 손길에 대하여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희망의 실현, 생활의 안정, 영생하는 생명》, 마치 커다란 후사경을 마주한 심정이다. 그속에는 우리가 누리고있는 행복상이, 능력과 희망에 맞는 안정된일자리며 식의주걱정에서의 해방, 무상치료, 무료교육, 다름아닌 국가가 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고있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그대로 비껴있지 않는가.

굳이 먼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체험하는것이 그것이다. 나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무시로 받아안은 국가적혜택의 고마움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드문하다. 무상치료, 무료교육에 대해서는 어릴적부터 노래를 부르듯 외우며 자라다보니 그 고마움이 어느 정도로 큰것인지조차 못느끼고있으니 말이다.

한번은 집의 작은 애가 소화불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적이 있다. 한달후 그 애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인사도 할겸 담당의사를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치료에 쓴 혈액이며 고가약의 값이 천단위를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적이 있다. 늘 받고있으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국가적혜택, 그 고마움을 실감한것이다.

그러고보면 우리는 저도모르는사이 생활에서 어느것이 귀중하고 선차적인지조차 가려보지 못하고있는것이나 아닌지, 마치 원근법의 리치를 리해하지 못하던 그 인민학교 1학년생들처럼.

흔히 외국에 나가있던 사람들과 만나보면 첫마디에 조국이 그리웠다는 얘기다. 나서자란 고향의 푸른 언덕과 맑은 하늘, 단가슴을 적서주는 시원

한 물맛, 잊지 못할 우정을 나는 친지들과 벗들... 정든 그 모든것이 못내 그리웠다고.

그저 흘러넘길수 없는 애기들이다. 비록 그 땅이 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황폐화되였다고 할지라도 못건디게 향수를 자아내는것은 당연하거늘 향차 삶을 꽃피워주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뜨거운 은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하지만 거기에는 보다 높은 사색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거리가 주는 힘이라고 할지, 누구나가 느끼는것이지만 사색이 탁 트인 교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평양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도시인지를 대변에 알수 있다.

그리고 구름을 휘감고 까마득이 솟은 류경호텔의 크기도 더는 의심하지않게 될것이다. 그것은 우리가보다 큰 눈으로 볼수 있었기때문일것이다. 이렇듯 진리는 가장 단순하고도 명백한 사실로써 평범한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고있는것이다.

원근법은 말그대로 멀리 있는 큰 물체가 가까이에 있는 작은 물체보다 더 작고 희미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고 몸가까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만 보다 크고 훌륭한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있다.

그러나 사람들이여, 눈을 크게뜨라. 애국의 안목으로 자기조국, 자기 시대를 뜨겁게 안으라.

이제 세월이 흘러 력사의 시점에서 평가하게 될 우리 시대, 거룩함과 위대함으로 세기의 하늘가에 영광을 아로새길 로동당시대를!

나는 고개를 들고 대지에 든 든히 뿌리박고 창공높이 솟아있는 105 층, 거창함과 슬기로운 자랑인 류경호텔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체인양 우줄우줄 키를 솟구며 점점 나의 시야를 꽉 채우는것이였다.

썩어가는 아메리카 《에이즈》의 왕국

백인준

넌질거린다! 는질거린다! 아메리카
썩어가누나! 문드러졌구나!
《에이즈》의 왕국 아메리카

내 일찌기 젊은 시절에
아메리카를 벌거벗기고
《라체의 왕국》이라 진단한바 있거니와
그때 내 아직 좀 미숙하여
약간 《속단》하였됐노라

이제 와보니 아메리카는
《라체의 왕국》이 아니라 《에이즈의 왕국》
모든것이 폭폭 썩어가고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도덕도
북미합중국이 통채로 넌질넌질 썩고있다

한때 대서양을 건너간 양키들은
신대륙을 개척한다고 법석 떠들었다
모든것을 《양키식》으로 개조한다고...

《인디안은 인간이 아니다!
가죽이나 쓰자. 뼈다귀나...》
하여 가죽은 벗기며 장판지, 벽지로!
뼈다귀는 깎아 문손잡이로! 칼자루로!
서부활극이 벌어지고 총소리 높았다
록키산맥에
포연은 자욱히 신대륙을 뒤덮고
그속에서 《자유녀신상》이 거룩하게 솟아올랐다
하드슨강을 굽어보며

신대륙에 《새로운》 양키문화가
아편꽃처럼 오염하게 돌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폐결핵 제2기 처녀얼굴에
일시적으로 돌아나는 병적호조였다
300년이 채 못가 오늘 아메리카는
말기증상을 나타내며 전신이 썩어간다
《20세기 문둥병》 《에이즈》도 제3기

무엇이나 혼들어놓고 뒤집어놓고
뒤섞기 좋아하는 양키족속들은

(그러면서 《각텔》주를 혼합해낸건 그렇다치고
문둥병, 페스트, 코레라에
전쟁, 침략, 착취+ (푸라스)
마약, 갱, 테로... 온갖 죄악을 뒤섞어
(메이드 인 U. S. A 미국특산품- 《에이즈》)
바로 양키문명의 상징물이 창조되었다

혹시 말하기를 《에이즈》는
미체침략자들이 인류를 멸살하려고
1977년 《포트 데 크리크》실험실에서
《면역결핍 비루스》를 배양하여
감옥안 죄수들에게서 시험할 때 생겨났다고...

아니여라, 그것은 단순한 세균학적고찰
내 생리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니고 시인이건만
정치 경제적으로 역사학 료리학적으로 고찰할 때
《에이즈》는 양키문명의 종합체
그 역사발전의 필연적산물
미국의 특징이며 상징이여라

《에이즈》는 면역결핍증
단순히 병균에 대해서만 면역이 결핍되었나?
아니다, 지금 아메리카는
온갖 범죄에 대해 100프로
완전히 면역이 결핍되었다

이미 태내에서부터
팔라가 썩는 균을 마시며 태어나
살인, 략탈, 착취, 침략속에서 성장한 미국
그의 온 세포가 범죄로 빚어져있으니
인류문화가 수천년간을 길러온
그 어떤 량심도 도덕도 리성도
지어 인간의 본능도
그의 범죄와 타락을 막아낼
단 1프로의 면역-항생력을 가지고있는가?

미국의 모든 정책과 문화의 구석구석
껌데기와 내장, 꼭두부터 홍문까지
모세혈관으로 살살이 퍼진 그 맥독을
무슨 항생력으로 씻어낼수 있으랴

역대 미국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라
 핵폭탄을 두드리며 세균합지를 휘저으며
 《남조선은 우리거다, 원자탄도 응당하다》
 《빠나마도 우리거다》...
 《자유》를 떠들며 《평화》를 지껄이며
 인류앞에서 날치는 꼴을 보라
 입술에, 목덜미에, 턱에, 뺨에
 온통 파렴치, 철면피의 등창이
 문둥이등창같이 넋질거리고있지 않는가

미국회상하원 아래웃춤에 주련이 앉아
 조선에 대한 《제재》며 《남침방위》를 떠들어대는
 《에이즈》 제1기, 제2기, 제3기 환자들!
 손잔등, 코잔등, 심장벽에까지 더덕더덕
 제국주의등창이 감자알같지 않은가!

내 확신을 가지고 말하노니
 이제 미국은 틀림없이 《에이즈》로 죽으리라
 이것은 한낱 환상도 과장도 아니고
 《정치 및 도덕병리학》적근거가 확실한것
 그들이 잘 외우는 《성경》에 있듯이
 최후심판의 날이 왔다
 림종이 박두했다

세계를 향하여 경종을 울리노라
 지금 아메리카의 팔라상인들이
 코카콜라와 함께 미싸일과 함께
 세계도처에 《에이즈》를 수출한다
 《푸른 베레모》를 씌워 《핵배낭》을 메워
 《에이즈부대》들을 5대주에 파견한다

사람들이여 명심하라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양키들이
 이제는 문둥병에 걸려 구대륙으로 돌아오며
가사

인류가 창조해온 아름다운 모든것을
 저들의 피고름으로 뒤덮어버리려나
 20세기 행성우에 《에이즈홍수》가
 전설의 《노아의 홍수》처럼 범람케 하려나

한동안 지구를 뒤덮었던 파충류대신
 오늘은 양키야수들, 정신불구자들이
 이 아름다운 행성을 뒤덮으려나
 《아메리카식문명》으로 지구를 삼키려나

그러나 안되리라! 인간은 살아있다!
 인간존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주체의 부대가 나아간다
 인류의 량심과 문화가 고향친다
 《미제의 <에이즈>를 박멸하자!》
 《신성한 행성우에서
 양키<에이즈>세균을 소독해내자!》

나는 《세계보건기구》에 건의하노라
 《에이즈》의 박멸을 위해서는
 《와진》의 발명도 중요하지만
 《에이즈》의 소굴, 그 에미의 알집부터
 수술해내야 하리라고

불을 지르자 《에이즈》의 알주머니에!
 지난날 소박한 우리의 선조들이
 페스트와 코레라를 막기 위해
 그 오염지대를 불사른듯이
 《에이즈》의 알집, 《양키문명》에 불을 지르자!
 온 세계 사람들이여!
 정의와 량심의 화불을 높이 들고
 지구우에 생겨난 종처, 《에이즈》의 소굴
 미제의 몸통이에 불을 지르자!

아, 나의 어머니

김일규

나의 어머니는 이 아들 잘되기 바래
 낮이나 밤이나 젖은 손 마를새 없네
 열밤을 새워도 언제나 웃는 어머니
 아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사랑의 샘을 지닌듯
 퍼내고 퍼내도 그 샘물 마르지 않네

나라의 효자로 키우는 사랑 샘솟는
 아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흰서리 늘어만가도
 걸음마 메주던 그날의 마음이라네
 헛걸음 디딜세라 한생을 살피주는
 아 나의 어머니

조국과의 상봉

설진기

형제

대형승용차는 물매미잔등같은 몸뚱이를 번쩍이며 아스팔트길을 쾌속으로 달린다.

9월의 맑은 하늘에는 태양이 높이 떠서 천하를 뜨겁게 굽어보고있다.

차안에는 앞뒤골이 유묘하게 두드러진 해외교포-장병해가 창박에 눈을 팔고 앉아있다. 열려진 차창으로 흘러드는 시원한 바람에 반백의 긴머리카락이 즐겁게 춤춘다. 그의 곁에는 교포총국에서나온 안내일군과 경제실무일군의 부드러운 얼굴도 보인다.

장병해는 해외에서 피복공장을 경영하고있는 기업가이다. 그는 이번에 조국의 한 피복전문공장 합영을 협의할 목적으로 왔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조국과의 합영을 제기한것은 순전히 경제적측면만을 타산한것은 아니다. 더놓고 말하여 그는 조국의 경공업수준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 아무튼 그는 합영을 꼭 성사시키여 자기도 밋지않으면서 조국에도 기여하고싶은 마음이다.

이밖에도 그의 가슴속에는-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절절해지는 념원이 있다. 그것은 살아생전에 고향땅도 밟아보고 일가친척들도 찾아보고싶은 그것이다.

그는 해방전에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해외탈출, 고학... 명석한 두뇌의 덕으로 이루어진-돈많은 기업가의 외동딸과의 결혼,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로부터 대기업주에로의 곡절 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는 고향땅에 어떤 친척들이 살아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할 년세이지만 동생과 녀동생은 살아있다면 만나볼수 있겠는지? ...

조국방문을 앞둔 나날에 장병해는 그리운 동생을 만나는 장면을 눈앞에 그리며 잠도 끼니도 거의 잇다싶이 되였었다.

하지만 조국에 온 그는 혀를 깨물며 동생에 대한 말을 당분간 꺼내지 않기로 했다. 우선 첫째목적인-합영문제를 성사시킨 다음 고향땅도 밟아보고 동생들도 찾아보도록 하리라!- 그렇게 하는것이 어머니조국을 위하는 올바른 자세이라고 그는 자부했다.

아름다운 지방도시의 중심구역을 빠져나온 승용차는 유희시설들이 알락달락 전개되어있는 송림속으로 유유히 미끄러져갔다.

차창에 붙어앉은 장병해는 눈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풍경을 낚고 바라본다. 아직 전쟁피해도 다 가시지 못했다는 검은 선전만을 들어왔던 조국, 타국에서의 상상을 뛰어넘게 훌륭히 건설된

조국의 도시와 마을은 볼수록 더 아름답고 희한스럽게 느껴진다.

유원지를 통과한 승용차가 우람찬 공장건물들이 성벽처럼 련달린 공장지구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여기서부터가 공장구역입니다.》라고 하는 안내원의 말을 듣자 장병해는 다시한번 눈이 둥그래졌다. -자기의 합영대상기업소가 이렇듯 거창할줄은 미처 다 몰랐던것이다. 그는 합영의 성공이 벌써 내다보이는듯싶어 여간 흥그럽지 않았다.

정문으로 유유히 미끄러져 들어간 승용차는 기업소 지배인실앞에서 멎어선다. 안내원이 먼저 내리고 뒤따라 장병해가 내리였다. 그는 곧 청사안으로 안내되였다.

그들이 대리석장식이 눈부신 현관에 들어섰을 때-현관실 저쪽문이 펄쩍 열리며 앞이마가 유묘하게 두드러진 장년사나이가 급히 마주쳐나왔다.

장병해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그 사나이는 흠칫하고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다. 반사적으로 이쪽에서도 걸음을 멈추며 굳어졌다.

호흡이 멎는 한순간의 침묵... 번개를 일으키는 두 시선의 마주침!

안내원이 두사람을 인사시키려고 앞으로 나온다. 그는 먼저 장병해에게 상대방을 가리키며

《이 기업소 지배인입니다.》하고 소개했다.

해외교포는 구태여 소개시키지 않아도 되였다.

두 《기업가》는 대뜸 손을 맞잡고 열렬히 흔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다시금 뜨겁게 마주친다. 두사람의 입술이 부르르 떨며 금시 어떤 웨침이 터져나올듯싶은 순간이다.

《아니 이게 동생이 아닌가?》

병해는 팔을 짝 벌리며 이렇게 웨치려고 하였다. 허나 가슴속에서 솟구쳐나오던 그 웨침은 입밖으로 나오지 못한채 도로 삼켜지고말았다. 악수를 끝낸 지배인이 절도있게 몸을 옆으로 돌리더니 면담실쪽을 가리켜보이고 앞장서 걸어갔던 것이다.

장병해는 무안이라도 당한듯 얼굴이 화끈 달았다. 상봉의 예감으로 몹시도 흥분되였던 그의 가슴은 도무지 진정되지를 않았다. 두다리는 술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지배인의 뒤를 따라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그는 지배인의 옆모습을 부지런히 훑쳐보곤했다. 두번다시 보니 판사람 같기도 하다. 어렸을 때 그들 형제는 앞뒤골이 류달리 튀어나와서 《남북골》이라는 별명으로 불

리우군했었다. 어떤 사람은 《떡메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지배인은 머리칼을 잘 다듬은 까닭인지 뒤꽂이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를 않는다.

자칫했다면 큰 실수를 할뻔했다고 생각하며 그는 자기의 욕심스러운 마음이 빚어낸 착각을 두고 웃었다.

혹시 동생이 나를 미쳐 알아보지 못한것이냐 아닐가? 아니면 알아보기는 했으나 자신이 없어서 차마 입을 못뻔것이냐 아닌가?

하지만 장병해는 인차 도리머리를 흔들며 자신의 짧은 생각을 부정했다.

(그럴수 없다! 그럴수 없어! 아무리 자제력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친형의 모색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았다면야 그렇듯이 랭담할수가 있겠는가?…)

일행은 곧 남향반이 넓은 방에 들어섰다.

푸른 주단을 깔고 우윳빛 창가림을 드리운 면담실은 시원하고 아늑하였다. 한쪽벽에는 갈매기 때 날아에는 바다가풍경을 담은 대형조선화관이 걸려있고 다른쪽 벽에는 공장의 전경도가 걸려있었다.

장병해의 일행은 지배인이 권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공장전경도에 눈을 팔았다.

지배인이 제때에 일어나 전경도앞으로 다가갔다. 지시봉을 든 그는 전경도를 짚어가며 공장의 연혁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력갱생이라는 말과 떼놓을수 없는 공장의 역사를 들으며 장병해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마음속으로 삼가 경례를 드리었다.

지배인의 설명은 명료했고 마디마디에 박식과 공지가 풍기었다.

《전후에 일어난 우리 공장은 보잘것 없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몇명의 녀인들이 몇대의 재봉기를 들여놓고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정이 기계화, 자동화되었고 생산능력과 품질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장병해는 지배인의 말꼬리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보면 볼수록 동생같은 생각이 짙어갈뿐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더덕더덕 기운 경충한 홀바지춤을 부어잡고 잡자리를 따라 뛰어다니던 어릴적동생의 모습이 불쑥 떠오른것이었다.

병해는 문득 지배인과 시선이 딱 마주쳤다. 그 순간 병해는 온몸에 짜릿한 전류를 느끼며 지배인도 지금 자기와 꼭 같은 심경에 처한듯한 느낌이 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장병해는 버릇처럼 도리머리를 흔들며 지배인의 말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럴수 없다! 그럴수 없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다시금 쓴웃음을 보내었다.

더벅머리 나무군아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까막눈과 특급기업소의 지배인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생각... 동생의 불꽃 없던 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있어-그는 자신도 그 시절

에는 까막눈이었었다는 사실마저 미쳐 헤아리지 못하는것이였다.

연혁사청취가 끝난 다음-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하고나서 일행은 생산현장으로 나갔다.

공장구내는 휴양소를 방불케 하리만큼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려졌다.

장병해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았다. 지배인이 공정을 설명했고 손님이 질문을 던지면 서슴없이 명확한 답변을 주었다.

현장에서 다시 면담실로 오는 길에 장병해는 지배인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언지시 물었다.

《혹시 외국류학을? ...》

《아닙니다. 나는 평양경공업대학 출신입니다.》

병해는 눈이 둥그래지며 지배인을 돌아보았다.

《그 대학에는 유능한 교수들이 있는모양이지요?》

《있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만해도 학장선생님 이하 박사만 해도 다섯명이나 되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병해는 실례를 깨닫고 머리를 깊이 수그리었다. ...

실업가의 남다른 안목으로서 첨단기술로 장비된 생산공정들을 훑어본 장병해는 다시한번 마음의 흥그러움을 느끼었다. -그는 조국의 경공업을 믿지않고, 합영에서 혹시 밀지거나 앓을가- 우려했던 자신을 면구스럽게 느끼지 앓을수가 없었다.

면담실에서 그들은 여러가지 실무적인 토의를 마치고 합영문건을 작성하기로 기꺼이 합의를 보았다.

면담은 예상외로 빨리 끝났다. 무릇 자본가들 사이의 면담은 상대방을 속이며 속히우지 않으려는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흐르기마련이지만 두 《지배인》은 자기권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고집조차 부리지 앓았다. 그들은 서로 양보하는 립장을 견지했었다. 면담형식은 실무적이었으나 시종일관 《혈육》의 정이 흘러넘치었었다.

면담실벽에서는 그들의 사업성과를 축하하듯 조국의 푸른 바다가 좌와 설레이고 갈매기들이 아욱아욱 행복의 원무를 추고있었다.

면담과정에서 장병해는 지배인의 기술실무능력에 새삼 감탄했고 위압감마저 느끼었었다.

(나에게 이처럼 똑똑한 동생이 있다면! ...)

장병해는 그러한 욕심을 또한번 부려보며 속으로 머리를 젓는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지배인을 자기의 동생으로 착각한 일이 어처구니가 없게 여겨진다. 두드러진 앞이마와 우묵한 눈확도 처음과는 다르게 보여지는것이다.

타자실에서 넘어온 문건에 수표를 하려고 두 《지배인》이 나란히 앓았을 때였다.

탁상우에 펼쳐놓은 합영문건을 훑어보던 장병

해는 지배인의 이름을 들어다보는 순간 바늘에라도 찢린듯 움찔 했다.

《장병규!》 눈이 시도록 보고 보아도 지배인의 이름은 《장병규》가 틀림없었다!

그는 지배인을 께 돌아보았다. 구령이라도 받은듯 지배인도 이쪽을 돌아본다. 황황 불타는 두 눈길이 마주쳤다.

환성을 터치기 직전의 숨가쁜 정적!-

장병해가 먼저 벌떡 일어섰다. 지배인이 뒤따라 일어섰다.

두팔을 앞으로 내뻗치며 장병해는 목메여 부르짖었다.

《병규야! -나를 모르겠느냐?!-》

《네?! ...》

《나다! 내가 네 형 병해다!》

《아니, 그럼... 정말! ...》

《병규야! 이놈아!》

《형님!-》

두 형제는 가슴에서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힘껏 그러안았다.

서로서로 꼭 부둥켜안은 그들의 몸은 그 어떤 힘으로도 떼어낼수 없을것만 같았다. 하나로 맞붙은 가슴을 통하여 수십년동안 끊어졌던 혈육의 정이 사뭇치며 흐르는 소리가 금시 들리는것만 같았다.

이윽고 장병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병규야! 너를 이렇게 만날줄은 정말 몰랐구나!-》

병규도 뜨거운 눈물을 줄줄이 흘리었다.

《나도 형님이 이렇게 살아계실줄은! ...》

《이게 생시가 옳기는 옳겠지?-》

장병해는 량손으로 동생의 두어깨를 그리잡고 정녕 꿈이 아닌가를 확인하듯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더벅머리 나무꾼아이, 낫놓고 기숙자도 모르던 까막눈... 하지만 오늘은 큰 기업소의 위풍당당한 지배인! ...

어느덧 미칠듯한 흥분을 가라앉힌 장병해는 미안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생의 어깨우에 올려놓았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었다.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으며 제자리로 돌아온 그는 정중한 태도로 동생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사사로 국사를 지내 침범한것 같구먼. 지배인님! 어서 먼저 수표를 하십시오.》

동생도 레절바르게 상대를 앞에 내세웠다.

《사장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아니 먼저!...》

《먼저!...》

동생이 강경하게 버티었지만 장병해는 기어이 조국의 지배인이 먼저 펜을 들도록 했다.

그것은 조국앞에 드리는 그의 인사였다!

조약들

(장병해가 살아있다니?!...)

그것은 실로 꿈같은 사실이었다.

동령협동농장 영예관리위원장 최일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줄 알았던 소꿉시절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철도역으로 달리는 길이다. 그는 애송이 자동차운전사를 자꾸 다물아댄다.

《애, 무슨 차가 이렇게 굼벵이같으냐?》

《원 위원장아바이두! 최속인데두요.》

《쫘쫘쫘...》

최일구는 혀를 차며 목을 빼들고 정거장쪽을 내다본다. 러객렬차 도착시간이 다되었다.

《도대체 장병해란 어떤 사람이예요?》

운전사가 앞을 주시하며 넋지시 물었다.

《기막힌 사연이 있지...》

자동차는 획-획-바람을 일쿠며 남대천다리로 돌진한다.

지난날 슬픔과 불행만이 넘나들던 초라한 나무다리 대신에 오늘은 기쁨과 행복만이 넘나드는 콩크리트다리가 만년대계로 놓였거니! ...

최일구는 자동차의 진동에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맑은 물이 유유히 흘러내리는 강심을 흐뭇히 바라

본다.

《여보게, 좀 세우게!》

자동차가 다리를 넘어서는 순간 최일구가 웨쳤다.

《왜 그럼니까?》

급제동을 건 운전사가 눈이 둥그래서 돌아본다.

《저 기적소리가 들리지 않나?》

산굽이를 돌아가는 먼 기적소리가 자동차의 발동소리를 누르며 들려왔다.

《한발 늦었어. 이제 정거장으로 나가서는 만나지 못해.》

최일구는 잠시 생각했다. 고향땅에 들어선 장병해가 제일 먼저 찾아갈곳이 어디겠는가?...

《방치골쪽으로 가자구! 아무래도 누이동생네집에 먼저 갈테니까.》

방치골로 가자면 다리목을 벗어나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을 타야 했다. 운전사가 차를 다시 내몰려고 준비하는 때였다.

철도역으로 통하는 큰길 저쪽으로부터 하늘밑 승용차가 쾌속으로 미끄러져오는것이 보였다. 초가을의 찬란한 해빛 이 차창에서 억만구슬로 부서진다.

《저게 그 차가 아닐가요?》

《...》

최일구는 말없이 승용차를 지켜보았다.

다리를 건너갈줄 알았던 승용차는 다리목에 이르러 속도를 죽이더니 바로 최일구네 화물자동차의 코앞에 와서 멈춰섰다.

차문이 량쪽으로 열리며 여러 사람이 내린다. 젊은 신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람진 체격의 사나이가 차안에서 나온다.

사나이의 얼굴이 이쪽으로 돌려지는 순간 최일구는 《아! <떡메팔>! …》하고 탄성을 내뿜었다. 앞뒤골이 유묘하게 두드러진 그 사나이는 분명 장병해였다!

길옆에 우뚝 멈춰선 장병해는 남대천기슭을 정신없이 바라보고있다.

최일구는 가슴속에서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을 하는것 같았다. 그는 짧은 시절의 기운이 되살아나 자동차운전실에서 가볍게 뛰여내렸다.

장병해는 해별이 눈부신 강기슭의 모래불을 향해 언덕을 내리고있었다.

최일구는 그에게로 바빠 다가가며 소리쳤다.

《여보게! 자네 장병해가 아닌가!》

사나이는 걸음을 멈추며 천천히 돌아선다. 반백의 최일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장병해는 입을 쩍 벌리며 두팔을 내뻗었다.

《아, 최일구?》

《옳네! 내가 최일구야!!》

두 사나이는 마구 달려가 힘껏 부둥켜안았다. 주름진 불을 맞비비며 잘못보지 않았나 확인이라도 하듯 얼굴을 보고 또 본다. 두쌍의 이슬 고인 눈들이 마주쳐 번개를 일으킨다. 그 번개속으로 수만마디 의 불같은 대화가 오간다.

이윽고 최일구가 젖은 목소리로 먼저 말했다.

《자! 어서 우리 집으로 가세! 가만, 그런데 자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여기까지 왔지.》

《으음?》

《여보게! 나는 고향을 떠난후 이 강변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네! 꿈에서 수만번도 더 찾아왔던 이 강변일세!》

장병해는 가득히 깔린 강가의 모래불을 행복스레 바라본다.

최일구는 친구의 심정을 제판으로 생각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넘쳐나는 모래불에 눈을 주었다. 띄약별에 피부를 태우던 뜨거운 모래불, 매일 같이 승부를 다투던 씨름터, 배고픔을 잊게 하던 낚시터도 거기에 있었다.

친구의 팔을 놓은 장병해는 더 참을길이 없는듯 강가로 경정경정 뛰여간다.

고향의 하늘은 한정없이 푸르렀다. 비취색 하늘중천에 노고지리 높이 떠서 풍년노래 읊조리고 청제비들이 종횡무진으로 하늘을 썰며 공중교예를 펼치고 있다. 수정같이 맑은 강물은 강바닥의 굴곡을 몽글몽글 나타내며 고향의 노래를 쉬임없이 주절거린다.

허둥지둥 강가로 달려가던 장병해는 모래불에 이르러 걸음을 툇 멈추며 취한듯이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새하얀 모래불에는 여러가지 색깔의 조약돌들이 아름다운 문양처럼 다문다문 박혀있다.

《아! -》

장병해는 가슴이 터지는듯 탄성을 지르더니 모래불에 어푸러졌다. 두손으로 고향땅을 쓰다듬어

안으며 거기에 뺨을 대고 마구 비비어댄다. 후! 후! 격정에 흐느끼며 몸부림을 치듯 어깨를 떠다. 뒤미처 간 최일구는 친구의 곁에 멈춰서서 어깨숨을 몰아쉬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하늘의 태양도 이 격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잠시 걸음을 멈춘듯...

이윽고 장병해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쳐든다. 이 세상 행복을 다차지한듯 만족에 취한 표정으로 그는 조국땅을 든든히 밟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옷자락을 헤치더니 앞가슴에서 자그마한 주머니를 꺼내었다. 새빨간 천으로 만든 주머니였다. 주머니속에서는 새알같이 하얗고 반들반들한 동그란 물건이 나왔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그의 일거일동을 의아히 지켜보고있다.

《여보게, 이 조약돌이 기억나나?》

하고 장병해는 친구에게 손에 든 물건을 내보였다

최일구는 물건을 받아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가까이 가져다보았다. 조약돌이 분명했다. 그들의 발밑에 가득히 깔려있는 고향의 조약돌과 다른없는 돌이었다.

불현듯 최일구의 머리속에는 수십년전 그날의 일이 선해졌다.

총을 멘 왜놈순사, 징병에 끌려가는 마을청년들, 남대천다리목에 메아리치던 어머니들의 통곡소리...

다리목에 들어선 장병해는 몸을 돌려 고향산천을 둘러보았다. 그의 서글픈 리벌의 눈길이 물푸른 남대천가를 더듬고있을 때 동갑나이이지만 생일이 몇달 늦은탓에 다음기로 징병에 나가게 된 일구의 눈도 친구와 더불어 강가를 헤매었다. 소꿉시절부터 함께 뒹굴던 강민의 백사장에 깔린 일매지게 고운 조약돌!

완구를 모르고 자라던 그들에게는 강변의 조약돌이 으름가는 장난감이였었다. 때로는 소꿉놀이의 《감자떡》이 되기도 했고 썸세기를 익히는 《산관알》이 되기도 했던, 그래서 언제나 호주머니에서 절그덕거리던 잊지 못할 조약돌!

왜놈순사의 욕설에도 아랑곳없이 병해는 강가로 급히 내려가 한동안 돌아치더니 꼭고 잘 생긴 얼룩돌을 하나 골라쥐고 올라왔다. 그거라도 몸에 간수하고 가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것만 같은 심정에 쫓기며 그는 친구를 끌어안았다.

《일구야! 잘 있어라!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떠나간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 장병해의 품에서 그 조약돌을 다시 보게 될줄이야! ...

오랜 세월 만지고 만지며 거울같이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맨들!

《나는 일생동안 그 돌을 가슴에 품고 다니였네! 나에게 있어서 그 돌은 내 생명의 수호신이나 같았지.》

...한번은 그 조약돌을 영영 잃어버릴뻔한 일이 있었었다.

왜놈장교가 병영에서 회중시계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계를 찾는답시고 병졸들을 밖에다가 일렬횡대로 세워놓고 몸수색을 진행했다. 병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뚝처럼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릴뿐이었다. 장병해의 앞가슴을 만지던 왜놈장교가 갑자기 환성을 지르며 병해의 옷주머니를 들어쥐었다.

《최소! 도적놈이나 여게 있다!》

병해가 설명할 사이도 없이 호주머니를 뒤져낸 장교는 시계대신에 나타난 돌맹이를 보자 항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 무안에 취한 장교놈은 조약돌을 틀어진 주먹으로 장병해의 사근코를 들이질렀다. 병해의 코에서는 선지피가 쏟아졌다. 악에 반친 장교는 땅에 떨어뜨린 돌맹이를 풀발속으로 냅다 차던졌다...

차디찬 병실에서 장병해는 부어오른 코잔들을 어루만지며 잠들지를 못했다. 수천리밖에 두고온 고향땅을 그리며 그는 슬피슬피 눈물을 흘렸다. 고향생각이 깊어갈수록 빼앗긴 조약돌 생각이 간절해졌다. 밤마다 고향땅과 상봉하듯 두손으로 쓸어만지곤하던 귀중한 조약돌! 그러면 만사름이 잊혀지고 어머니의 애무를 받는듯 행복에 취하여 꿈나라로 가게 해주던 사랑하는 조약돌! ... 그 손때묻은 돌을 다시 만져보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문밖에는 보초병의 랭혹한 눈초리... 먹물같이 캄캄한 밤... 밝은 낮에 찾아볼수도 있겠으나 병해는 그밤으로 고향돌을 찾아쥐지 못한다면 미칠 것만 같았다.

어둠속으로 기여 몰래 병실을 빠져나간 그는 두손으로 풀발을 더듬으며 온밤 헤매었다. 허지만 그것은 검발발의 수은찾기였다. 하도 막연하여 단념할 생각도 났다. 이국의 귀설은 풀벌레소리도 공연한 수고를 말라고 나무래는것 같았다. 그러나 병해는 끝없이 살뜰한 다른 목소리를 계속 듣고있었다.

<병해야! 조금만 더 찾아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뼈속깊이 스며드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고향의 내물소리이기도 했으며 동구밖까지 따라나와 귀땀하던 친우의 목소리이기도 하였다. 어둠속 가까이에 고향땅이 있다는 생각, 그것을 두번다시 잃을수 없다는 생각으로 장병해는 날 밝을때까지 끝내 조약돌을 찾아내고야말았던것이다!...

《이 돌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거네. 나는 죽음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이 돌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곤했네!》

장병해와 함께 온 안내원과 운전사, 마중나온 일꾼들 모두가 겨끔내기로 조약돌을 만져들 본다.

이윽고 장병해는 돌을 달래주더니 주변을 돌아보았다. 최일구는 그의 움직임을 의아히 지켜볼

뿐.

《여보게. 내가 전에 이 돌을 주는 자리가 이즈음 되지?》

소꿉시절 친구의 새삼스러운 물음에 최일구는 얼떠름해서 대답했다.

《글쎄... 아마 이쯤 되던것 같기도 하네.》

그러자 장병해는 두손으로 조약돌을 정중히 받쳐들고 주변을 다시 돌아본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수십년전에 그 조그마한 돌이 놓였던 자리를 이제 정확히 찾아낼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그 어방이라고 짐작되는 자리에 마치 물이 담긴 그릇이라도 내려놓듯이 그는 조약돌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돌을 놓고 일어난 장병해의 얼굴에는 목숨과도 바꿀수 없었던 한생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수행한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어려있었다.

최일구가 조용히 물었다.

《이보게, 그 돌 거기 뒀두고 가려나?》

장병해는 대답에 앞서 고개부터 끄덕이었다.

《그렇네, 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이역땅을 방황하던 불우한 돌이 비로소 제자리에 왔네.

내놓기 아쉽네만 어찌겠나. 조국의 돌인데... 내한생의 소원이 이 조약돌을 고향의 이 강변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것이였다네.

이렇게 고향의 정든 강변을 밟고서서 조국의 맑은 공기로 숨쉬며 친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보니 한생의 설음이 다 풀리는것 같구만.》

최일구는 소꿉친구의 심정이 이해되어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고향이고 그래서 조국이지.》

《웁으이, 그래서 고향이고 그래서 조국이지.》

깊은 감회에 잠겨 고향의 산천을 바라보는 장병해의 발밑에서는 하얀 조약돌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있었다.

어머니

어제오늘 배나무집은 잔치집처럼 흥성흥성했다. 해방전에 집을 떠나 생사를 알길 없던 만오빠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갑자기 해외교포 기업가가되어 나타났으니 어찌 반갑지 않으랴...

협동농장 기사장인 그 집 세대주 라동길은 백발이 성성한 처남형과 마주앉아 이야기보따리를 풀다 말고 일어나 부엌으로 통한 새문을 열었다.

《여보, 망챙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소?》

부엌에서는 마을녀인들이 한가득 모여들어 귀빈에게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느라고 바빠 돌아가고있다.

《아직 안왔수.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야단났수다.》

장병해의 누이동생인 이 집 주부 장금실은 땀에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안타까와한다.

라동길은 시계를 보았다. 벌써 열한시반이다.

《이젠 올 때가 됐는데... 좌우간 준비를 딱 해

놓구있다가 오면 제각... 알겠소?)

《알겠수다.》

새문을 닫은 동길은 처남과 마주앉으며 끊어졌던 이야기를 계속한다.

《...하도 오래동안 소식이 없다보니 형님이 살아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두 어머니만은 눈을 감기전에 형님의 이름을 외우며 어데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하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음- 내가 불효자식이었네. 내가 큰 일을 쳐보겠다고 외국사람행세를 하며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기는 하였지만 부모형제도, 조국도 몰라보았으니 한생을 헛산것만 같으니.》

장병해는 눈물이 글썽해서 자신을 뉘우쳤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고향땅이야 한순간인들 잊었겠나... 좌우간 이제는 부모님 묘에 옆드려 눈물로서 이 불효자식의 죄를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으니 여한이 없네!...》

...장병해가 어머니의 산소를 찾은것은 고향에 들어선 어제오후였다. (그는 세살적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므로 아버지의 정은 잘 모른다. 그러나 10 년전까지 앓았다가 돌아가셨다는 모친은 지금껏 그의 가슴속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왔다.) 세상을 인 누이동생과 친척들, 농장과 정권기관의 일꾼들이 그와 동행하였다.

다복술이 우거진 뒤산 공동묘지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치달아오르는 장병해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 얼마나 찾아보고싶던 어머니의 산소인가! 해마다 한가위날이 오면 조선지도를 앞에 걸어놓고 생사조차 알길없는 수만리밖의 어머니를 눈물속에 부르며 술잔을 기울이곤해온 그였다.

지난해 청명에 이장했다는 어머니의 산소는 높다랗고 깨끗하였다.

장병해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산소 앞에 옆드리며 땅에 이마를 붙이었다. 그리고는 모친의 성함이 빨간 글로 새겨진 비석을 눈물속으로 넋없이 바라보다말고 급히 네발걸음으로 다가가 끌어앉았다.

《엄마! 엄마!!》

백발 사나이의 아이적 부름소리는 둘러선 사람들의 심장에 찢릿찢릿 전류를 일으키었다.

장병해는 과연 어린애가 돼버렸다. 부끄러움이 나 체면파위가 무시되는 장소였다. 그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목놓아 부르짖었다.

《엄마! 내가 왔습네. 내가 인제야 왔습네. 내가 불효자다.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주시우.-》

장병해의 마디마디는 예리한 비수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누이도 울고 모두가 흑-흑-느끼며 눈물을 쏟았다. ...

향불을 피우고 술을 붓고 절을 하는 등... 간단한 의식을 마치자 장병해는 묘지옆 잔디밭에 앉아 변천된 고향땅을 점도록 내려다보았다.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고향을 떠

난지 40 년이 켜 지났으니 강산이 네번도 넘어 변하였구나.》

그의 뇌리에 찍혀있던 고향의 모습, 이국의 하늘밑에서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더듬어보던 고향의 모습은 병풍처럼 둘러선 뒤산의 릿박에서나 겨우알아볼수 있을 정도였다. 바다가에 우뚝 솟은 사자바위조차도 그우에 덮혀온 소나무때문인지 어딘가 낯설어보이는데가 있었다. 마을도 옮겨앉아 옛 집들의 흔적은 찾아볼수 없었으며 길들도 추억과는 다르게들 뻗었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것은 백사장을 두드리는 고향의 파도소리뿐인가싶었다.

문득 공동묘지옆으로 뻗은 자루목고개길에 시선이 닿은 장병해는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향의 모습이 또하나 있음을 가슴 찢듯이 느꼈다.

자루목처럼 잘룩하게 생겼대서 《자루목고개》라고 불리워온 저 고개는 어린 시절의 병해에게 있어서 한숨과 원망의 고개였었다.

해방전에 그의 어머니는 물고기장사를 해서 아버지 없는 세자식을 먹여살리었었다. 나루가에 가서 생선을 받아서는 목이 부러지게 한임씩 이고 몇십리밖 산골에 가서 한손 두손 팔곤했다. 어머니가 이고다니는 커다란 나무함지에는 별의 별 희귀한 고기가 다 들어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그 맛좋은 고기를 한번도 맘껏 먹여보지 못했다. 집식구들은 배사람들이 내팔린

망챙이파위를 주어다가 뚫어먹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병해는 어머니가 고급어족을 함지에 이고 사라지곤하는 자루목고개를 늘 원망에 차서 바라보곤했던것이다. ...

지금 그 고개길은 옛날보다 훨씬 낮아지고 넓어져 그 길로는 트랙터며 자동차들이 썽썽 오르내리고있다.

추억에 잠겼던 장병해는 망챙이장국을 맛있게 뚫어주느라고 망챙이애를 정성스레 가공하곤하던 어머니의 여윈 얼굴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었다. 그는 곁에앉아 오래비의 얼굴만 뜯어보고있는 누이동생을 향해 중얼대듯 말하였다.

《고향에 오니 망챙이장물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어마? 망챙이장물이요? ...》

장금실은 오라비의 함경도사투리를 되받아외우며 너무나 반가운 어쩔줄을 몰랐다.

매부는 뒤산에서 내려오던 길로 수산반에 가서 망챙이를 부탁해놓았다. 귀빈이 푸짐한 음식상을 쓴외보듯하며 샘물만 들이키는것이 마음에 걸리어 그러지 않아도 걱정스럽던 누이동생내외였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꼭 가져오마한 망챙이가 점심때가 다된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은것이다. 라동길은 속으로 걱정이 산갈으면서도 혼연한 표정을 짓고앉아 그냥 말주머니만 풀었다 매였다 했다.

《한데 형님은 왜 좀더 일찍 조국으로 올 생각을 못했습니까?》

《지금 내가 후회하는게 있다면 바로 그걸세. 10년만 빨리 왔어도 살아계시는 어머니도 만나뵈었을것이고 조국을 위해 좀더 큰 일을 해놓았을 수 있었을걸... 내 이번에 조국에 와보니 참으로 느껴지는바가 크네!》

그는 세계의 큰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았지만 평양만큼 찰떡을 굴러먹게 깨끗한 수도는 없더라고 말했다. 거리에는 거지가 없고 농촌에 내려오니 다락밭과 계단식과 수원 등 토지정리가 잘되어있고 초가집 대신에 기와집들을 규모있게 지어놓은것을 보고 제일 감동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집들을 모두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어주었다니 세상에 이처럼 희한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내 이제라도 조국통일을 위해 있는 힘껏 일하다가 통일된 다음 고향땅에 와서 묻히겠으니 내 묘자리를 하나 잘 봐주게!》

장병해는 매부를 향해 진정에 넘쳐 부탁하는 것이었다.

라동길은 가슴이 몽클하여 미처 대답을 못하였다. 그는 처남이 오래동안 외국생활을 해왔건만 고향의 사투리며 억양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것을 보고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처남이 고향의 넋을 얼마나 귀중히 간직해왔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되었던것이다.

바로 그때 문밖에서 자전거종소리가 짜랑짜랑 울리는가싶더니 부엌문으로 무엇인가 날라들이는 소리가 들린다.

《아유! 망쟁이가 이제야 왔구만요!》 마을녀인의 환성.

《뭐?! 망쟁이가 왔다구!》

지나칠 정도로 레의법절이 철저하여 아직 매부네 집 부엌을 들여다보지조차 않았던 장병해는 누이동생내외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경정경정 뛰어나간다.

《어디 좀 보세!》

커다란 수직상자에 지지리도 못생긴 커다란 대가리를 아무렇게나 내던진 망쟁이들이 하나가득 담겨있다.

《옳아! 이게 망쟁이가 옳아!》

장병해는 꺼리낌없이 망쟁이를 집어들며 좋아서 어쩔줄을 모르더니 옛날소리를 꺼내었다.

《...한번은 내가 어머니를 보고 좋은 고기는 다 팔아버리고 망쟁이만 끓여주니 제자식 먹이는것도 아까와하는 각쟁이라고 하면서 망쟁이장물이 맛이없어 안먹겠다고 투정을 부리다가 그만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바람에 함께 눈물을 흘린적이 있었어. 내가 정말 철이 없었지. 제자식 잘 먹이고싶지 않은 어머니가 세상 어디에 있겠나. 우둔한 내가 그만 어머니의 예린 가슴에 못을 박았지. 아, 고국을 떠나 만리 타국에 가고보니 그 일이 어찌나 후회막심하던지!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다 망쟁이가 눈에 선하고 망쟁이가 생각나면 그걸 한번더 먹어보고싶은 생각에 다른 음식맛이 다 잊혀지곤했네...》

추억에 잠긴 장병해의 눈시울에 이슬기가 내배었다.

동길기사장도 돌아가신 장모 생각에 젖어 가슴이 아리었다. 그는 처남형이 어머니의 산소에 갔다가 망쟁이소리를 꺼낸 까닭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윽고 점심상이 차려졌다. 장병해는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 망쟁이장국만 달라고 하였다.

구수한 토장국냄새가 어울린 망쟁이장국은 아닌게 아니라 식욕을 부쩍부쩍 돋구어준다.

처남과 맞상을 하고앉은 라동길은 숟가락을 천채 매형이 먼저 들기를 기다린다.

장금실은 행주치마자락에 두손을 감싸쥐고서 오라비의 숟가락 든 손을 놓칠세라 지켜보고 앉았다.

열려진채로 있는 사이문을 통하여 동네녀인들의 땀뻘 시선들도 귀빈의 숟가락으로 쏘리고있다.

모두가 장병해의 뜻깊은 식사를 지켜보고있는 것이다.

장병해는 새빨간 고추가루가 감실감실 떠도는 시누런 장국물을 한술 떠서 마치 한방울이라도 흘릴가봐 조심하듯 천천히 입으로 가져간다.

아! - 이게 바로 망쟁이맛이다. 이게... 장병해는 이제야말로 정녕 내 고향, 내 조국에 왔구나 싶은 행복감에 젖어든다. 산천은 열백번 변하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향의 향취, 천만금으로 살수도 없고 재간으로 만들수도 없으며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찾을수 없는, 오직 고향땅에서만 감득할수 있는 내 조국의 향취!

불현듯 장병해의 눈앞에는 나무합지를 이고 자루목고개길로 아물아물 사라지던 어머니의 모습, 망쟁이애를 가공하노라고 칼장단을 치던 어머니의 땀뻘 얼굴이 우뚝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병해야! 맛있다! 어서 먹어라!》

김이 문문나는 망쟁이장국을 더 떠주며 환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

《흑!》

장병해는 갑자기 크게 흐느끼며 《남북골》을 폭떨군다. 그는 어머니앞에 《엎드려》 사죄하였다.

《어머님! 이 아들은 깨달았나이다. 조국땅에서는 가장 하찮은것도 타국에 가면 가장 귀중한것으로 된다는것을!》

《으 흐 흑.》 제차 흐느끼며 숟가락을 펄펄 떨어뜨린 그는 두손으로 국그릇을 감싸쥐며-

《어머니!!》 하고 목메여 불렀다.

그 부름의 메아리처럼 마음속에선 또하나의 다른 목소리가 어머니를 목메여 불렀으니 그 어머니는 다름아닌 조국이었다.

×

그는 이렇게 조국과 상봉하였다! ...

탐구와 변론

지금 독자들속에서는 1989년 8월호로 나간 단편소설 《어머니》(장수근)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있으며 편집부에 결론을 바라는 편지를 보내오고있다. 그러나 편집부로서는 그러한 질문에 일일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기 곤란하므로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논의가 보다 옹계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작가와의 대답을 주기로 하였다.

편집부: 먼저 소설의 창작동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으면 한다.

작가: 나는 거듭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앞에서 늘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의 시련을 이겨낸 명장이 아닌가. 언제면 나도 이렇게 써낼수 있겠는가. 다문 한편이라도 이런 작품을 써봤으면...)

물론 주제넘은 생각이다. 하지만 념원만은 버릴수가 없다.

선배들이 보여준 시범이 있거늘 어찌 높은 목표를 향해 뚫아오르기를 마다하며 게을리 할 것인가. 아무리 높은 산도 평지에서 시작되지 하늘우에 떠있는것은 아닌것이다.

하기에 나는 늘 바줄에 매달린 등산가처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초긴장속에 안간힘을 쓰며 살지않을수 없다. 어제보다 더 높은데를 뚫아올라 새 지표를 새겨놓아야 하는것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준엄한 《법칙》을 적용하는바 아무리 부피가 큰 《대작》이라도 통나무처럼 뜨는것은 사정없이 땅각의 《과거》에로 떠내려보내며 비록 짧은 단편이라도 조약돌처럼 웅골찬것은 기억의 《현재》속에 영원히 남겨둔다.

나는 그 《법칙》에 비추어 이미 쓴 작품들을 돌이켜보면서 심한 회의감에 빠져 불만을 품지 않을수 없었다.

어딘가 그것들이 소꿉시절의 아이같고 랑만의 채색은무속을 해매는 문학청년의 때를 못벗은것같은 쑥스러운 마음을 금치못했던것이다.

결코 이것은 지어낸 겸손에서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랑심에 비추어본 솔직한 고백이며 자책인것이다.

이전에 나는 기발하고 엉뚱한이야기로 소설을 엮어왔다.

《겨울딸기》나 《광산후보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작품들이 그러하다. 나는 명작단편들에서 그방법의 우점을 섭취하였고 그것이 체질화된 장끼인것처럼 자부를 느끼기까지 하였다. 물론 명

작들의 발치에도 못미치는 내 작품들이 그 흉내를 바로 내지 못한것은 말할것도 없다.

과거의 나의 작품들에는 하나의 간과할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랭철한 리성으로 따져볼 때 그이야기들은 모두가 실지에는 없는, 머리속에서 고안해낸 가공품인것이다. 물론 소설이란 가공하고 꾸며낸다. 그래서 허구라는 활용수단이 작가에게 주어져있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생활은 우리가 꾸며놓은 작품에서처럼 꼭 기승전결이 있고 맞물리고 짜여져있는것이 아니다.

하다면 거의 꾸밈새 없이 생활 그대로를 그리면서도 읽히고 깊은 진리를 밝혀내는 그러한 글은 쓸수 없겠는가.

이점에서도 선배들은 풍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고있다.

특별한 사건이나 이야기거리없이 그저 평범한 생활을 그렸음에도 깊이 사색하게 만드는 그런 은근한 작품앞에서 나는 낮이 뜨거워나군한다.

사실 그렇게 쓰기란 이야기줄거리를 타고 엮어나가기보다 몇배나 어렵고 높고 원숙한 솜씨가 요구되는것이다.

나는 힘들지만 종전과 달리 방향을 바꾸어 실생활에 발을 딱붙인 그런 작품을 써보고싶었다. 그 념원이 바로 단편소설 《어머니》를 쓰게 된 하나의 동기였다고할수 있을것이다.

편집부: 소설을 쓰면서 새롭게 시도한점은 무엇인가?

작가 : 《어머니》는 머리에 상이 떠오른 때로부터 완성되기까지 총 10년 세월이 걸렸다. 남들이라면 장중편 두세편을 써냈을 그런 기간이다.

그만치 나는 공공거리며 품을 들였다. 새로 해보는데다 재간이 딸리는 탓으로 거부기결음같은 근기로 내밀지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자랑이 못되거니와 부끄러울것 또한 없었다. 독자란 작가가 얼마나 오래 걸려 썼는지 알지 못하며 계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잘익은 충실한 작품을 요구하며 그에 만족할따름이다.

빨리 쓰느라 설익은것을 내놓았다는 말은 언제 어디 가서나 통할수 없다.

나는 작가가 험하게 쓴 글은 독자가 힘들게 읽으며 작가가 힘들게 쓴 글은 독자가 험하게 읽는다는 내 나름의 신념에 충실하며 거기서 스스로의 고무와 격려를 얻는다.

하다면 근기있는 노력에 대해 《어머니》에서 나는 얼마나한 보상을 받았는가. 예기했던바와는

달랐다.

《좋다!》는 평과 《씩 좋은줄 모르겠다》는 평양으로 갈라진것이다.

전자들은 이제껏 내가 쓴것중에서 좋은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후자들은 이전의 재치있고 아담한 작품들 같지 않다고 실망을 표시했다.

나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나의 시도가 옳았다는 확인을 얻었기때문이다.

문학을 보다 깊이 해보려는 나의 노력에 응당한 리해를 표시해준 고마운 독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후자에게서도 나는 필요한 확인을 얻을수 있었다.

그들의 실망은 《어머니》에서 이전의 나의 소설에서와 같은 산뜻한 감칠맛을 선입감처럼 기대했다가 그것이 어그러지자 머리를 긁거린데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럴만도 한것이 이전과 같은 즉흥적인 감동이 아니라 보다 생각케 하고 음미할것을 노린 나의 시도가 그들의 구미에 맞았을 리 없는것이다.

우리는 종종 《미학적리상의 높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주인공을 리상화하고 생활을 미화하던 나머지 독자들의 신뢰감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범한 것속의 진실로는 성차지 않아 과장하고 덧붙이던끝에 문학적 《허풍》에 떨어져 독자들의 불신을 사고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다. 메돼지 잡으려다 집돼지 놓치는 격이나 같다.

비교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겨울딸기》나 《광산후보지》에 대해서도 나는 《어디에 겨울딸기를 먹는 휴양소가 있는가?》 《어디에 그런 소년이 있는가?》하고 신랄하게 묻는 일부 솔직한 독자앞에서 대답이 궁하는 때가 없지 않다.

많은 적견 나 역시 리상화하는데 버릇되어 진실감의 척도에 무디어진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그것은 기발하고 진기한 이야기로 쓰는 방법에 잘못이 있는것이 아니라 옳게 적용하지 못한 나의 잘못에 기인된다.

어쨌든 꾸미는데 여겨움을 느낀 나는 이전과 달리 이번 작품에서 평범한 실생활속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그려보려고 하였다.

나는 눈에 덮인 발을 밝는다고 지청구를 하며 마을에 생겨난 뽕프장이 대견하여 자랑을 금치 못하며, 학교와 뉴대를 뗏으려 원심을 쓰며, 제사와 산소에 지성이 극진하며, 건설을 위해 파헤쳐진 논밭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는 어머니의 소박한 마음을 귀중하게 보고 그것을 크게 강조하려고 하였다.

소박한것이란 언제나 단순하며 아름답고 진실하다. 그것은 자기를 장식할줄 모르며 과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면 장식이나 과장이, 그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소박성을 가리우는 허위로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에서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레찬하려고 하였다. 그래 과연 우리들자신이 때문지 않은 어머니를 거울로 자기를 비쳐볼때 생각할 여지가 없는것인가.

우리는 흔히 생활이나 문학에서 터진 동독을 몸으로 막는것과 같은 요란한 미거에 눈을 돌리고 감탄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서 모르게 새는 수도물을 막는것과 같은 작은 소행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경시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영웅적미거라는것도 실은 그 작은것으로부터 출발하며 거기에 공고한 도덕적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응당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나는 잘 가꾼 잔디밭 구석구석의 번번해진 자리를 볼 때마다 그것을 짓밟고 다닌 사람들의 정신도덕적준비를 놓고 깊이 생각하게되며 가슴 아픔을 금치 못하군한다. 레컨대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자연파도 같이 소박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제몸처럼 아끼는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아래를 굽어 큰것을 웨치고싶었던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두드러진 미거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형상전반에 걸쳐 흐르는 《속대사》를 음미하고 숙고하기를 바랐던것이다. 그렇다.

어머니는 종전의 리상화된 나의 주인공들과 180도 다른 역설적인 형상이다. 나의 시도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것이다.

새것이란 언제나 이단처럼 낯선것으로 나타나기마련이다. 따라서 의문시되고 논쟁의 세례를 면할수 없는것도 당연하다.

나는 《어머니》로 하여 갑론을 박의 십자포화속에 든것을 문학과 나자신을 위해 유익한 일로 기꺼이 감수할뿐이다.

편집부: 작가에게는 자기 작품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작가: 《어머니》에는 나로서의 탐구가 있고 새것이 있다.

우선 긴 단편소설이지만 사건이라고 할만한 일관한 이야기가 없다. 어머니의 70 뉘 생일을 계기로 한가족이 고향에 갔다가 올라오는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너무나 범박하고 흔히 있는 일로 어느 누가 《나》와 같은 여행을 해보지 않겠는가, 이 점에서 나는 이전과 달리 생활그대로를 그리려는 획기적인 시도에서 자국을 내짚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생활 그대로인 이런저런 산만한 생활을 어떻게 하나의 유기적구성속에 입힐수 있게 만들었는가.

이점에서 역시 나는 이전의 사칙계산과 같은 단순한 구성과는 다른 대수의 인수분해와도 같은 어렵고 복잡한 새로운 구성방법을 《창안도입》한데 대해 자부를 가진다.

나는 단편소설의 생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계기

를 거의 무시하였다.

1 절을 놓고보자, 원고지로 20 매나 되는 절이 무엇을 말하자는지 알수 없는 횡설수설 같은 자유분방한 서술로 온통 차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생동한 일화들이다. 그러면 산만하게 라렬된 일화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련관속에 구슬처럼 꿰여지게 되었는가.

엄밀하게 선택된 그 일화들은 저마끔 뒤에 가면서 일관되는 가는줄의 실마리를 쥐고있는 맹아로서 일절속에서 서로 통일되어있다. 다시말하여 뒤절들에서 문득문득 나오는 이야기들은 첫절에서 벌써 자기의 전제를 가지고있는셈이다.

바로 일절은 해방전부터 오늘까지의 《나》의 생활을 어머니와의 관계속에 개괄하고있는바 그것은 뒤에 가면서 심화되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현재묘사와 회상의 이중대조법의 형식으로 병행시켜나갈수 있는 단서로 되면서 그모체의 역할을 담당하고있는것이다.

소설에는 철길과 운명적으로 련결된 《철뚝집》에 태어난 《나》와 일가의 40 여년 긴 력사가 룡북천을 요람으로 한 철없는 시절의 생활, 철길건능길로 인한 재해와 그것을 성토하고 떠나간 아버지의 사망, 전쟁시기 폭격속에서의 식량생산을 위한 투쟁과 입대로인한 리별, 어머니의 전선원호, 전후《나》의 대학생살과 졸업후의 결혼, 어머니의 고집으로 인한 별거와 과학사업에서의 고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70 뉘 생일과 모래수송관 발기 등 삽화들로 엮여져있다.

구상할 당시 이야기에 매혹된 사람들속에 간혹 큰 형식으로 써보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만큼 단편에 다 담기에는 아름다운 생활들이었다.

나는 허욕을 부리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이라도 억지로 맞추면 무리가 생기고 파탄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단편의 그릇속에 현재묘사와 회상을 병행식으로 배합하여 긴 시대를 압축개괄하면서 집약된 형상속에 철학적종자를 도출해낼수 있는 독특한 구성을 탐색해내게 된것이다.

앞에서 시간의 순차에 따라 련거한 그 이야기들을 시간을 전도하면서도 시로 맞물리게 면밀한 엮음새로 엮어나간다는것은 결코 읽는것처럼 쉽게 풀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가 길면서도 짧다고 한 어느 독자의 말을 만족을 가지고 수긍하게 된다. 매수로 보면 《어머니》는 매우 긴 단편이다. 반면에 거기에 담으려고한 생활의 용적에 비해보면 매우짧은 소설이기도 하다. 그렇다. 나는 하나의 단편속에 실로 장편에 담고도 남을 큰것을 담으려고 욕심을 부렸으며 아름다운 시도를 하였다. 그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독자자신들의 판단에 맡길뿐이다.

편집부: 작품에서 착오를 범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는가.

작가: 있다. 솔직히 말하여 《썩 좋은줄 모르겠고》하는 실망한 평가가 나오게 된데는 작가자신의탓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어머니》는 완벽에 이르자면 거리가 있는 설익은 작품이다.

우선 내가 그렇게도 면밀하게 타산한 구성에서 착오를 범하였다.

마지막 8절에 강가에서의 공습당하는 최상장면을 설정한것은 구성의 초보를 위반한 몰상식한 오류이며 내판의 시도자체에대한 위반이기도 하였다.

작은것 같으면서도 엄중한 착오였다.

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다히 반복되는 과거 회상은 어머니가 어떤 성격이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주는데 필요한 형상수단이다. 그런데 회상이 중첩되는데 로파심을 느낀 나는 고루 풍긴다는 식으로 작품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마지막절에까지 긴회상을 뒤섞어놓음으로써 꼭 가리았아 종자를 천명해야할 절정장면을 망치고 작품전체에도 큰 손상을 주게 되었다.

더구나 참을수 없는것은 그 착오때문에 작품이 이런저런 재미난 회상을 두루 꿰어 편리한 구성속에 적당히 엮어나간것 같은 오해를 살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그점이다.

제대로 되자면 8 절은 종결부인것만큼 마땅히 거기에서 이제까지 무르익혀온 형상들을 논리적 귀납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요진통과 같은 생활이나 세부를 찾아내고 그것을 파고들어 열매를 맺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대신 데충맞은 회상을 들어앉혀 감정조직을 파란시키고 서뿌른 주정으로 종자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자는 형상에서 우러나야 한다. 종자를 선언하고 광고하는것처럼 천박한것은 없다. 마치나 그것은 사람이 비록 정직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제임으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하고 입밖에 내어 말하자 졸렬하고 저급해지는것과 마찬가지로. 과묵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의도는 깊이 숨을수록 좋은것이다. 웅심이란 침묵에서 생겨나는바 침묵은 웨치는것이라는 말의 참뜻이 거기에 있을것이다.

그밖에도 작품에는 본래의 시도와는 달리 아직 소설적인 계기의 흔적을 남기고있는 흠집이 있다. 1 절 마지막에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셔오리라고 한마디한데서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소설이 어머니를 모셔오기가 마는가 하는 이야기인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그것은 종래의 타성이 집요하게 남아있어 그런 인력이라도 있어야 소설

을 비버나갈것같은 보수성에서 사람의 미추와 같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앞에서 계기를 없앤것을 성과로 들면서도 《거의 무시했다》고 한것은 바로 이에 기인되는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과학자의 수기》라는 부제목도 공연히 붙인것으로 안달기보다 못했다는 생각이다.

다행히도 나는 이와 같은 아쉽고 미흡한점을 이미 다 가지고 퇴치하였다는 만족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에게 있는 《어머니》가 실린 《조선문학》 잡지는 꽤고 여백에 써놓은 깨알같은 글씨로 새까맣게 어지러워졌다.

8 절이 큰 수술을 당하였다.

전쟁때의 공습회상을 들어내어 4 절에 있는 강반의 목가적회상뒤에 준엄한 회상으로 대조되게 이어졌다. 그대신 그자리에는 종자를 도출해낼수 있는 생활세부가 확충되었다. 즉 《모래수송관》 창안때문에 《내》가 동태귀신이 될번했다는것을 안 어머니가 기쁨을 금치 못할 때 것처럼 수태 언급되었음에도 실지로 《등장》한적이 없는 기차가 덮칠듯이 굉음을 지르며 달려와 집을 뒤흔들고 지나간다. 그리고 철다리에 들어서 우뢰소리를 울린다. 습관이된 어머니는 기차에는 심상한채 《모래수송관》이 되면 《우리 논밭》까지 파헤치지 않으리라는 나의 장담에 안도감에 잠겨 불을끄고 잠자리에 든다. 잠이 오지않는지 궁쉴거리던 어머니입에서 《세월두 려치없지, 립춘이 모렌데 무슨 옷바람질이람》하는 푸념소리가 나온다.

아무 소리를 듣지못한 《나》는 어머니의 밝은 귀에 의아를 금치 못한다. 아무럼 어머니의 귀가 나보다 밝을수야 없지 않는가, 잠꼬대를 한것일까. 어머니에게 물으려 하였으나 어느새 잠들었는지 길게 쉬는 깊은 숨소리가 들릴뿐이다. 《나》는 성좌들이 굽어보는 밤하늘이며 대지의 심원한 정적이 어머니의 안식을 지켜 귀를 기울이고있는듯한 신비한 생각이 갈마든다.

하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바람새를 가늠하는 어머니고 보면 대지의 정기와 내통한다고도 아니할수 없다. 여기에 이상할것이란하나도 없다. 이 땅에 나서 한생을 고스란히 보낸 어머니에게는 이 땅의 자연이 그대로 몸에 배고 찌들어 혼연일체로 유착되어있는것이다. 불현듯 《나》는 그저 소박하게만 보아온 어머니를 대지에 뿌리박은 거목과 같은 거목하고 신성한 존재로 우러르지 않을수 없다. 어머니는 향토애의 화신이다. 그 향토애는 《내》가받은 교육이나 높은 지식, 사회적직위로써도 따를수 없고 대신할수도 없는 천연보석처럼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것이다. 그리하여 이

튼날 렬차의 승강대에 나와 건늌길의 어머니와 작별을 나눈 《나》는 철다리의 요란한 진동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고향땅과 한몸이 된 자기 심장의 증폭된 박동소리로 들으며 어머니고향땅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인간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걱정애 넘쳐 부르짖게 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인한다면 나는 작품에서 줄거리를 무시한 이런저런 삽화들이 중합되어 독특한 정서를 빚어내면서 중화음과도 같은 여운이 울리도록 꾀하였으며 독자들이 감수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내판의 분수없는 시도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편집부: 마지막으로 창작에 대하여 더 말할것이 없는가?

작가: 작품이란 독자를 위한것이면서도 어디까지나 작가의것이다. 왜냐면 작품이자 곧 작가의 명예이기때문이다.

글이 곧 그 사람이란 말은 문제론적측면에서만 이 아니라 작품이자 작가의 인격이며 존엄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마땅히 자기작품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가장 엄격한 비평가로 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독자의 지나친 친절이나 호의에 위안을 얻을대신 스스로 작품의 허물을 들추기를 서슴지 않으며 그릇된 평가에 대해 스스로 작품을 변호해나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컨대 작가란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남이 흉내내지 못할 제것을 가지지 못한 작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작가가 아니다. 나아가서 제얼굴을 가진 작가라 하더라도 이미 써먹은 틀이나 미련을 답습하는 자기 모방에 떨어진다면 그 역시 벌써 창조자가 아니라 《제자공》의 처지를 면치 못한다.

작가는 체육가가 부단히 자기기록을 갱신하듯이 새것을 탐구하고 개척해야 한다. 한 선수가 아무리 2미터의 높이를 100번 뛰어 넘었다고 하여도 2미터 1센치를 한번 뛰어넘은 선수보다는 못하다.

창작에서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독자에게 한번 읽히고 버림받는 100권의 작품보다 독자에게 거듭 읽히는 1권의 작품이 훨씬 우월하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일당백》의 창작품을 쪼아내기 위한 건인불발의 노력에서 맛보는 참다운 창조의 보람보다 존엄있고 값높은 영예는 없는줄로 안다.

기억하라

김철민

나는 너와 말하고싶구나
우리 거리 푸른 가로수아래
화판을 펼쳐놓은 소년아
네 물기어린 조색판에
내 아껴온 시어도 섞고싶구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네 작은 종이우에
창조하고싶구나

지금, 그렇다, 바로 지금
너의 그 부드러운 붓은
화판위의 그 어느 공간이 아닌
내 가슴을 적시고있다
잊을듯... 잊지 못한 화폭을
내 가슴에 펼치고있다
...

모든것이 불타고 찢기고
허물어진
그런 도시를 상상하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폐허를
그려보라
거리도 집도 사람도 없는
텅빈도시
그 한복판에 조각처럼 굳어진
병사를 생각해보라
없었다, 병사앞에는
그리도 사랑담아 그리던
수도의 화폭이
새생활의 환희로 밝던 거리
늘 손저어 불러주던
대동강반의 버들숲
남산재에 등을 대고 해를 맞던
정다운 모교도
전쟁의 준엄한 길 걸어오며
가슴에 소중히 품어온 그
모든것은
없었다, 무거운 포연만이
드리워
드리운 포연속에
못이 아닌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피맺힌 복수를 다짐한 병사
그는 50년도의 우리
아버지였다

나는 기억한다
저기 평양역 근방의 우리 작은
집
뒤편으로 흘러들면 건설의

불빛을
드르렁거리던 미끼샤의 소음
전선에서 입고온 군복을 벗지
못한채
목고채를 메고 달리던
사람들을
기다려도 기다려도
복구건설장에서 돌아올줄
모르는 어머니대신
건설의 불빛과 음향을
그리안고

나는 잠들었다
새벽녘 잠결에서만
땀내 시큼한 어머니품을 나는
느꼈다
지금은 그 어머니와 함께
내 수도의 거리를 거닐군한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눈곱에
고이는 뜨거움...

그것이 정녕
오늘의 이 아름다운 화폭을
그리지 못한채
먼저 간 아버지의 생각에설가
지나온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그 무슨 추억에설가
아, 낮익은 거리들
사연깊은 벽체들에 기대시며
머리가 다 희신 어머니
조금 서있다 가자 하실 때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는 자기의 청춘을,
아름다움을
이 거리들에 옮겨놓은것이라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여한이 없어
60 쉰 생일날에조차 상앞에서가
아니라
거리에 나와 사진을
찍으신거라고

세월은 나에게 가르쳐주었나니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피를
흘렸고
피같이 진한 땀을
이 도시에 아낌없이
바쳤는가를
나는 젊은 날에
천리마거리며 락원거리...
그리고 수도의
대기념비건설장들에

밤마다 달려가군했다
지금도 나는
수도의 건설장을 무시로
찾군한다
그 무슨 시상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벽돌 한장이라도
쌓고싶어서
수도 평양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였고
얼굴
이였고 지향이였음을

사무치게 깨달은 오늘
나는 뜨겁게 소원한다
내 흘리는 한방울한방울의
땀이
이 아름다운 화폭을 위한
구슬이
되고 보석이 되기를

저 설렁이는 가로수에는 푸른
잎이 되고
저 솟아오르는 새집에는
눈부신 창문이 되기를
그것이 그 나의 로력이
우리 수도를 빛내이는데
티끌에 지나지 않아도
나는 그것으로 영원한 나의
행복을 찾으리

나는 이제 다 말했다
소년아 평양의 모습을 그리는
소년아
네 작은 종이우에 옮겨앓는
거리
그 집 한채한채를
록음 우거진 거리
그 나무 한대한대를
너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너의 붓이 어떤 색을 고르고
너의 심장이 무엇으로
고동쳐야하는지
그리라, 소년아, 뜨겁게 그리라
평양의 모습은 아, 평양의
모습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부모들
모습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자신
들의 모습이다!

통일의 날 평양의 거리에서

김형준

목마르게...

피가 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바라고 바라던 통일의 그날이 와서
사람마다 답답던 가슴 풀어헤치고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왔다

오고 가는 사람들 펼쳐보는 신문은
통일을 알리는 특보인듯
거리의 신호등조차 눈물에 젖어 숨막이는가
평양의 거리는 환희로 들끓는다
나는
통일된 평양의 거리를 걷는다

거리를 메우며 마주오는 배스의 차창엔
사진마냥 바투붙은 얼굴들
활기넘쳐 걸어가는 사람들속에서
아들애, 어머니를, 형제들의 모습을 찾으려
눈물젖은 얼굴들이
차창을 흐리운다 흐리운다

허리굽은 백발의 늙은이
보풀이 인 종이장을 펼치고
옛집 주소를 찾아 나에게 묻는다
말씨는 조금도 달라진데 없는
억양 부드러운 평양말씨다

옛거리는 없어지고
에서 살던 사람들
새로운 거리로 이사갔단 나의 말에
한순간 어리둥절해있다가
그대로 앞으로만 앞으로만 걷누나
근 50년세월 오고파도 못오던 길
오늘에야 열렸으니
앞으로만 걸어 혈육들이 사는 집으로 가고싶어
내앞을 썩- 지나간다

귀가에 들려온다
평양역에 들어선 통일열차의 기적소리-
오랜세월 목이 쉬도록
불러도 찾아도 대답없던 혈육을 찾아
내가 왔다고 웨치는 소리
열차가 대신해 울려주거니
얼마나 듣고싶던 소리던가

이날을, 순간을 기억하자고

근 반세기를 일일천추로 좁혀오던 이 시각을
마음속에 새겨넣자고
평양역사의 시계탑을 바라보며
눈물을 뱉으며 혈육을 찾아떠난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으로 붐비는 평양역
그립던 혈육을 만난 사람들
기쁜날엔 눈물이 앞선다지만
울지도 못하누나 눈물도 못흘리누나
오, 기다리고 기다려온 세월
가슴속눈물 다 흘렸으니
이제 남은것은 피같은 말뿐이니
서로 포옹한 가슴으로 피가 오간다

그렇게도 커보이던
평양백화점문이 너무도 작구나
문이 미여지게 드나드는 사람들
선물 가득안고 나오는 사람들
빨리가야 할 길
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
서로 마주쳐 넘어져도 서로 웃을뿐
실례의 말도 필요없는듯
피차 바빠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평양역 서울행 매표소의
유리 한장 깨어졌다
그래도 출표원처녀는 종단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내준 수수께끼
그냥두면 둘이 되고
깨여지면 하나인것이 무엇인가 물을 때
조국통일 이라고 선뜻 대답 못한
그 기회가 오늘에 생겨서인지...

출표원의 손은 드바쁘다
생소한 지명을 찾아 표를 고를 때
조급히 재촉하는 열기띤 목청
얼마나 듣고싶던 소리였던가

거리에서 나는 친구를 만났다
서울이 고향인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간다는 나의 친구
바쁜 걸음 순간도 지체시키고싶지 않다

십년 사귀어오면서 술 한잔 못하던 친구
오늘 그의 얼굴 별결게 취기가 오름도

통일의 날의 풍경이리라...

-갈 다녀오게!

인사말하여 지내놓고보니 미안하다

마치 이웃집을 다녀오는

친구에게 하는 말같아서

그렇게 웃으며 가는 반나절길을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 흘렸던가

통일의 길, 고향길

길은 길이건만

그 길 걸어보지 못하고 눈감은

그 원혼들 생각에 눈물난다 눈물난다!

소리먼저 몸에 닿는 통일의 열망에

눈들어 바라보니

고려호텔의 베란다에서

귀익은 목소리 쟁쟁히 울린다

평양축전대표로 왔던 림수경이다

그날의 저희또래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호텔쪽으로 무리져 달려간다

행길이 미여지게 빠스가 달린다

온 거리에 나붙은 통일의 표어

희한한 일이다 꿈같은 일이다

나는 내 살을 꼬집어본다 아프다 아프다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현실이다!! 현실이다!!!

남녀청춘 한쌍이 내옆을 지난다

남자는 남도사투리 섞어 말한다

처녀는 평양태생같다

어찌보면 형제같은

어찌보면 련인같은

아무튼 무슨 상관이라

우리는 한피줄 나누었거늘

그들은 대성산행 빠스줄에 들어선다

렬사들의 령혼을 찾아

통일의 소식 전하러는 가룩한 마음

가슴에 안은 꽃다발이 말해주누나

허리굽은 할머니

나에게 길을 묻는다

옛날살던 모란봉기슭을 찾는다

나는 그를 안내한다

길가던 할머니 나에게 말한다

저 련광정의 단청무늬가 생각난다누나

휘늘어진 버들에 그네매고 오락가락하던

처녀적 봄명절도 생각난다누나

나는 오빠를 찾아간다는

그 할머니의 주소를 찾아

주소안내소로 갔다

어제날 체육경기 추첨안내소가

모두 주소안내소로 되었다

그의 오빠가 사는 집을 찾았다

문은 열쇠가 잠겨져있었다

옆집의 젊은이 친절히 대준다

오늘아침 서울에 사는 동생찾아 떠났단다

나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어주었다

오래 닫혔던 통일의 문이 열렸으니

주인없어도 무방하리라...

나는 거리에 나섰다

나팔소리 울린다

볼이 터지게 바람재워

나팔을 불어대는 꼬마들이

거리를 행진해간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던 노래에

어느새 가사를 고쳤는지

통일이 되었다는 노래가 온 거리에 메아리친다

부르라 노래를!

너희들에게까지 소원으로 불리워질수 없던

그 통일의 날이 오늘에 온것이다

활기에 넘쳐라 거리여!

마음껏 울고웃으라 겨레여!

5천년 력사가 기다리던 날이다

우리 수령님 이날을 위해

단 하루 한순간도

편히 쉬신적 없었거니

오늘은 우리 수령님

만시름 잊으시고 편히 쉬실게다!

꿈에서도 웃으시며 편히 쉬실게다!

나는 통일의 거리를 걸어보았다

조국통일의 새 방안을 밝히신

1990년 1월 1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신년사의 구절구절 걸음걸음 새겨보며

걸어보는 귀가엔 쟁쟁히 울려온다

-조국통일은 다음세대에

넘겨줄수 없습니다...

1990. 1. 1

작가의 사색문제

오승련

작가의 사색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것은 창작을 참으로 창작으로 되게 하는 그것, 작가를 그 말의 고유한 의미에서 작가로 되게 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창작은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의 과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 그 열매이다. 사색을 떠나 참다운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깊은 사색과 탐구가 없을 때 작품의 철학적빈곤을 피할 길이 없다.

사람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 예술의 세계에로 이끄는 작품들에서 독자들은 무엇보다 사색하며 탐구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색의 폭과 깊이에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놀라기까지 한다.

장편소설들인 《너당원》, 《빈터우에서》, 《철의신념》은 이에 대한 뚜렷한례증으로 된다.

이 작품들은 주인공들의 혁명적수령관을 깊이 있게 그림으로써 인간의 내면세계묘사에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철학적높이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동시에 이들의 심오하고 풍부한 내면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사색의 깊이와 높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작가에게는 사색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지 않다. 작가의 사색은 생활속에 있고 작가의 생활은 언제나 사색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그것은 문학이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인간학, 생활의 철학이기때문이다. 인간과 생활치고 작가에게 무관계한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 모든 생활이 작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사색의 단서를 끝없이 열어준다. 그렇다. 작가의 사색은 생활 그것처럼 한없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생활 그것처럼 한계가 없고 끝이 없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이 끝없는 사색과 탐구로 하여 작가에게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으며 이 사색과 탐구로 하여 가던 길을 멈추어서는 때가 있으며 말없는 자연과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있다.

참으로 작가의 사색은 생활로부터 출발하고 생활과 함께 끝없이 번져나가는 사색이며 이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야말로 작품의 종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래우는 과정이며 작중인물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성격이 작가의 가슴에 자리잡는 과정이아니겠는가.

언제나 생활과 함께 있고 생활과 더불어 한없이 깊어지는 이 사색이 없을 때 창조적개성으로서의 작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주체문학의 발전풍부화를 위하여, 그 사상예술적수준의 끊임없는 제고를 위하여 절실하게 요구되는것은 작가의 깊은 창작적사색이며 지칠줄모르는 탐구정신이다.

작가들의 창작적사색문제는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로 하여 또한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다.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세계관, 인생관으로 확고히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이 길에서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우리 인민들처럼 위대한 사상, 위대한 철학으로살며 투쟁하는 인민은 없으며 위대한 사상, 위대한 철학이 우리 인민들에게서처럼 생활과 하나로 통일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깊은 사색과 탐구가없이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의 그 모든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반영할수 없으며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사색이 없이 위대한 철학으로 살며 싸우는 우리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 귀중한 영양소로 되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창작적사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작가들이 현실생활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사색은 현실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선 철두철미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사색이다. 이 철저한 관점과 립장으로하여 우리 작가들의 사색은 현실생활과 유리되어 상념의 세계에서 헤매이며 관념의 유희를 일삼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색》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현실생활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에기초한 사색이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구현인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에 기초한 사색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는 우리 작가들의 사색에 뚜렷한 목표를 주고 생기와 활력을 주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사색만이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색으로 되며 세계를 가장 심오하게 반영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이고 가장 심오한 지성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숭고한 미학이고 가장 높은 미적리상이다.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힘있게 관통된 창작적사색만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과 문리와 미학을 가장 심오하게 반영할수 있다.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한 작가들의 창작적사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철학인 주체사상의 심오성과 진리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밝히며 이 위대한 사상으로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성격적미와 깊이를 탐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사람이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사람의 가치는 그가 지닌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심오한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 요구이다. 이 요구가 관철됨으로써만 인간성격을 가장 심오하고 진실하게 아름답게 그릴수 있으며 문학작품의 사상적깊이를 보장하고 그 사상미학적영향력을 강화할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과 장편소설들인 《너당원》, 《빈터우에서》는 이 창작적진리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로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심으로써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견인력을 깊이있게 밝히고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소설이 제기한 지식인문제, 그것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 조국을 건설하는 문제에 앞서 무엇보다 인간문제였으며 그들의 사상개조에 관한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식인들이 것처럼 모색하고 바라는것, 참다운 인간의 지조와 량심을 지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한몫몫 바치고싶어하던 그 필생의 소원이 혁명의 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그 길에 있음을 강병철, 양춘만, 안동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것이 가슴아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식인의 지식과 기술보다도 그들자체가 귀중하시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그들의 마음이 소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강병철을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을 찾아주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길을 열어주시며 억년 드물지 않는 마음의 지령점을 안겨주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당신들이 우리와 리념을 합치지 못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

고해서 당신들이 가야 할 그 어떤 다른 화려하고 휘황한 길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해둡니다만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은 우리를 믿고 같이 한길을 갑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에 뜨겁게 받아안으며 강병철은 몸의 균형을 유지할 힘이 없었다.

이것은 실로 강병철이 것처럼 찾아 헤매이던 정신적지령점이 가슴속 깊은곳에 굳게 자리잡는 운명의 순간들이였으며 그것 없이는 인생이 무의미하고 살수 없는 마음의 기둥이 뿌리를 내리는 끝없는 감격과 영광의 순간이였다.

이제 강병철에게 있어서 의욕이란 있을수 없었으며 마음의 동요라는것이 있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이 인간중심의 리념앞에 《자기》를 지켜 드립었던 안동권의 《신념》에 금이 가고 양춘만의 의욕과 불신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참으로 여기에는 위대한 주체의 리념, 공산주의 리념으로 자본주의적 《리념》을 이겨내시며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뚜렷한 사상과 신념, 주체의 신념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숭고한 풍격이 뜨겁게 그려지고있다.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품모를 보여주려는 작품의 이러한 사상적지향은 양춘만기사 일가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그리는데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그리면서 그것을 위대한 사상과 하나로 융합시키는데는 수령형상창조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사상미학적과제의 하나이다.

이 량자의 결합이 예술적으로 훌륭히 실현될 때 그 덕성이 일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가질수 있으며 사상이 또한 그만큼 뜨겁게 안겨올수 있으며 형상의 깊이를 보장할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양춘만 일가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육친적배려를 반공선전의 희생물로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이의 높이신 뜻과 훌륭히 결합시킴으로써 그 사상적내용을 더욱 심화하고있다. 덕성과 사상의 이러한 유기적인 결합은 특히 양춘만이 사죄하러 그이를 찾아뵈려 왔을 때 그 면회를 거절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춘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크고 깊었던 그만큼 그에게서 바라시는것도 많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양춘만이 강선의 로동자들을 찾아 그들앞에서 사죄하며 소망이 있다면 그것도 로동자들앞에서 표명할것을 바라신다. 양춘만이 나타났을 때 새 사람을 얻었다고 기뻐하시면서도 그가 범한 과오를 깊이 깨우쳐주고

그에게 큰 영예를 안겨주시기 위해 다시 그를 강선으로 떠나보내시는 장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인간애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그대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소설은 지식인문제를 인간의 운명문제와 하나로 통일시키고 지식인의 사상개조과정을 주체의 리념, 공산주의 리념에 의한 자본주의 리념, 반공리념의 극복과정으로 깊이있게 보여줄 수 있었으며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할수 있었다.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기초한 작가들의 창작적사색의 폭과 깊이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그린 장편소설 《녀당원》, 《빈터우에서》에서 또한 훌륭히 표현되었다.

두 작품은 생활과도 같이 소박하고 진실한 주인공 용녀의 사실주의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사상으로 살며 투쟁하는 사람, 오직 수령님만을 따르고 높이 모시며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사람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값높고 보람있는것인가를 참으로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용녀의 모든 사색과 열정, 모든 지향과 념원, 모든 실천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그 길에 있었으며 용녀는 이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고있었다. 이 녀인에게 있어서 살며 일하며 투쟁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따르는 그것이였으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이였다.

《너는 수령님을 떠나 살수도 일할수도 없는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안해로서 어머니로서 겪을수 있는 그 모든 시련과 슬픔을 이겨내며 이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안고 그 어려운 전시환경에서 수류탄을 만들어 전선에 내보낸다.

소설은 주인공 용녀가 지닌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추구하면서 그의 성격을 발전속에서 보여주고있는바 이것은 형상의 진실성과 심오성, 작품의 사상을 심화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소설에서 용녀앞에 겹쳐지는 가혹하리만큼 어려운 시련과 난관은 생활의 진실에 깊이 육박하는 사실주의적묘사인 동시에 주인공이 지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더 철석같은 신념으로 의리로 간직되는 과정에 대한 예술적확인이 아니겠는가. 용녀는 생활과 투쟁속에서 더욱더 믿음직하고 강의한 녀당원으로 성장하며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혁명화와 당성단련의 교과서로 독자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양수기를 만들었다는 충성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

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수 없다는 제의서를 올리게 된 사실을 알고 끝없이 피로와하며 안타까이 모태기는 용녀의 두볼에 흐르는 눈물은 참으로 인간이 흘릴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눈물이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떠나 살수도 일할수도 싸울수도 없는 인간의 눈물, 수령님의 참다운 딸만이 흘릴수 있는 충성과 효성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한 소박하고 평범한 녀인이 간직한 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과 효성의 세계, 이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밝힌 여기에 장편소설 《녀당원》과 《빈터우에서》가 이룩한 혁신적성과가있으며 이 새로운 세계를 깊이 탐구한 여기에 또한 작가의 사색의 깊이와 폭, 그 세계의 높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 립장과 관점에 기초한 창작적사색의 예술적구현이며 그 빛나는 열매이다. 두 장편소설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사색이 어디에 집중되고 어떻게 심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훌륭한 해답을 주었으며 주체적 관점과 립장에 기초한 사색이 얼마나 깊이있고 폭이 넓으며 그 위력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실천적으로 뚜렷이보여주었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사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사색에서 이성적인것과 감성적인것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작가의 사색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이성적인 사유이다. 작가는 이성적인 사유의 힘으로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담보한다. 작가가 만약 사색에서 이 이성적인 계기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때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모호하게 만들수 있으며 창작을 어떤 신비한 《령감》, 《직관》의 산물로 간주하는 유해로운 경향에 빠질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의 사색의 한 측면이다. 작가는 현실을 론리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을 감성적으로 또한 받아들인다. 작가가 만일 생활을 개념과 범주의 도움으로써만 파악하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감수하지 못한다면 추상적인 사상이 예술적형상을 대신하게 되며 예술을 사상의 《전성관》으로 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작가의 사색은 오직 이성적인것과 감성적인것의 통일에 의하여서만 참다운 창작적사색으로 될수 있으며 이 량자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이 보장될수있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사색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이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성적인 계기를 감화하고 그 지성수준을 높이는 문제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색자체의 연구이다. 사색은 무엇보다도 리성과 지성의 활동이며 리성과 지성이 없이 사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색의 깊이는 지성의 깊이이며 사색의 빈곤은 지성의 빈

곤의 반영이다. 오직 높은 지성만이 사색의 세계를 높이고 그 깊이를 담보할 수 있으며 높은 지성과 결합된 깊은 사색만이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

지성수준의 제고는 문학발전의 합법적 요구이며 문학창조에서 현대적미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문학의 발전은 객관세계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파악의 끊임없는 심화과정이며 이것이 문학의 지성으로 나타난다.

과학문화의 급속한 발전, 날로 높아지는 우리 인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사상정신생활과 문화정서생활, 그들의 미학적취미와 기호의 다양성은 문학의 지성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객관적요구로 되고 있다.

문학의 지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면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문제이다.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는 작가들의 창작적사색의 폭과 깊이, 그 지성수준이 발현되는 가장 직접분야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성격, 그 성격을 특징짓는 내면세계에 작가의 사상적지향과 지성, 그의 사색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생활의 풍부성과 심오성, 그들의 내면세계의 높이는 작가의 사상의식수준, 작가의 지성세계에 비례한다.

작품에 그려지는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들의 성격과 생활의 반영임과 동시에 작가의 창조물이다. 오직 주인공의 내면생활을 탐구하고 그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는 작가들만이 그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사실주의적침투에 의하여 작품의 지성수준을 비교적 보장하고 있는 작품은 장편소설들인 《탄생하는 계절》, 《청춘송가》이다.

이 두 장편소설은 숨은 영웅, 청년과학자의 다양한 내면생활을 탐구하면서 특히 인간의 가치와 삶의 보람에 대한 그들의 인생관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작품의 지성수준을 높이고 있다.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에서 여울목농장을 떠나며 남긴 주인공 연이의 편지에는 참다운 삶에 대한 그의 깊은 사색과 탐구의 자취가 그대로 어려여 있다.

연이는 자신이 택한 이 《수난자》의 길이 당과 수령을 받드는 길, 보람찬 삶의 길이며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란 학자의 지성과 양심이 가리키는 길임을 온 넋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 처녀과학자에게 이 길이 값높은 삶의 길이라면 이 길이 고난과 시련의 길이여도 좋았고 이 길에서 수난자, 희생자로 되는것도 좋았다.

참다운 삶에 대한 이 투철하고 심오한 이해와 깨달음이 앞을 막아나서는 그 모든 난관과 견디

기어려운 사랑의 그 번민을 이겨내는 힘으로 되며 의지로 되며 열정으로 된다.

소설에서 주인공 연이의 깊은 내면세계는 또한 인간의 높은 사상정신생활을 귀중히 여기는 그의 생활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성격적 특징은 대학동창생이며 지금은 연구소 과학지도 처장인 로명수의 안해인 강윤희와의 심각한 대조 속에서 밝혀지고 있다.

책을 놓은지 이미 오래된 가정부인 윤희, 남편과 가정의 《행복》만을 생활의 전부로 여기는 윤희는 사실상 얼마나 불행한가.

윤희의 남편 로명수는 개인의 목전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는 한생을 바쳐 얻은 탐구의 열매도 무참히 짓밟는것을 서슴지 않는다.

주인공 연이가 걸어온 보람찬 길은 사상정신적으로 공허하고 속물화된 이들과의 투쟁의 길이기도 하였다.

연이의 성공은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보수주의자, 개인리기주의자, 소극분자들과의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열매였으며 당과 수령이 것처럼 아껴주고 귀중히 여기는 인간의 창조적인 사색과 탐구정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이 보여주는 작가의 사색의 깊이는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인생관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밝히고 있는데 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철학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지성과 결합된 철학적사색으로 우리 시대 주인공의 심오한 내면세계를 해명하려는 시도로 장편소설 《청춘송가》에서 또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사색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당이 안겨준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탐구와 창조의 세계를 끊임없이 열어 나가며 이길에서 청춘의 환희와 보람을 찾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진호와 정아를 비롯한 긍정적주인공들의 성격을 그리면서 특히 그들이 지닌 생활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정아가 현옥에게 타이르듯, 호소하듯 들려주는 《이 세상 모든것이 우리의것이고 우리를 위해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기쁨도 많고 번민도 많고 자랑도 많고 슬픔 또한 많다》는 말은 대단히 의미깊다. 이것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주체적 이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에 사는 우리 시대 인간의 심장의 목소리,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로이다. 주인으로서의 이 깊은 자각과 신념을 지닌 인간의 기쁨과 환희는 가장 크고 벅찬 기쁨과 각격이다.

그것은 이 기쁨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만이 체험할수 있는 기쁨이며 주인들에게만 차례지는 기쁨이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을 세계관, 인생관으로 삼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함께 슬픔과 고민도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기쁨과 함께 이 고민과 슬픔도 귀중하다. 그것은 이 고민과 슬픔이 세계와 생활의 주인으로서 일하는 고민과 슬픔이기때문이다.

이 고민은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한 고민이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보다 큰 기쁨을 창조하기 위한 고민이다.

우리 문학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느끼고 깊게 체험하며 또한 고민하고 슬픔에 잠길줄도 아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는데도 옹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깊은 사색과 탐구의 세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자주의식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성격적특질을 깊이있게 추구하면서 이들이 지닌 창조정신을 보여주는 것을 또한 스쳐버리지 않고있다.

높은 자주의식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욕과 환희, 삶의 보람에 대한 의식은 창조의식과 깊이 련관되어있다. 그것은 참다운 삶이 곧 창조와 투쟁이며 이 창조와 투쟁 속에 참다운 삶과 그 보람이 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의 주인공들이 그 어려운 길을 곳곳이 걸어나간것은 이 길에 또한 창조의 환희와 보람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값있는것은 차례진 행복, 차례진 사랑이 아니였으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창조적인투쟁 그것이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다는것은 창조의 주인으로 되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래요. 사랑도 창조해야 하구말구요.》

당돌한 처녀, 총명하고 대바른 처녀 정아는 진호의 사랑을 두고 당사자에게 쏘아붙이듯 이렇게 말한다.

《꽃들이 만발한 화원이나 열매들이 주렁진 과원에서 제 마음에 드는 꽃을 꺾거나 입에 맞는 열매를 따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것이 과연 무슨 사랑이겠는가. 과학만이 아닌 사랑도 창조해야 한다는 이 어린 처녀의 말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활에서 새롭게 움트는 애정륜리와 함께 그 이상으로 창조적인 투쟁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찾는 생활창조의 철학이 깊이있게 천명되고있다. 이것은 분명 생활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파악한 사람들의 높은 이성세계의 반영이다. 소설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며 일하며 싸우는 우리시대 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두고 깊이 사색하며 탐구하는 인간의 높은 지성세계가 선명히 투영되어있는바 이

것은 인간의 내면세계묘사에서 소설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이것으로 하여 또한 작품의 지성적풍격이 비교적 담보되고있다.

창작적사색에서 이성적인 계기와 감성적인 계기의 유기적통일을 실현하면서 감성에 기초한 사색을 심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감성에 기초한 사색은 지성에 기초한 사색과 함께 창작적사색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문학작품의 사상, 그 철학적깊이는 그것이 정서와 결합될 때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문학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진실하고 깊이있을뿐아니라 작품의 감정, 정서가 진실하고 깊이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들이 인간성격과 생활을 론리적으로 깊이있게 추구하면서 성격과 생활이 안고있는 정서, 감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추구하는데 깊은 창조적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중편소설 《세대》, 《항로》는 여기에서 일정한 긍정적인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이 두중편소설에서 명백하게 안겨오는것은 그 감정의 진실성이며 정서의 깊이이다.

이 작품들에서 이야기와 인간관계, 성격과 사건발전의 론리적계기는 본질적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감정, 정서가 형상의 여러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있으며 이 정서가 성격을 해명하고 이야기를 전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들이 1 인칭의 형식, 주인공인 《나》의 주정은 자유로이 개방할수 있는 유리한 예술적형식을 취하고있다는 그것만을 넘두에 둔 것이아니다. 1 인칭형식은 주인공의 내면세계, 특히 그의 정서와 감정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드러낼수있는 예술적가능성이며 그것이 그대로 현실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편소설 《세대》와 《항로》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도는 작가가 인간과 생활을 보다 정서적으로 파악하고 주인공들이 체험하는 감정세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탐구하였다는데 있다.

중편소설 《세대》의 주인공 성철이 최야바이의 성격적미와 깊이를 깨닫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얼마나 진실하고 섬세한 감정과 정서로 충만되어있으며 그 정서는 또한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안겨오는것인가. 작품의 사상을 추상적론리로서가아니라 인간의 산 감정과 정서를 통하여 깊이있게 밝힌것은 정서와 결합된 창작적사색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작가가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추구하면서 특히 그의 미적감정, 도덕률리적감정을 밝히는데 관심을 돌린것은 정당하다. 일반적으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반응에서 가장 예민하게 표현되는것은 계급적감정이며이에 기초한 미적, 도덕적 감정이다. 인간의 이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추구할 때 예술

적형상이 주는 감화력은 강화되며 이것은 동시에 작품의 사상을 예리화하는데 힘있게 작용한다. 중편소설 《세대》에서 주인공 성철의 체협과정의 진실성과 생동성은 주로 그의 도덕적감정에 대한 섬세한 묘사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인간의 미적, 도덕률리적 감정의 깊이있는 묘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고상한 미의식, 높은 룰리의식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우리 문학의 도덕교양과 미적교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작가들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치사상적이며 계급적인 감정과 그에 바탕을 둔 그들의 다양한 감정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형상의 정서적충만성을 보장하는데 웅당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정서와 결합된 창작적 사색을 깊이 함으로써만 얻어지며 작가의 높은 사상의식과 고상하고 세련된 미적감정, 고상한 룰리의식을 전제로 한다.

창작적사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가들의 정책적안목을 높이고 식견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는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능동적인 사색과정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도달한 수준을 넘어설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생활을 보고 듣고 받아들인다. 아는것이 없거나 적을 때 작가는 도대체 사색할 힘을 가지지 못하며 사색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허약하고 초라하고 빈곤한것으로 된다. 창작적사색의 폭과 깊이는 작가의 준비정도에 비례하며 아는것이 많을수록 작가의 사색은 더욱 적극화되고 더욱 심화되며 더욱 확대되어 간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모르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색하고 그것을 심화하여나갈수 없으며 철학을 모르고 생활을 철학적으로 사색할수 없으며 심리학을 모르고 인간심리의 변증법을 그릴수 없으며 과학과 문화, 경제와 도덕, 군사를 모르고 이 분야의 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추구하여 들어갈수없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고 그것을 신념화, 신조화하여야 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그것으로 언제나 가슴을 불태워야 한다. 오직 이렇게될 때에만 우리 작가들의 사색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색으로 되어 가장 심오하고 풍부한 사색으로 되어 혁명에 실체적으로 이바지하는 값있는 사색으로 된다.

이와 함께 우리 작가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선진 인류가 이룩한 정신문

화적 재보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섭취하여야 한다. 높은 정치적 안목과 식견을 가진 작가만이 창작적사색의 무한대한 바다를 자유로이 헤엄쳐나갈수 있으며 이러한 사색에 기초한 작품만이 사람들에게 귀중하고 풍부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 참다운 생활의 철학으로 될수 있다.

높은 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에 기초한 작가의 창작적사색의 깊이와 폭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품의 하나는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이다. 작품에서 작가의 사색의 깊이와

폭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심오한 파악과 함께 그들의 성격과 생활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사색은 사물과 현상을 깊이 분석하고 그 본질을 밝히는 인식의 위력한 수단이다. 문학작품에서 작가의 사색은 구체적으로 인간성격과 생활을 분석하고 그것이 담고있는 다양한 의미와 색깔을 보여주는 데서 표현된다. 작품에서 생활이 분석되고 해명되는 과정은 다름아닌 작가의 사색이 심화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며 다른편으로 작가의 사색이 깊어지는 과정은 생활에 대한 다면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이 주어지는 과정이다. 작품에서 작가의 사색과 탐구의 흔적이 보이는 생활이란 작가의 사색에 의하여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되고 새롭게 해명된 생활이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은 주인공의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묘사대상을 참으로 다양한각도에서 깊이있게 분석하고있으며 이것은 때로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으로도 나타나고 시대에 대한 사회정치적해부로도 나타나며 역사적개괄로도 제시되며 철학적, 사상사적, 도덕률리적 해명으로도 제시되며 경제문화적견지에서 조망되어 군사적, 외교사적 견지가 도입되기도 한다.

악몽과 같은 무서운 회의와 울분에 시달리는 어둡고 피로운 밤, 차고 딱딱한 감방마루바닥에 눈물젖은 불을 안타까이 비벼대며 아득한 추억속에서 처량한 배고동소리를 듣는 주인공 유철의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은 시대를 불안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 악몽과 탁류 속에서 한줄기 빛을 찾아 헤매인 인간의 정신적초상을 참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에는 암흑의 시대상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깊은 리해, 참다운 삶의 길을 찾아 모대긴 인간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한 뜨거운 동정이 흐르고있으며 인간의 운명문제를 두고 깊이 사색하고 고민하는 작가의 모습이 함께 비껴오고있다.

작가는 생활을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하면서 많은 경우 그것을 작가의 자유분방한 시점에서 주고있으며 이것은 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보여줄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주고있다.

소설에 주어진것은 1930 년대초 사회정치정세와 시대상에 대한 분석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작품은 복잡다단하던 이 시기를 다양한 시점에서 폭넓게 보여주면서 자주의 길로 도도히 굽이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거센 흐름과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류사적전지에서 힘있게 확증하고있으며 서구열강들의 수치스러운 외교사의 흑막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고있으며 히틀러파시즘의 대두와 일본제국주의해외팽창야망을 정론적필치로 규탄하고있다. 소설의 첫머리에 그려지는 봄비는 서울거리, 은행으로 쓸어드는 예금자들의 초조한 표정, 사회운동자들의 주먹질과 한숨속에 저물어가는 1920 년대말의 어지러운 사회상에 대한 묘사는 또 어떠한가. 작가는 시대와 생활을 참으로 폭넓고 다양하게 깊이있게 분석하고있는것인데 이것은 작가의 높은 안목과 다면적인 지식이없이 불가능하다는것은 명백하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은 그 대상이 가지고있는 각이한 내용과 의미를 다같이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여주고 넓혀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된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 부)은 주인공의 성격과 함께 그를 둘러싼 사회력사적환경과 시대상 등을 각이한 시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형상의 심오성, 참신성을 보장하고있으며 이것이 작품에 철학성을 구현하는데 힘있게 작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소설에서는 하나의 시대상도 그것을 다양한 시점에서 해명하고있는것인데 주인공 유철의 처남인 주태화가 장마당을 헤매이는 장면은 이에 대한 확증으로 된다.

주태화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장거리를 누벼다녔으나 아무도 그의 책보마리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해가 설핏해질무렵 주태화는 어떤 물감장사에게 책보마리를 통채로 넘겨주고 굵도리가 톱날처럼 까칠한 은전 세일을 받는다.

함경도식으로 머리수건을 쓴 중년아낙네는 추저울눈금을 통통한 새끼손가락으로 연신 안으로 만재이면서 종알거리는데였다. 《에그-다 혈어 빠진 수지장을 어데다 쓰겠습메? 내가 괜히 인심을 쓴당이.》

호머도 김부식이고 셰스피어도 사마천이고 고전이든 진서이든 모두 한근에 5 전이었다.

당대 사회상에 대한 또하나의 얼마나 새롭고 깊은 해명인가. 책가위가 혈고 쭈미 쏘고 곰팡이 낀 주태화의 그 허름한 책들이 이제 누구의 구복을 채워줄수 있으며 호머와 사마천이 그 물감장사녀인에게 무슨 소용이 닿는단말인가.

이것은 참으로 《지성》과 《량심》을 지켜 그것으로 자족하던 한 인간의 《신념의 세계》가 여지없이 무너져내리는 가공한 정상임과 동시에 여기에는 한 인간의 지성과 선진인류의 정신문화적 재부와 량립할수 없으며 그것을 무참히 짓밟개는 당대 시대상의 암흑면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이리하여 이 생동한 장마당이야기는 셰스피어의 《5 대비극》 이상으로 심각한 비극을 안고 몸부림친 1 당대의 엄혹한 현실에 대한 준엄한 론고장으로 되고있으며 비극으로 보여주기에 너무도 초라한 지성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쳐주고 울수도 웃어넘길수도 없는 희비극으로 되고있다. 작품에 가벼운 해학과 야유가 흐르고있는것이 이때문이며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독특한 효과를 보이고있다. 작품에서 생활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은 생활이 담고있는 풍부한 내용을 다양하게 보여줄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으며 이것은 또한 생활에 대한 인식과 리해의 폭과 깊이를 담보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여기에서 작가들의 안목과 식견을 보여주는데 리용되는 지식과 인식자료들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는것이 필요하다.

풍부한 지식과 인식자료들의 리용은 생활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해명하며 작품의 사상에 술적풍격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지식과 자료들을 인간성격의 해명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것이며 생활과 밀착시키고 작품의 형상권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것이다.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성격의 논리를 외면한 지식과 자료들의 주관적인 구사는 그 자체로써 뜻이 깊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세계를 높이는데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사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에게 그 어떤 《철학적인》 대화, 내면독백을 시키며 그 어떤 지식과 인식적내용들을 점철하는것으로 문학작품의 철학성이 해결된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성격과 생활의 객관적론리를 떠나 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지식과 자료들이 강요될 때 작품의 풍

격은 오히려 손상을 입는다는것을 창작실천은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이 풍부한 자료들을 높은 경지에서 품위있게 형상권에 인입하면서 《지섬》과 《박식》을 자랑하는 배운종의 초라한 물골을 보여주고있는것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백과사전에서 따온 단편적인 지식, 항간에 떠도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외우며 지성인, 박식가연하는 배운종의 그 《지섬》, 《박식》은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한것인가. 작가는 배운종의 형상을 통하여 무식한 인간들의 《박식》을 야유하고있는것인데 많은 인식적자료들이 도입되는 작품창작에서 우리 창작가들의 지식이 이러한 《박식》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사선류와 상식본에서 따온 단편적인 지식을 함부로 내흔들수 없으며 그것을 린색하리만큼 아껴줄줄도 아는 여유를 가지는것이 현명하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는 많은 자료들과 정치, 경제, 법률, 철학, 도덕 등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지식들이 풍부히 반영되어있다. 소설에는 함무라비법전과 솔론의 법전이 나오며 히틀러의 하겐클로이츠와 《당고협정》이 있으며 단톤과 로베스뵈에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며 호머와 셰스피어, 사마천, 김부식의 이름이 비치며 리조봉건시기의 《탁지부》 등 실로 풍부한 자료가 보인다. 소설은 이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와 지식으로 생활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절제있게 형상과 밀착시키고있으며 철저히 생활의 논리와 일치시킴으로써 작품의 지성적풍격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작품은 풍부한 자료들과 지식들을 생활에 대한 다면적이고 깊은 분석에 참으로 여유있고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그것을 형상의 유기적구성부분으로 전환시키고있으며 이것은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특히 부정인물들의 그 회피운 대화들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 높은 안목과 식견에 기초한 작가의 깊은 창작적사색은 생활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에서 또한 훌륭히 나타나고있다.

예술적일반화는 전형화의 법칙이며 현실에 대한 예술적 인식과 파악에서 사실주의적예술이 이룩한 가장 큰 승리이다.

예술적일반화의 그 거대한 힘을 떠나서 작가의 창작적사색의 위력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으며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작가의 창작적사색은 예술적일반화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그것은 예술적으로 일반화된 생활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구현된다.

예술적으로 일반화된 생활은 생활의 본질을 가장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생활, 생활의 온갖 깊은 뜻과 의미와 색깔을 가진 생활, 시대와 력사가 비친 생활, 현실생활이상으로 그렇게도 방불하고 생동한 생활이다. 이 일반화된 생활이 주는 사상예술적감흥은 거대하며 이 예술적일반화의 힘이 사람들을 끝없는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간다.

예술적일반화가 훌륭히 실현될 때 자그마한 하나의 생활세부도 참으로 많은 의미와 깊은 뜻을 가지게 되며 이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며 그에 대한 생각이 또한 깊어진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 삼녀가 남편을 찾아간 감옥의 그 면회구에 대해 회상하시라.

《면회구의 쇠그물은 반들반들하였다. ... 손가락이나 가까스로 드나들수 있는 그 쇠그물을 부여잡고 두꺼운 담벽으로 갈라져있는 감옥과 사회의 면회가 이루어진다. 한숨과 눈물이 쇠그물을 녹이고 무수한 손길이 그 쇠그물의 녹을 벗기였다.

작가에 의하여 예리하게 포착된 이 반들반들한 면회구는 사실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있으며 깊은 사연을 담고있는것인가.

이 세부에는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했던 일제의 폭압기구와 반인민적악법에 대한 저주와 규탄이 흐르고있으며 이 무시무시한 권력밑에서 억울한 삶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의 기막힌 생활이 비껴있으며 감옥에 갇히운 남편의 신상에 붙이는 이나라 너인들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생활의 한 자그마한 세부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적일반화의 힘은 생활의 본질에 대한 예리화, 특징화와 깊이 관련되어있다.

예술적일반화는 생활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한 세부를 예리화, 특징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증하고 강조하며 이것이 생활에 대한 련상을 불러일으키며 사색의 단서를 끊임없이 열어주면서 형상의 심오성을 담보한다.

예술적일반화가 흔히 비유와 상징, 특히 예술적 과장을 동반하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예술적일반화는 예술적과장의 수법으로 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창조하며 생활이 담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시킨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열변을 토하며 이제라도 《왕조》를 허물어뜨리고 부르조아정부를 요정낼것 같던 혁명의 《지도자》들의 물결은 의심할바없이 예술적으로 과장되어있다.

소설은 이들의 이 기고만장하던 모습을 예술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들의 취약성, 허약성을 방불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이것은 특히 이 《영웅호걸》들의 그 입에서 가냘픈 한숨소리가 새어나오고 내흔들던 그 주먹으로 공손히 감옥공장의 봉투를 만드는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과연 이 초라한 모습들이 《세계혁명》을 부르짖으며 맑스주의를 넘볼처럼 외우던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이 아니며 《폭풍》을 목이 쉬게 울부짖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아니란 말인가.

예술적일반화과정은 새것의 탐구과정이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예리화와 특징화자체가 새것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생활의 제시로 되기때문이다.

특색있는 새로운 생활을 탐구하고 발견함이 없이 생활에 대한 특징화, 예술적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가의 사색은 창조적인 사색이며 그것은 온갖 상식적이고 류형적이며 진부한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것과 량립할수 없다.

작가의 사색이 뚜렷한 작품들에서 특징적으로 안겨오는 생활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그 생활이 깊은 뜻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비상이 새로기때문이다.

예술적일반화에 의하여 담보된 생활의 깊은 의미와 색깔도 만약 그것이 새롭게 못하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형상의 심오성, 생동성이 참신

성과 결합될 때 그 형상이 참으로 심오하고 생동한것으로 되며 작품의 풍격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한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이 보여주는 예술적일반화의 높이를 인간과 생활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제시하려는 작가의 탐구정신, 창조정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작품에서 작가는 그 어느 자그마한 생활도 그것을 새롭게 독특하게 참신하게 보여주려는 지향을 강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이 창조적지향이 예술적일반화의 수준을 담보하고 형상의 깊이를 담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작가의 이러한 창조적관심은 인간성격을 개성화하고 그 인간을 둘러싼 사회력사적환경과 생활분위기를 특징화하는데서 나타나고있으며 과장과 야유, 풍자 등 다양한 예술적수법의 활용과 독특한 언어문제적효과를 이룩하려는 세심한 관심속에 잘나타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작가의 높은 안목과 식견의 넓이, 이에 기초한 창작적사색의 폭과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은 참으로 작가는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받아들이며 자기가 아는것만큼 표현한다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작품의 하나이다.

우리 작가들에게는 창작적사색의 위력한 무기인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으며 작가들의 사색을 가장 옹바르게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향도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장엄한 현실은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얼마나 수많이 배태하고있으며 작가들의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주체의 예지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며 위대한 철학이 그대로 현실로 된 우리 인민의 생활을 안고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있다.